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13

충청남도 문화



한국문화연합회 충청남도지회

문화원이여 충남의 모든 문화원이여

문화란 무엇인가?
해답을 알지 못해 헤맬 때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기웃거린 시절 있었습니다

이제금 다시 문화란 무엇인가?
사람이 밥 먹고 옷 입고 집 짓고
사는 것 모두가 문화이지요



시인 공주문화원장 나태주

미술이나 문학이나 연극, 음악
그런 것들만 문화가 아니고
사람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이야기하고 웃는 것까지가 모두 문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문화이지요

그래서 더러는 사람들
문화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말들을 놓지요
문화가 우리 자신이다, 말을 하지요

문화원이여 충남의 모든 문화원이여
그대는 충남인의 가슴이요 영혼입니다
삶의 중심이며 안식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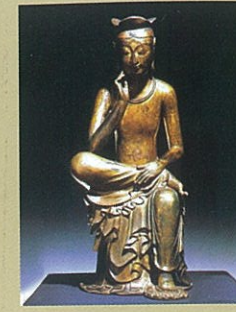
문화원은 결코 몇몇 이야기꾼들만 모여
소일하는 사랑방은 아닐 터,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 특별한 일을
꿈꾸는 곳은 아닐 터,

마땅히 충남의 모든 문화원은
충남인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원이여 충남의 모든 문화원이여
지난날도 그러했지만 앞으로 더욱
충남인의 삶과 죽음이 되십시오
부디 충남인의 기쁨과 슬픔의 동반자 되십시오.

이제금 다시 문화란 무엇인가?
사람이 밥 먹고 옷 입고 집 짓고
사는 것 모두가 문화이지요





발행일자 2009년 12월
 발행일 정정희
 기획 윤준웅, 임영이
 편집인 정제상, 김정현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TEL. 041-354-2367, 357-2367
 FAX. 041-356-3850

표지설명 금동미륵보살 반가상
 충남문화 제13호는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contents

- 002 권두시
나태주 (공주문화원장)
- 006 권두언
정정희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 008 축간사
이인화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 010 특별기고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 017 특별기고
충남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 022 문화칼럼
임영이(연기문화원장)
- 023 충남의 명소
명산
- 038 충남의 인물
오청취당(서산문화원) • 사계 김장생(논산문화원)
- 042 충남의 민속
집터다지기(공주문화원) • 디딜방아땀(금산문화원)
- 048 충남의 전설
이토정 전설(대천문화원) • 남산바위와 도영지(성환문화원)
- 052 충남의 문화재
정림사지 석불좌상(부여문화원) • 수덕사 대웅전(예산문화원)
• 흥주사 은행나무(태안문화원)
- 056 충남의 향토문화축제
백제대제(연기문화원) •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온양문화원) • 수리바위제(홍성문화원)
- 063 향토문화 연구
예산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



- 문화원 단신 065
- 2009년 충남도지회 활동상황 068
- 2009년 도내 문화원 활동상황(가나다순) 071
- 공주문화원 활동상황
- 금산문화원 활동상황
- 논산문화원 활동상황
- 당진문화원 활동상황
- 대천문화원 활동상황
- 부여문화원 활동상황
- 서산문화원 활동상황
- 서천문화원 활동상황
- 성환문화원 활동상황
- 아우내문화원 활동상황
- 연기문화원 활동상황
- 예산문화원 활동상황
- 온양문화원 활동상황
- 청양문화원 활동상황
- 태안문화원 활동상황
- 홍성문화원 활동상황

각 문화원 홈페이지와 E-book 소개, 문화원 현황 138



충남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장으로
'충남문화'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변화와 역동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충남문화의 현장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활동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충남문화인들의 소통과 교류의장으로
'충남문화'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문화라는 말이 남용되고 있지만
문화 일선에서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과제를 실현해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묵묵히 문화적인 삶을 창조해가는 문화예술인들과
행정적인 배려와 지원에 애쓰는 행정가들
과거와 현재를 깊은 눈으로 조망하는 향토사연구에 매진하는 학자들
문화 기반시설에서 경영과 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실무자들
문화 향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기는 지역주민들
이 모든 역할과 관계를 올바르게 잇고 매듭짓는 일이야말로
충남도지회의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문화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충남도지회 주관 사업의 맥을 이어가면서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해서는 기관과 단체 간의
조화와 협력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 매진하겠습니다.

충남도지회가 모범적이고 활성화된 지회로 성장하기까지
각 지방문화원 운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면서 풍성한 문화풍토 안에서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장 정정희

높은 文化道로 만드는 것

충남문화 제13호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책자 발간에 힘써주신 정정희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충남은 경제적인 풍요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은 文化道로 만드는 것입니다.

충남은 고대 백제문화의 본고장이며 내포문화와 기호문화를 꽃피운 문화의 고장으로 강한 문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21세기는 감성과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를 빼놓고는 국가경쟁력도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난해 우리 道에서는 문화예술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충남문화예술제와 충남문화예술포럼을 탄생시켰으며 올해 제2회째 행사를 통하여 충남의 문화예술을 한 차원 높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道는 유능한 문화인 육성과 향토색 짙은 창작예술 발굴을 통하여 문화 인프라를 탄탄히 다져나갈 계획이며 도내 곳곳에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남 문화발전을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인화

우리지역 문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우리지역 문화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된「충남문화 제13호」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측면에서 이번 책자의 발간은 충남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충남지회는 지난 60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써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고장은 문화적 전통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훌륭한 문화예술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며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외침과 위기를 맞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문화가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애환을 함께 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은 삼국시대에는 백제문화, 조선시대에는 선비문화, 개화기에는 종교문화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호국문화의 중심지로서 빛나는 민족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이처럼 문화는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느끼는 보편적인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사회의 척도일 뿐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문화인을 존중하며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 국가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가꾸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단순한 지역경제 정책이나 지방문화 정책을 넘어서서 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군 문화원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구축하여 주민의 폭넓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향토문화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선비정신

권력개념보다는 자신을 닮아
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君子가 되어
민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봉사행위로 이해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정욱자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지식인은 선비(士)로 이해되고 있다. 선비는 오늘날의 왜소한 지식인과 곧잘 비교된다. 특히 깨끗한 지조와 목에 같이 들어와도 두려워 않던 강인한 기개, 옳은 일을 위해서는 사약(賜藥) 등 죽음도 불사하던 불요불굴의 정신력, 항상 깨어 있는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특징지워진 선비상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제시대와 광복후 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지식인들이 보여 주었던 체질적 한계와 현실타협적 처신은 전통시대 지식인인 선비와 비교되면서 선비정신에 대한 재조명이 요청되고 있다.

조선시대 선비란 신분적으로는 良人이고 경제적으로는 농촌 지방의 中小地主層 出身이 主流이다. 조선의 國學이던 性理學을 주전공으로 하여 그 이념을 실천하는 學人이었다. 士의 단계에서 修己하고 大夫의 단계에서 治人하는 修己治人을 근본으로 삼아 학자관료인 士大夫가 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다.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는 修己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治人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이었으므로 修己가 전제되지 않은 治人은 성립될 수 없었다. 또 治人이란 남을 지배한다거나 통치한다는 권력개념보다는 자신을 닮아 正義를 실현할 수 있는 君子가 되어 민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봉사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들은 民本主義에 입각한 이상향의 건설을 지향하였다. 그 이상향은 역사적으로 堯舜三代에 이 세상에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修己가 제대로 된 선비, 즉 군자가 治人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한 바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인식되는 이상향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세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향하여 분골쇄신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士大夫였다.

1. 선비의 修己

선비의 전공필수는 文·史·哲중심의 인문학이었다. 특히 철학에 해당하는 經學이야말로 학문의 핵심이었다. 經學이란 유교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성리학의 理氣論을 해명하는 것이 최대과제였다.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인 이기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는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우주·자연·인간의 모든 현상은 작용으로서의 氣와 작용의 원리로서의 理에 의하여 일관된 잣대로 생성·변화·소멸한다는 논리였다. 바로 이 理氣論을 기초로 하여 제반 학설이 전개되었고 그러한 학술논쟁에 모든 선비들이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었다.

역사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취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수천년 동안 동양문화권의 주도국이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였다. 그 흥망성쇠의 교훈과 변화요인에서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역시 필수로 정리되고 학습되었다. 현재의 삶의 거울로서 역사는 거울 감(鑑)자를 즐겨 썼다. 經學과 歷史는 「經經緯史」로 이해되었다. 경전의 진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율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날줄인 經으로 이해하고 역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씨줄로 이해되었다. 經經緯史의 정신으로 날줄과 씨줄로 짜여져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다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응시하고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한 진리나 사실, 사상성 등 알맹이를 표현하는 매체가 바로 문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나 진리도 그에 합당한 문장력이 없다면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문장이란 메시지를 담은 그릇으로 이해되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진리나 사상 등 道라 표현되고 문장은 그것을 담은 그릇인 器로 이해됨으로서 道器論은 經經緯史정신과 문장론의 상호 보완관계로 설정된 논리틀이다. 결국 경학(철학)·역사·문장학은 상호보완의 관계에서만 그 자리매김이 분명해지고 그 역할도 증대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앎을 삶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知行一致의 정신에 충실하려는 것이 선비의 일반적인 선택이었다. 인문학의 진정한 목표는 삶의 질을 끌어 올려 인간적인 生의 실현에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文·史·哲의 보합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修己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修身의 문제는 <小學>에 기초를 두었다. 성리학에서 어린이의 수신교과서로 성립된 이 책은 어려서부터 灑掃·應對·進退之節을 가르치는 행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쇄소는 청소하는 법, 응대는 말을 예의로 주고받는 법, 진퇴지절은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로서 어려서 몸에 익혀야 자라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나오는 것이다. 16세기 士林이 조선사회에 주도세력화 하면서 어린이의 수신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중종때에 朴世茂(1487-1564)의 <童蒙先習>이 간행되었고 선조때에 李珣(1536-1584)의 <擊蒙要訣>이 출간되었다.

<소학>이 송나라때 이루어진 책이므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조선사회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조선사회에 적합한 어린이의 수신교과서가 창출된 것이다. 다시 1884년엔 영남유생 朴在馨에 의하여 <海東小學>이 발간되어 소학과 똑같은 체제와 요목을 채택하였음에도 그 실례와 내용은 거의 조선선비의 學行으로 알차게 꾸며진 공실공히 조선소학이 가능케 되었다. <소학>은 조선현실에 조응하는 어린이의 수신교과서들이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어 기본적으로 배우는 필수교과서였다.

나아가 <近思錄>·<心經> 등 성리학서를 학습하였으나 성리학의 핵심교과서는 四書三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論語 孟子·大學·中庸의 사서야말로 평생 동안 그 原義를 읽는 텍스트였고, 詩經·書經·易經의 삼경은 사서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텍스트였다.

그러나 <소학> 다음 단계에서 治人の 기본교과서가 된 것은 <大學>이었다. (1)格物致知 (2)誠意正心 (3)修身齊家 (4)治國平天下로 표현된 대학의 8조목은 선비가 밟아 가야 할 단계였다. 첫째, 격물치지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궁리하여 진정한 앎에 이르는 일단계 작업이다. 둘째, 성의정심은 스스로를 속임이 없어 마음이 만족한 상태인 誠意의 상태에 가야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셋째, 수신제기는 첫째·둘째단계를 거쳐 비로소 스스로의 몸을 닦아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나 사회인으로 제몫을 할 수 있는 기초이다. 넷째 치국평천하야말로 선비가 해야 될 최종단계로 大夫로서의 완성을 뜻한다. 나라를 다스려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士大夫가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일 것이다. 선비가 大夫가 되는 점진적 성장과정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였던 것이다.

2. 선비의 治人

선비의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선비가 선택하던 과거를 보는 것이다. 20세 전후에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던 小科시험을 보았다. 경전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를 시험하던 生員試는 학자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문장이나 詩 등 문학에 치중하던 進士試는 문장가의 소질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였다. 생원·진사의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成均館에 입학하여 기숙사인 東齋 西齋에서 생활하는 館學齋生, 즉 국비 장학생이 되거나 다시 귀향하여 大科시험을 준비하였다. 최종적으로는 大科인 文科에 합격하여야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9품관부터 시작하는 학자관료가 되었다. 文槩武宣이라고 하여 문과합격자는 槐院, 즉 承文院에서 출발하고 무과합격자는 宣傳官에서 시작해야 고위직까지 진출하는 正路로 여겼다.

둘째, 산림(山林)의 길이다. 선비의 복수개념인 士林이 정계·관료계에 대거 진출한 조선중기에 이르면 과거를 보지 않고 중장년이 되도록 학문에만 전념하는 대학자를 산림이라 차별화하여 우대하였다. 이들은 세속적인 출세의 길이 되어버린 과거시험을 단념하고 몇십년씩 공부하여 그 학문적 능력으로 학계는 물론이려니와 정계까지 주도하였다. 이 때의 정파인 朋黨은 학파를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파↔정파의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림은 학파와 정파의 연합구속에 그 중심점이었으며 영수였다. 「岩穴讀書之士」로 불리운 산림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兩亂후 17세기 위기상황에서 특탁되었다. 인조대부터 산림을 특채하기 위하여 별정직을 만들었으니 성균관의 司業(종4품)이나 祭主(정3품 당상관), 世子侍講院의 謚議(종7품)·進善(종5품)·贊善(정3품 당상관) 등이 있었다.

병자호란 다음해인 1637년 「丁丑의 下城」 때 오랑캐로 폄하하던 청나라 태종에게 국체의 상징인 국왕 인조가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였다. 이 때 인질로 심양에 끌려가 10여년간 인질생활을 했던 鳳林大君이 귀국하여 급서한 형 昭顯世子를 이어 왕위에 오르니 곧 孝宗(재위:1649-1659)이다. 그는 복수하여 치욕을 씻겠다는 復讐雪恥의 일념으로 독서지사인 산림들을 정계에 초치하였다. 이들은 정치일선에 등장하여 국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정치가, 즉 경세가의 역할을 다하였다.

서인의 영수 宋時烈(1607-1689)은 그 대표적 존재로서 청을 토벌하여 복수설치하겠다는 北伐論을 제창하여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였고, 內治는 예로서 다스리는 禮治로 설정하여 조선후기 사회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 외에 宋浚吉(1606-1672)·許穆(1595-1682)·尹·(1617-1680)·權·(1604-1672)등 당시의 주도인물은 거의 산림출신으로 뒤이어 일어난 禮訟論爭의 이론가들이자 실천자들이었다. 예의 기준이 정치문제화한 예송은 예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수불가결의 이념논쟁이었다. 결국 산림들의 치열한 정치의식과 실천을 통하여 양반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상처받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선비의 부득이한 선택으로 隱逸이 있다. 국가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亂世를 당하거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초야에 은둔해 있던 선비를 말한다. 隱士 逸士 遺逸로도 불린다. 이들은 부덕하고 무도한 통치자가 권력을 휘두를 때 정치판에 나아가는 일을 거부하였다. 부도덕한 暴政을 도와주는 결과를 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오염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꺾일망정 휘어지기를 거부하고 獨也靑靑하고저 하는 그 자존심은 曲學阿世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주나라 姜太公으로부터 시작되는 유일의 역사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많은 예화로 남아 있다. 낚시로 세월을 낚다가 때가 무르익어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를 만나 비로소 출사하여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끝까지 믿어 준 통치자를 만났기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그런 이를 만나기 전에는 선불리 자기능력을 내보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 낸 인내력에 기초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이 儒者들이며 조선시대 선비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을 알아주고 발탁한 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만큼 의리를 지키는 대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예 협조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다.

넷째,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의 선비의 「處變三事」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은둔·망명·자결이 그것인데 이 세가지 중 어느 것도 맞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舉義謝諸」을 선택하였다. 의를 일으켜 세울 적을 쓸어버리겠다는 이 마지막 결정은 선비의 정상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국가가 存亡의 기로에 서 있을 때의 극단적 방법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항쟁과 1895년 乙未事變때 國母가 시해되는 위기상황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을 들 수 있다. 이 때 선비들은 의병장으로서 국민병인 의병을 조직하고 통솔하였다. 직접 병장기를 들고 전투에 임하고 무예를 행하기보다는 병서에 대한 조예와 지리에 밝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게릴라전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禮樂射御書數의 六藝를 닦는 것이 선비의 기본의힘이었기 때문에 말타고 활쏘는 정도의 무예는 평소에 닦아 두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민간인으로 구성되었고 민간자금을 군자금으로 확보하는 등 전적으로 민간차원에 의존하였다.

결론적으로 선비의 治人は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료사회에 진입하여 학자관료가 되는 것이 기본구도였고 대세였다. 士의 단계에서 大夫의 단계로 전환하여 명실공히 士大夫가 되어 修身齊家에서 治國平天下의 단계로 가는 것이 正路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를 잘못 만나 순탄한 仕路를 가지 못할 때 파란만장한 굴절과 노선수정을 거듭하며 불행한 선비상도 적지 않았다.

3. 선비의 價値指向

선비의 특징적인 면모는 一貫主義에서 잘 나타난다. 유학에서 강조되는 「一以貫之」의 이념은 일관된 가치지향과 행동규범으로 선비의 삶과 행동을 규정하였다. 자신과 타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박히되 남에게는 후하게 대하는 薄己厚人の 생활태도를 보여 주었다. 이 일관성은 세력에 따라 표변하는 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는 선비로서의 징표같은 것이었다.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단단한 正體性을 갖고 있는 外柔內剛한 인물상이며 청빈을 미덕으로 삼아 儉約을 실천하는 清貧儉約의 생활철학을 가진 사람이 선비이다. 조선선비에게 있어서 호화와 사치는 금기사항이며 국가 사회의 公敵으로 치부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청빈은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道(진리)를 즐기는 경지에 까지 이른 것이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달관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비란 결국 세속적인 일에 대하여 초연할 수 있는 정신세계에 진입한 학인이다.

선비가 지향한 가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사항이 학문과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學行一致의 방향성이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배움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귀의하던 경전인 《論語》의 첫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서 익힌다는 말은 바로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로, 學行은 함께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실천없는 학문의 공허함을 지적한 것이며 선비는 반드시 學行을 一致시킴으로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천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義理와 名分이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옳은 도리인 의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따져 보아야 하는 기준이었다. 名分이란 각기 이름에 걸맞는 분수나 역할로서 당시대는 명분사회였기 때문에 명분을 잃으면 그 사회에서 도태당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익을 도외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선비는 일에 임하여 名分과 實利를 합치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양자의 합치가 어려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명분을 택하는 것이 선비로서 살아남는 길이었다.

또한 의리를 지키되 人情과 조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의리만을 따지면 세상살이가 삭막하고 메마르기 쉽다. 인정만을 베풀면 기준이 없이 혼란스러워지므로 義理와 人情을 적절하게 보합하여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강한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추겨주며(抑強扶弱),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하기(先公後私)를 실천하여 모든 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共生共存的의 이상사회, 즉 大同社會라는 공동체 사회를 내세가 아닌 현세에 건설하려는 이상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었다.

이 점이 이 세상의 곤고로움을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전단계로 보는 다른 종교와 유교의 차별성이며 선비는 이 세상에 윤투피야를 건설하는 역군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나의 生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生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弱肉強食이라는 동물세계의 기준을 극복하려는 인간화 노력이었다. 士農工商이라는 능력별 차별화는 인정하되 기본적으로는 함께 가는 사회를 大同社會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선비의 최종 지향점은 中庸의 정신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조화와 균형감이 요구되는 中正의 상태, 바로 그것이다.

4. 선비의 좌절

선비가 사대부 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좌절은 유배와 낙향이다. 바른 소리를 하여 사약을 받는 일도 불사하는 존재가 바로 선비인지라 귀양살이 정도는 기개있는 선비라면 한번쯤 당하는 일이다. 또한 사직소를 올리고 혼란스러워지는 官界를 미련없이 떠나 낙향하는 것도 선비가 취하는 선택이자 권리이다. 전자가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후자는 자의적인 것이다. 특히 조선 후기 봉당정치가 본격화하여 당쟁이 격화되자 유배문화라고 할 만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귀양살이는 다반사가

되었다. 길게는 10여년 또는 종신유배까지 있었다. 遠徙地로 분류되는 三水·甲山에 유배되는 것은 重刑이었고 다음이 바로 격리되는 제주도 등 섬에 유배되는 것이었다. 특히 북변에 유배되면 노령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기후변화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흔하였다. 때로는 격화된 정쟁에서 아까운 인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배형에 처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진실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유배생활을 하는 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 좌절의 시기를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다시 修己의 단계로 돌아가 관료생활중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학문연마에 골몰하고 유배지의 인재를 모아 양성하여 지방문화를 살피우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에 가서는 그 제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기학문을 완성하고 생활터전을 기꾸어 유유자적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유명한 유배지에서 이들이 일구어 놓은 유배문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5. 선비의 종결

선비의 지적 활동은 文集의 출판으로 종결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저작물을 정리하고 自撰墓誌銘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의 사후 후손이나 제자들이 주체가 되어 생전의 글들을 수집 정리하고 생전에 가까웠던 친지나 당대의 저명인사에게 墓文이나 行狀을 부탁하여 문집을 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은 詩·文·書·雜著·墓文 등 무수히 많은 장르로 구분 정리되는데 附錄에는 반드시 行狀과 年譜를 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생전에 유명인사일 경우 자연히 문집의 내용이나 체제가 방대하기 마련이었다. 文勝한 선비일 경우 詩集의 분량이 많아지고 理勝한 선비는 기타 저서나 서간문이 많다. 특히 중요한 철학논쟁은 거의 편지로서 주고받은 경우가 많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大提學 등 文衡을 지낸 인물은 왕의 敎書를 代筆하거나 과거시험문제를 출제한 策題가 많은 점도 특기할 만하다. 또한 대학자이거나 정파의 영수급 인물은 당대의 저명인사들의 묘문을 거의 도맡아 짓고 있는 사실도 재미있다.

문집은 선비 사후 곧 정리되어 짧은 시일 내에 간행되기도 하지만 몇백년후에 나오기도 한다. 전자는 거의 제자들이 선생의 學德을 기려 공동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후자는 후손들이 가문의 영광과 후손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사적에서 선조의 행적이나 관련기사를 뽑아 내어 만들어 낸 것이다. 조선후기에 와서 부상하는 가문에서 전기의 선조들에 대한 문집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낸 예가 많다. 내용과 분량이 소략 빈약한 것을 특징으로 한 문집들이다.

문집에 의하면 조선선비들이 얼마나 名分을 중요시하였는지를 「先生」이라는 칭호의 절제된 사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학문길을 열어 주어 學統에 연결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사표가 되어 준 이에겐만 선생이라는 칭호를 올리고 기타 어릴 때 천자문이나 小學정도를 가르쳐 준 이에겐 塾師정도로 호칭하였다. 일생에 한 명의 先生을 모시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獨學하고 선생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이도 많다. 아마도 私淑하던 경우도 많은 것 같다. 名과 分에 맞는 업적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집의 서문은 저자의 친지나 당대의 문장가에 위촉하여 받아 실지만 跋文은 문집편찬을 주도하거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 발간경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후손이나 제자가 쓴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물지만 왕이 직접 서문을 내려 御製序文을 실은 문집도 있다. 결국 선비가 일생동안 활동한 업적과 지적 작업의 소산이 문집으로 총정리되어 마무리 작업이 완성됨

으로서 그의 사후평가작업은 종결되는 것이다. 문집은 자자손손 전수 보관되었고 목판을 간직하였다가 重刊하기도 하고 후에 다시 자료수집을 하여 보완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자손에게는 영광이고 국가에는 인재의 선례로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지식인의 대명사인 선비는 단순한 지식중사자가 아니라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실천을 통하여 확대된 시야를 갖고 국가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文·史·哲을 전공필수로 하고 詩·書·畫를 교양필수로 한 인문학도인 선비(士)는 관료가 되어 士大夫로서 완결된 삶을 추구하였다. 선비의 복수개념인 士林은 관료에 비군으로 朝野에서 역할분담을 하였던 것이다.

학문과 예술을 겸수하여 學藝一致의 조화로운 경지를 지향하는 이성과 감성이 균형잡힌 지성인이었다. 知行一致를 통하여 앎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大同社會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려 치열하게 살아간 이들이다. 그들이 가장 좋아한 글자는 淸(맑을 칭)자였다. 淸貧·淸白吏·淸職·淸議·淸流 등 淸字 가치우선적 용어가 선호되었으니 선비정신은 맑음의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그들의 미의식은 맑음의 미학이며 그들의 체질은 굳세고 밝고 올곧은 剛勁明正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화강암의 바위산이 많고 햇빛이 많은 조선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儒學내지 性理學이 중국에서 형성되고 조선이 수용하였지만 조선선비의 굳은 절조와 결연한 의지, 절제된 삶의 방식은 조선의 山川과 氣候조건, 그리고 조선의 문화전통 등이 빚어낸 조선화한 차별성의 결정체라 하겠다. 굳세고 밝고 반듯한 인간상이 이상형으로 평가받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며, 선비는 그 이상형에 근접하는 지식인이었다.

19세기말 西勢東漸의 大勢에 편승한 日帝에 强占당한 이래 1세기동안 전통문화에 대한 평가절하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선비상과 선비정신에 대한 강렬한 향수가 국민정서에 내재해 있는 것은 그들의 투철한 시대적 역할과 긍정적 지식인이라는 이미지에 힘입은 바 크다. 그래서 우리 역사 전통에서 계승할 것은 선비정신밖에 없다는 자조적이지만 한가닥 희망을 담은 담론이 형성되는 것 같다.

충남지역의 역사자원과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화

강진갑
문학박사, 역사문화콘텐츠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한국향토사연구학회전국협의회 전문위원장



1. 문화유산의 가치와 문화콘텐츠 산업

1-1.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문화콘텐츠 산업 소스로서의 역사자원과 문화유산

- 지금까지 문화가 꽃이었다면 앞으로는 문화가 미래로 열린 길이다 → 자유로운 감성이 창의력과 결합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
- 문화원형 → 자원이 되는 이야기 → 그 속에 꽃피는 콘텐츠 → 새로운 경제발전의 원동력
- 문화콘텐츠산업이 세계와 한국 경제 성장 동력
- 지금은 이야기 전쟁 시대: 대장금, 반지의 제왕, 오페라유령,
- 공연, 영화, 엔터테인먼트: 모두 이야기가 소재임
- 문화원형의 핵심이 역사와 문화유산임

1-2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징과 잠재력

1-2-1 특징

가. 고성장 산업

-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인터넷의 확산과 IT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

나. 연쇄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은 원소스 멀티유스(One-Source Multi-Use)라는 속성상 제조업, 방송·통신업, 관광업 등 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

다. 디지털화 및 미디어융합현상 확대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확산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제작공정, 유통구조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

1-2-2. 잠재력

- 2007년 한국의 문화콘텐츠산업의 부가가치(명목금액 기준)는 23조원으로 GDP대비 2.5%에 불과

- 반면 주요 선진국의 문화콘텐츠산업 비중은 GDP 5% 상회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

-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그만큼 잠재력이 높다

2. 역사자원과 문화유산의 분야별 문화콘텐츠화

2-1. 교육, 관광지원화

2-1-1. 교육

- 문화유산을 활용한 학교 교육 - 박물관 문화교육 - 문화유산 테마, 탐방 여행

2-1-2. 지역축제

- 2010 대백제전 - 백제문화제 - 도원문화제 - 고마나루 전통축제

2-1-3. 전통문화 재현

- 전통시대 및 근현대 역사를 재현

2-1-4. 박물관

- 백제역사문화관, 백제군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2-1-5. 가상현실 백제학

- 가상현실로 백제의 역사를 구현,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

2-2. 창작지원화

2-2-1. 창작소재로 활용

- 활용분야: 문학, 공연, 시각,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2-2-2. 국내 활용사례

- 화랑세기 -> 소설, 연극, 영화(?)

- 도미부인 -> 소설, 뮤지컬, 지역문화제

- 신윤복 -> 영화 '미인도', 드라마 바람의 화원

가. 방송

-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 드라마: 서동요,

나. 영화: 황산벌

다. 출판 만화: 만화백제, 컬러 만화로 보는 백제왕조 700년, 근초고왕과 백제왕조

라. 문학: 사비수와 낙화암, 흐르는 목소리, 계백, 정읍사, 백마강 달밤에, 송산리고 분군 도굴기, 도미부인, 서동요, 황산벌,

고마나루, 솔피의 바람소리, 천도현 향가

마. 무용: 도미부인, 환, 백제인의 사랑

바. 음악회: 백제를 소재로 한 기곡의 밤

사. 미술전시: 백제금동대향로와 고구려 벽화, 백제사진대전람회, 숨어있는 탈 이야기 전, 백제로의 회향전

2-2-3. 중국 활용 사례

가. 인상시리즈

- 중국 자연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초대형 공연물 제작

- 장예모, 왕조가, 관웨이 제작 연출

- 인상시리즈 : 여강 인상: 운남성 여강의 실경 야외 뮤지컬

: 인상 유삼저: 계림 신수실경 오페라

: 인상 서호: 항조 산수실경 오페라

-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로 부상: 각 공연별로 1년에 100만명 이상 관람

- 지역 주민이 배우로 출연하여 소득 2-3배 증대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장예모는 인상시리즈에서 실험한 내용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활용,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중국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

나. 선종소림음악대전

다. 대송동경문화

2-3. 문화산업지원화

2-3-1. 디지털콘텐츠화

가. 사이버 백제역사문화관

나. 문화원형사업

- 문화원형관련 복식디지털콘텐츠 개발

- 한민족 전투원형 콘텐츠 개발

- 죽음의 전통의례와 상징세계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춤 디지털콘텐츠 개발

- 한국석탑의 문화원형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 한국산성원형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다. 게임

2-3-2. 유형문화제

- 백제재현토기 '백제요'

2-3-3. 자연유산

- 계백쌀

3. 문역사지원과 화유산의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3-1. 문화유산과 공공디자인의 결합: 새로운 21세기 문화유산 창조

- 전통문화유산인 문화재와 21세기 문화예술인 디자인과 공공미술의 만남은 21세기에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일이다

3-1-1 공공 디자인

가. 공공디자인 개념: 공공을 위한 디자인, 공공에 의한 디자인

* 상업 디자인은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 구매자를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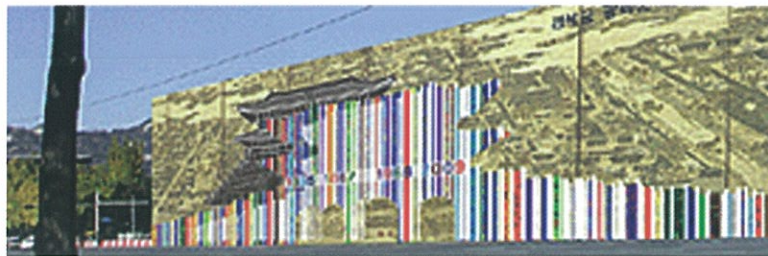
나. 한국 공공디자인 수준

- 일상에서 마주치는 공공시설물은 흉물스럽고, 도시는 품격이 없다
- 아우성치는 간판, 섬뜩한 현수막, 낯 뜨거운 광고물
- 2007년부터 한국에서도 공공디자인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3-1-2 문화재와 공공디자인

가. 문화재청 공공디자인 정책

- 문화재 안내판 개선: 궁중, 능원 간판 개선
- 문화재 공사 가림개막 개선



광화문 공사 외벽

- 등록문화재 리모델링: 구 보성여관 활용 계획

-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사적280호 한국은행, 수원 화성

나. 국내 사례- 화성, 남한산성, 목포 유달산, 함평(나비와 곤충 디자인) 외

다. 일본 사례: 요코하마의 '미나토 미라이 21'

- 흉물로 변한 개항장의 낡은 붉은벽돌 창고를 문화공간과 쇼핑센터로 개조. 1년에 100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됨



일본 요코하마 붉은벽돌창고

쇼핑센터로 변한 붉은벽돌창고 내부

일본 요코하마 개항장 보도블록

3-2 문화유산으로서의 '길', 문화콘텐츠로서의 '탐방로' 개발

3-2-1 근대산업사회의 '길'

- 근대산업사회가 성립된 이후 길은 경제발전을 위한 기간산업시설로만 인식됨



새로 디자인된 문화재안내판

-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좁은 길은 넓혀서 포장하였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

- 도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고 관리해 왔기에 인도에 대한 배려가 없음

- 한국 역사에서 차량이 다니는 길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한말 노일전쟁 때임

- 이제 길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함

3-2-2 문화유산으로서의 '길'

- 지금까지 문화재는 點(개별 문화재), 面(사적)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線(길)도 문화재에 포함시켜야 함

- 옛 길(한양 천리길, 연행로 등)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탐방로로 활용

* 탐방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도보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탐방하는 길

- 한국도 탐방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리산 숲길을 조성하여 관리 중이며, 천리길 탐방로 조성 중('원효의 길' 개발)

3-2-3 국내사례

- 지리산 숲길, 제주도 올레길

- 원효길

- 백제문화 탐방로

3-2-4 외국사례

가. 스페인에는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문화유산으로 보존

나. 영국

- 1965년부터 국립 트레일(National Trails)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립 트레일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길

- 자전거와 승마는 허용되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총 연장 약 4,000km에 달하는 장거리 보행자 중심 도로

- 한 해에 1,1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다. 미국

- 1968년부터 국립 트레일 시스템을 운영

- 국립 트레일 시스템은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도로

라. 일본

- 1970년부터 장거리 자연보도를 조성하여 관리

- 장거리 자연보도는 자연자원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한 보행자 중심도로

- 코스도 하루 코스, 연속 코스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 9개 코스 총 26,038km가 조성되어 있음

- 한 해 6,06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한다.

[본 원고는 충남문화예술의 현재와 미래 포럼 발표자료입니다]

순간 즐기는 문화보다 지역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시기



연구문화원장 임영이

21세기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21세기는 문화전쟁 세기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이든 도시와 도시지역간의 경쟁에서는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가 관광객의 유치로 연결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존되어야 할 우리만의 문화가, 개발되어 보존?보급 되어야 할 여러 장르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상업화 되어야 하는 문제, 삶의 질을 높일 계몽생활 문화 등에 우리의 노력과 고민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극복하려면 나름대로의 복안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만 중앙에 집중화된 것이 아니고 문화 또한 중앙에 치우쳐 있으며 TV, 인터넷 매체로 개성을 잃고 모방을 쉽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 문화재정 빈곤, 인재 빈곤의 여건 속에서 그나마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역문화발전에 필수조건이 됩니다. 이제는 국적 없는 문화에 젖어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문화의 맥을 이어주어 지역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무로 다가옵니다.

과연 지역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한 지역문화 창달과 전통계승을 다지며 지역특성을 살려 정신적 문화계승이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강좌를 많이 개설해 정신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등 새로운 문화원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의 승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어느 지역이던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각기 특성을 살리면서 문화인의 화합과 도모를 바탕으로 모든 주민에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배분하여 돌아가게 하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문화예술의 방향은 역설적으로 문화가 정치?경제등과 대등한 비중으로 제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내실화 욕구가 강해지면서 국민들의 향수의식이 강해질 것이며 그것은 자연히 향유인구의 급증과, 지방화시대 속에서 서로 간 조화와 경쟁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는 경향 또한 강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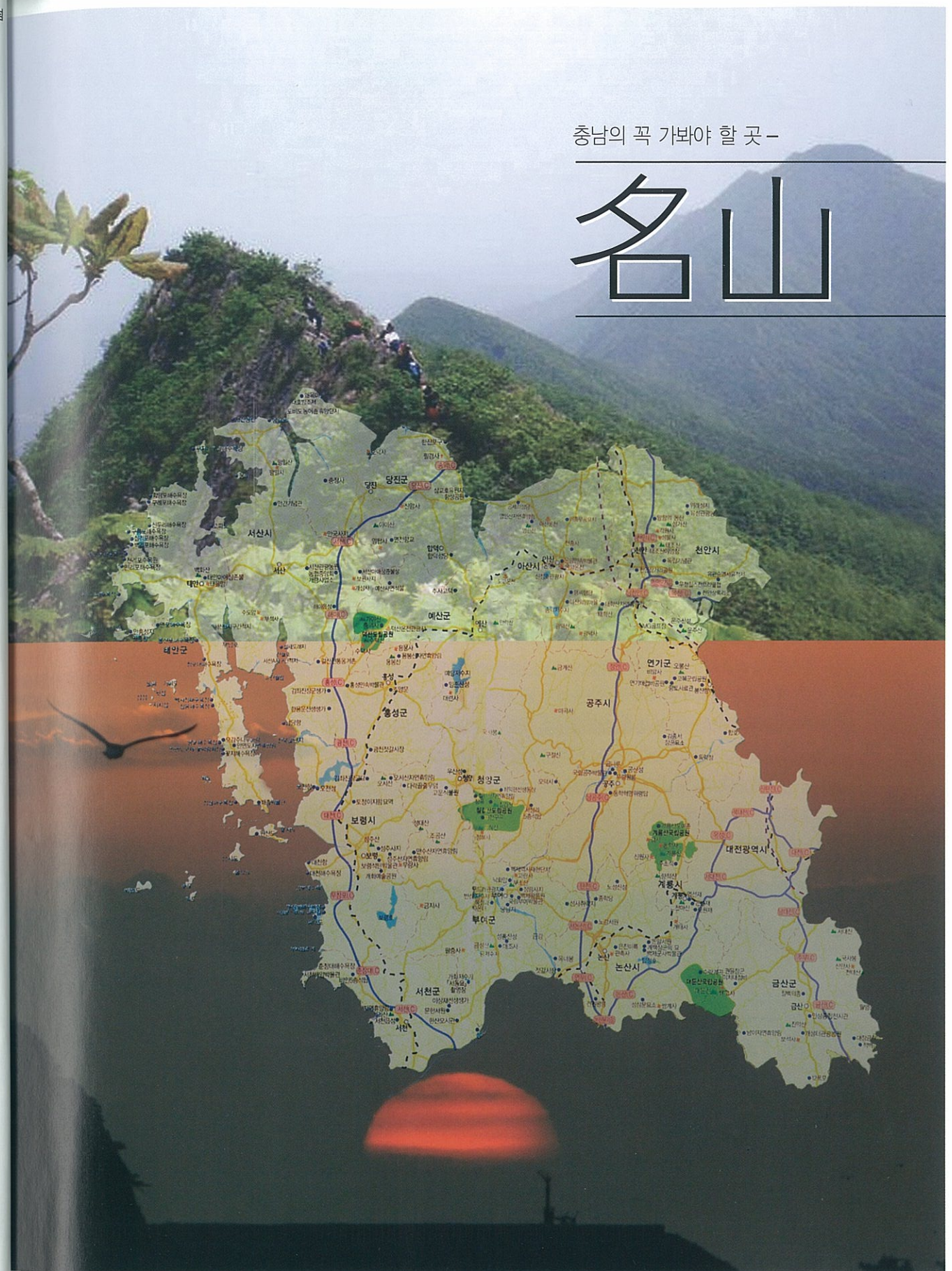
그로 인해 의식의 격차를 완화, 접근 시켜주며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소통시켜 줄 수 있는 전문인의 육성이나 자격인정을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람답게 사는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가 가장 영원한 문화라고 볼 때 우리 문화예술의 정책방향은 사람답게 사는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자기민족 수준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문화예술을 지향하려면 현 상황을 확연히 깨달아 과대포장이 없는 순수한 상태로 출발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지역의 문화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육성하며, 생활문화, 공동체문화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스스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개발하고 그 특수성을 상품화 하는 문화정책의 주도자가 되어 이 시대에 살아 숨 쉬는 우리 정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신뢰 속에 지역문화가 정착이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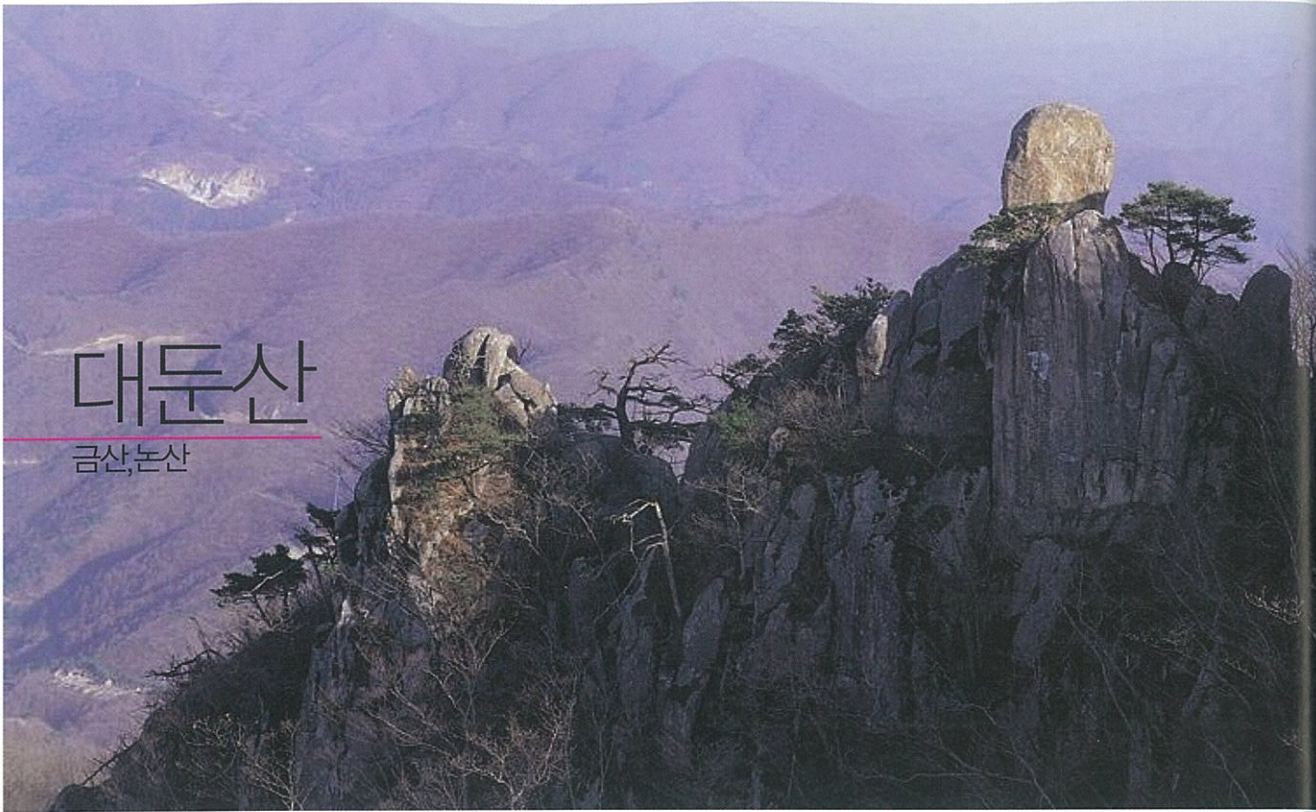
충남의 꼭 가봐야 할 곳 -

名山



대둔산

금산,논산



1980년 5월에 지정된 도립공원이며 오대산(569m), 월성봉(649m), 비랑산(555m), 태고사계곡의 갯바위, 고깔바위, 선녀폭포등이 신선경을 이루고 있고 봉마다 기암절벽이요, 돌마다 괴석인 대둔산은 노령산맥의 북부에 위치한 곳으로 해발878m로서 충남 금산, 논산시, 전북완주군 양도 3개군의 군계에 걸쳐있으며 한국8경의 하나로 산림과 수석의 아름다움과 주봉, 천마봉, 거성봉을 비롯한 기암괴석으로 병풍을 이루는 웅장함은 옛날부터 시인 묵객의 절찬을 받은 소금강이다. 산등 대소명산과 더불어 솟아 오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호남평야와 군산과 장항 너머로 서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봄철에 진달래, 철쭉과 연록의 물결, 가을철 불타는 듯 타오르는 단풍, 여름철의 운무속에 홀연히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영봉과 장폭, 겨울철의 온봉 옥령은 형언할 수 없는 자연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낙조대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낙조의 장관은 대둔산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완주군에서 오르는 구름다리는 80m의 공중가교로서 다리위에는 육각정이라는 약수정이 있고 삼선약수가 있어 산행의 피로를 풀어주며 맑은 날씨에는 서해까지 바라보인다. 주변에 신라원효대사가 창건한 태고사가 있고 이치대첩지, 장군약수터, 행정저수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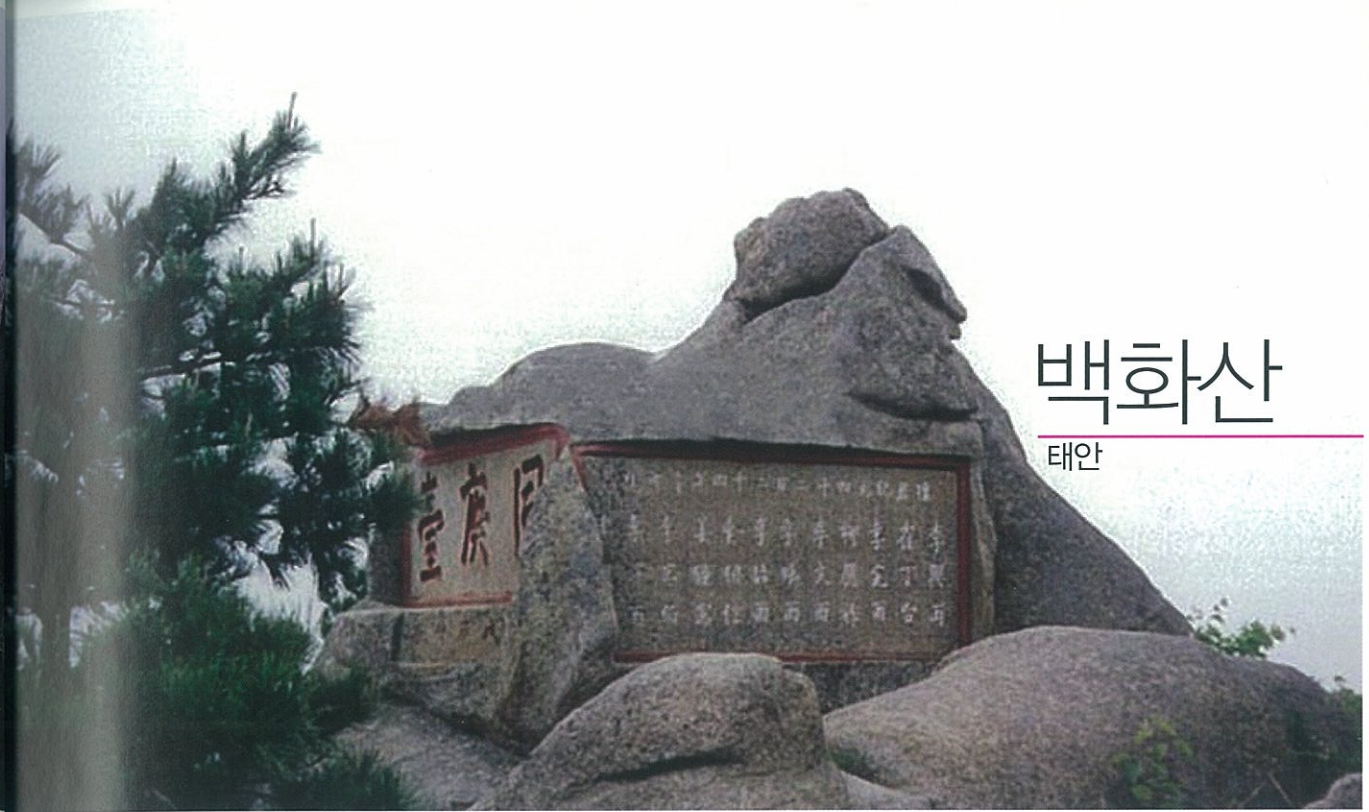


- 논산 → 연산 → 벌곡 → 수락
- 경부고속도로 → 옥천 → 37번 국도(금산 방향) → 군서 → 추부(마전) → 17번 국도(진산, 운주 방향) → 진산 → 배티재 → 기동주차장
- 관광 안내 : 041-732-3568



백화산

태안



백화산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84m이다. 작고 아담한 산이지만, 서해 바다를 끼고 있어 풍경이 아름다우며 기암괴석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특히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최고의 경관이다. 예로부터 신성시되어 온 명산으로 산기슭에는 태을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마에 삼존불상을 볼 수 있다. 좌우의 불상이 중앙의 것보다 큰 것이 특이한 점으로 조각 양식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 마에삼존불의 초기 양식을 엿볼 수 있다. 백화산 정상에 축조된 백화산성은 고려 충열왕(1275-1308)때 축성되었으며, 성의 규모는 길이 700m, 높이 3.5m이다. 성안에는 2개의 우물이 있고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어 동쪽은 서산의 북주산, 남쪽은 부석의 도비산과 연락을 취했다. 지금은 폐성되어 700여m의 성곽만이 남아 있다.



- 서울 → 서해안고속도로 → 서산C → 태안 → 태안읍사무소 → 태안초등학교 → 태을암
- 관광 안내 : 041-670-2433



덕숭산

예산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산으로 차령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산이 덕숭산(德崇山)이다. 해발 495m로 작고 아담하지만 기묘묘한 형상의 괴석들이 많아 절묘한 산세를 뽐내며 1973년 3월 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호서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는데 아담한 산세 곳곳에 유명한 암자들이 배치되어 있어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산의 자랑거리인 산의 남쪽에 자리 잡은 수덕사이다. 1308년(고려 충렬왕 34년)에 창건된 사찰로, 경내의 대웅전(국보 49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손꼽힌다. 이 절 뒤로 난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보면 정혜사와 견성암 등의 암자를 만나는데, 옛날 경허와 만공 등 고승들이 수도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덕을 숭상한다는 산의 의미가 느껴진다.



-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 → 45번 국도 → 40번 국도 → 수덕사
- 관광 안내 : 041-339-7312



성거산

천안(성환, 아우내)

성거산은 높이는 579m로 천안 시가지 동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삼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분주할 때 직산면 산혈원을 지나다 동쪽의 산을 보고 신령이 있다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거산"이라 부르게 하였다는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천안의 특산물인 성환배, 성거·입장 거봉포도의 주산지인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면 백제 첫 도읍지였던 위례산성에 도달한다. 위례산성(충남기념물 148호), 만일사 오층석탑(충남문화재자료 254호), 만일사 마애불(충남문화재자료 255호), 천흥사 오층석탑(보물 354), 천흥사 당간지주(보물 99호) 등의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다.



- 경부고속도로 천안IC → 우회전 → 안성방면 23번 지방도 → 천흥저수지 방면
- 관광 안내 : 041-521-2032



칠갑산

청양



칠갑산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산철쭉과 벚꽃으로 단장하여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천연림이 현대인들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또한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어우러지며, 겨울의 설경은 천상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다가와 칠갑산은 사시사철 등산객들에게 독특한 묘미를 전해주는 명산이다.

칠갑산은 7개의 등산로가 개발되어 각각 특성을 자랑하고 있어 각자에 맞게 등산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꾸준히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중가요 「칠갑산」의 노래와 함께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칠갑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장곡사는 절의 주변 경관이 뛰어나 산행의 끝을 멋있게 장식해 준다.

하산길을 달리 하고 싶은 경우엔 남쪽 삼형제봉을 지나 아흔아홉골을 거쳐 장곡리로 내려가거나

곧바로 지천리로 가는 방법도 있다.

칠갑산 중턱에는 농업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천장호"가 있다.

이곳은 최근에 관광지로 더욱 인기가 높다.



- 서해안고속도로 → 홍성 IC → 국도 29호(청양) → 국도 36호(공주) → 칠갑산
- 경부고속도로 → 천안분기점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 정안 IC → 국도 23호(공주) → 국도 36호(청양) → 칠갑산
- 관광 안내 : 041-40-2441



오서산

대천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과 청라면, 청양군 화성면, 홍성군 광천읍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서해안에서 가장 높고(790m) 산세가 웅장하며 허리를 휘감는 역세능선에서 내려다 보는 푸르른 천수만과 그 너머 큰 바다며 섬,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선경이 따로 없다.

특히 아름다운 명대계곡을 따라 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반길이 참으로 수려하며 어린이를 동반해도 4시간이면 충분히 종주할 수 있는 오서산은 그 넉넉하고 아름다움으로 만인들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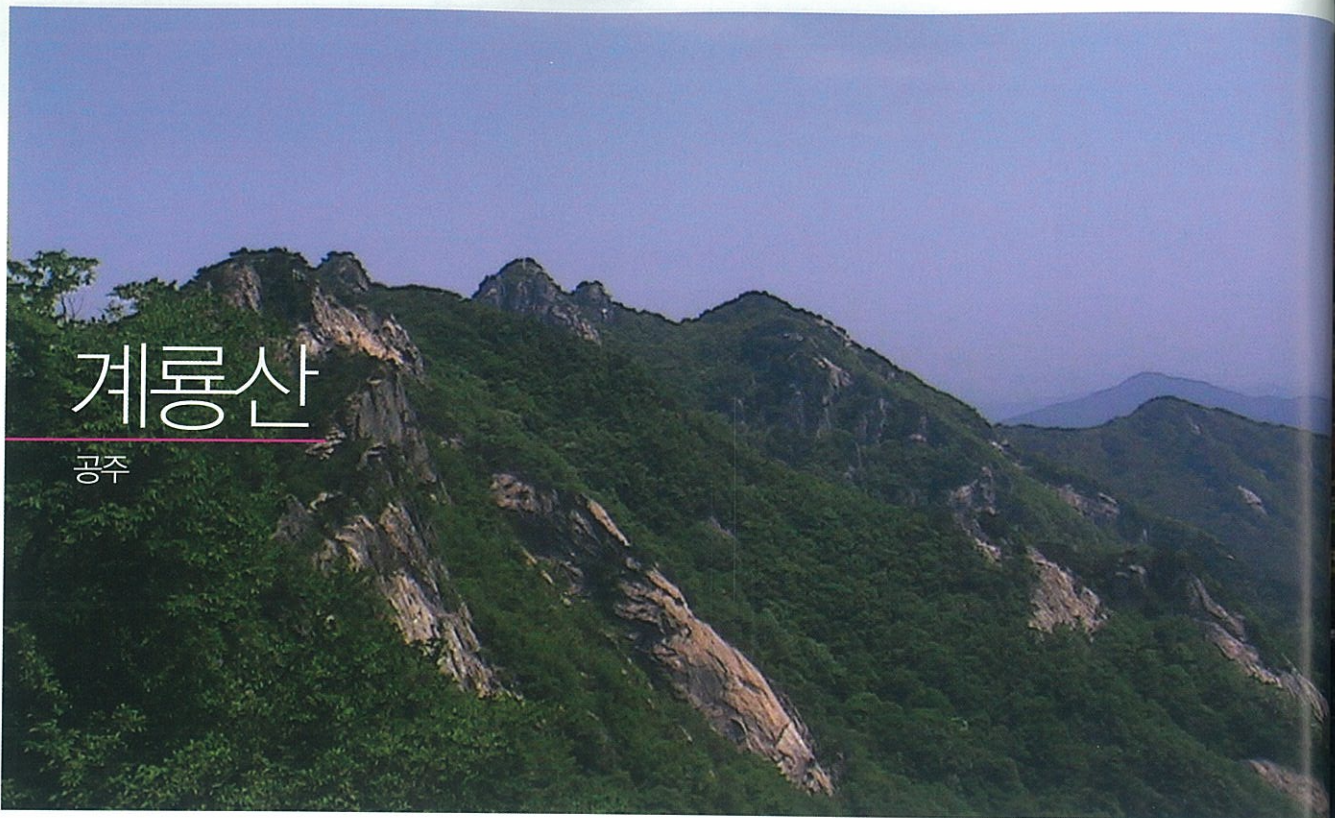


- 부고속도로 : 천안 IC → 아산 → 홍성 → 보령 → 유성 IC → 공주 → 청양 → 보령
- 서해안 고속도로 : 대천IC → 보령
- 관광 안내 : 041-932-2023



계룡산

공주



계룡산은 845.1m의 천황봉을 중심으로 28개의 봉우리와 10개소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자태와 경관이 매우 뛰어나 삼국시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중국에 알려졌으며, 신라 통일 후에는 오악중 서악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중 중악으로 봉해질 정도로 이미 역사에 검증된 명산으로 1968년 지리산에 이어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계룡산(845.1m)은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에 걸쳐 있는 충남 제일의 명산이다. 주부인 천황봉에서 짙개봉, 삼불봉으로 이어진 능선이 닭의 벼슬을 머리에 쓴 용의 모습과 닮았다하여 계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주봉인 천황봉(845.1m)을 비롯하여 삼불봉, 연천봉, 문필봉 등 열 몇개의 봉우리와 서쪽에 용문폭포, 동쪽에 은선폭포, 남쪽에 암용추, 솟을추 폭포가 어우러진다. 또한 계룡산에는 유서 깊은 절과 전설이 담긴 유적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쪽의 동학사, 서북쪽의 갑사, 서남쪽에 신원사, 동남쪽에 용화사가 있고 갑사삼신불괘불탱 등 국보 2점, 갑사철당간 및 지주 등 보물 7점과 신원사 오층석탑 등 지방문화재 9점이 있다. 동학사와 갑사를 잇는 계곡과 능선은 특히 아름다운 산세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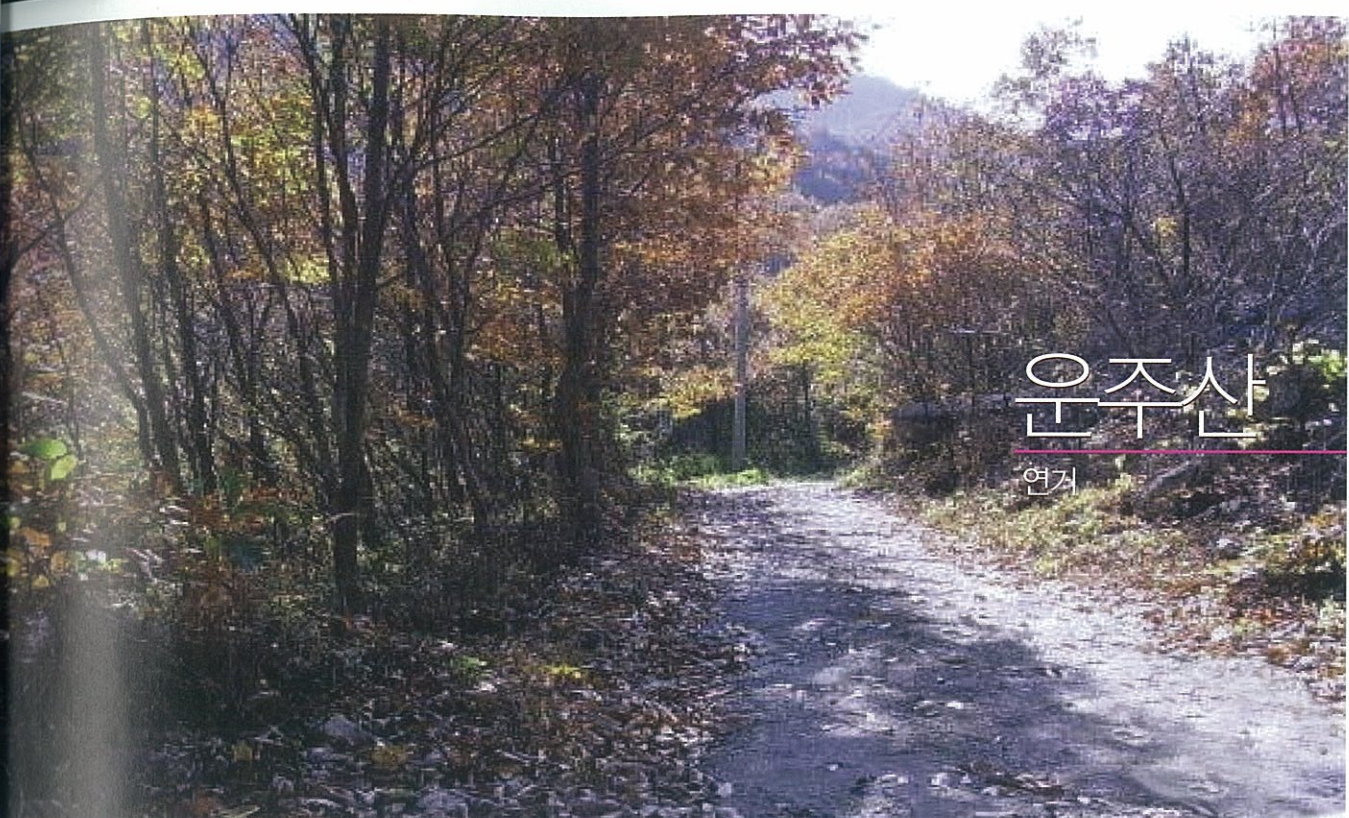


- 양재IC→천안 IC→회덕JC→유성IC→박정자삼거리→동학사
- 유성삼거리→박정자삼거리→동학사
- 관광 안내 : 041-825-3003



운주산

연기



충청남도 연기군의 전동면 미곡리·청송리와 전의면 동교리·신정리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높이는 460m이다. 조치원읍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천안방면으로 가다보면 개미고개를 지나 전의면 경계에 이르러 운주산성 입구 풋말을 만나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면 주차장을 만난다. 등산을 위하여는 주차장에 차를 놓고 등산로(약8km)를 따라 1시간여 올라가면 운주산성 입구에 다다른다. 운주산성은 서기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풍왕과 복신, 도침장군을 선두로 일어났던 백제부흥운동의 최후 구국항쟁지로 평가되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이다. 운주산 정상에 오르면 '백제의 얼 상징탑'이 운주산을 찾는 탐방객을 반기기 때문이다. 운주산에서는 독립기념관, 천안시, 청주시와 맑은 날에는 아산만까지 전망된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동반한 관람객은 운주산 중턱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승용차를 이용하여 올라가면 광장을 만나게 된다. 광장부근에서 정상까지는 도보로 약10여분이 소요된다.



- 조치원읍 → 1번국도 천안 방면 → 개미고개 → 전의면 경계 → 운주산성 입구
- 관광 안내 : 041-361-2292



아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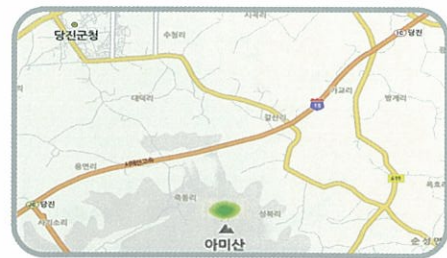
당진



충청남도 당진군 내 최고봉 349.5m를 거느린 산으로 당진읍에서 면천면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다. 미인의 눈썹같이 아름답게 보인다하여 아미산이라 불리며 아미정 정상에 오르면 멀리 서해바다와 합덕, 우강 평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등산로 입구의 약수터를 비롯하여 각종 체육시설, 쉼터, 산림욕장 등이 잘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산행을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산이다. 특히 등산로 입구에 울창한 송림으로 둘러 쌓인 아미원(청소년 수련장)의 운동장에는 주말이면 각종 단체들의 체육활동을 겸한 야유회 장소로 인기가 높다. 아미산 입구인 아미원에서 등산로를 따라 1봉에서 3봉까지 2,427m를 일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2시간이면 족하다. 정상에 바로 오르는 최단 코스는 1시간이면 가능하다.



- 당진IC → 군도 1호선 → 면천면 방면 → 5km 후 아미산 이정표 →아미원
- 관광 안내 : 041-350-3562



천방산

서천



천방산은 서천군 판교면, 문산면, 시초면 등 3개면에 걸치는 넓고 큰 서천 제일의 산이다. 산이 험하거나 거칠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다정함을 느끼게 하는 천방산은 동서남 방향으로 7개의 봉우리가 둘러쳐져있고 동남북방향이 흰히 트여 시원한 풍광을 자랑하는 영산(靈山)이다. 좌청룡 우백호인 듯 천방산 정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서 있는 봉우리들은 남으로 가면서 5개의 봉우리를 더하며 마치 병풍인 듯 둘러쳐진 모습이 있어 이룩한 감이 있는 천방산은 서북에서 동북방향(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펼쳐진 시원한 풍광이 함께하고 있어 좋은 곳이다. 발치에 잡히는 낮은 산과 그 아래 와 너머로 펼쳐지는 논밭과 아득한 마을의 풍경이 저수지와 함께 그림처럼 펼쳐져 있어 정상에 올라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까지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천나들목 → 서천나들목삼거리 좌회전 → 오석교차로 직진 →서천신시장교차로(우측차로 진입 후 좌회전 →서천오거리서천역방면 좌회전 → 문산삼거리 좌회전 → 문산면사무소 입구삼거리 좌측 신농리 진입 → 천방산 이정표
- 관광 안내 : 041-950-4226





광덕산

온양

광덕산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송악면과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해발 699m로 등산로는 마실(마곡리)에서 동쪽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5개 코스의 등산로가 있다. 시에서 임도를 개설하여 산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광덕산 동쪽에는 광덕사가 있고 호두전래사적비가 있어 호두과자의 본고장임을 알 수 있다. 산이 그리 높지 않고 험하지 않아 가족끼리의 등산로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또한 광덕산에는 맑은 계곡과 고목이 아름다운 피서지로 강당골 계곡, 종곡리 계곡, 마곡리 계곡이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는 아산 현충사와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어 둘러볼 만하다.



- 경부고속국도천안IC → 국도21호(20km) → 신도리코앞사거리 → 읍내동사거리 → 국도39호(10km) → 송악외곽도로 → 외암민속마을 → 광덕산
- 관광 안내 : 041-521-5155



용봉산

홍성

홍성읍에서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차령산맥과 연결된 홍성의 북방을 막아주는 화강편마암의 돌산으로 해발 381m로 천년고찰 용봉사과 마애석불 등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다. 기암괴석마다 각양각색(병풍, 거북, 장군 등)의 형상을 하고 있어 제2의 금강산이라 부른다. 용봉산은 바위와 소나무가 많아 그 어울림이 멋스럽다. 솔향을 맡으며 바위를 오르면 산에 오르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먹을 것을 찾는 들짐승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소나무 향의 은은함과 달디단 공기를 마시면 마치 낙원에 있는 듯 하다. 특히 가을이 문을 열때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 홍성군으로 들어가는 국도의 전경은 누런 들판과 색색으로 물든 잎들이 보기 좋게 펼쳐지고, 용봉 초등학교 산의 초입에 은행잎이 노란 잎을 수북히 떨어뜨리며 산행을 반기듯 어여쁜 자태를 뽐낸다.



- 서해안고속도로 홍성나들목 → 국도29 → 홍성읍내 → 지방도609(덕산온천방향) → 상하리 → 용봉산
- 관광 안내 : 041-630-1784



가야산

서산

주봉인 가야봉(677.6m)을 중심으로 원효봉(677m), 옥양봉(621.4m), 일락산(521.4m), 수정봉(453m), 상왕산(307.2m)등의 봉우리가 연결되는 다양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등산로가 개설되어 노약자 및 여성, 어린이도 쉽게 산에 오를수 있다.

또한 정상에서는 서해바다가 아련하게 보이고 봄철에는 철쭉과 진달래 등 각종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등 사시사철 경치가 수려해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백제시대 마애석불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국보 제84호 서산마애삼존불상을 비롯한 보원사지, 개심사, 일락사 등이 가야산 자락의 품에 자리 잡고 있다. 또 한 국보 1점, 보물 6점,

기타문화재 4점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내포문화권의 핵심지역이며 그 자체가 거대한 문화재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다.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찾아 매년 오십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 → 해미 → 황락계곡 → 일락사 → 가야산
- 경부고속도로 천안IC → 아산 → 예산 → 덕산 → 해미 → 황락계곡 → 일락사 → 가야산
- 관광 안내 : 041-339-8392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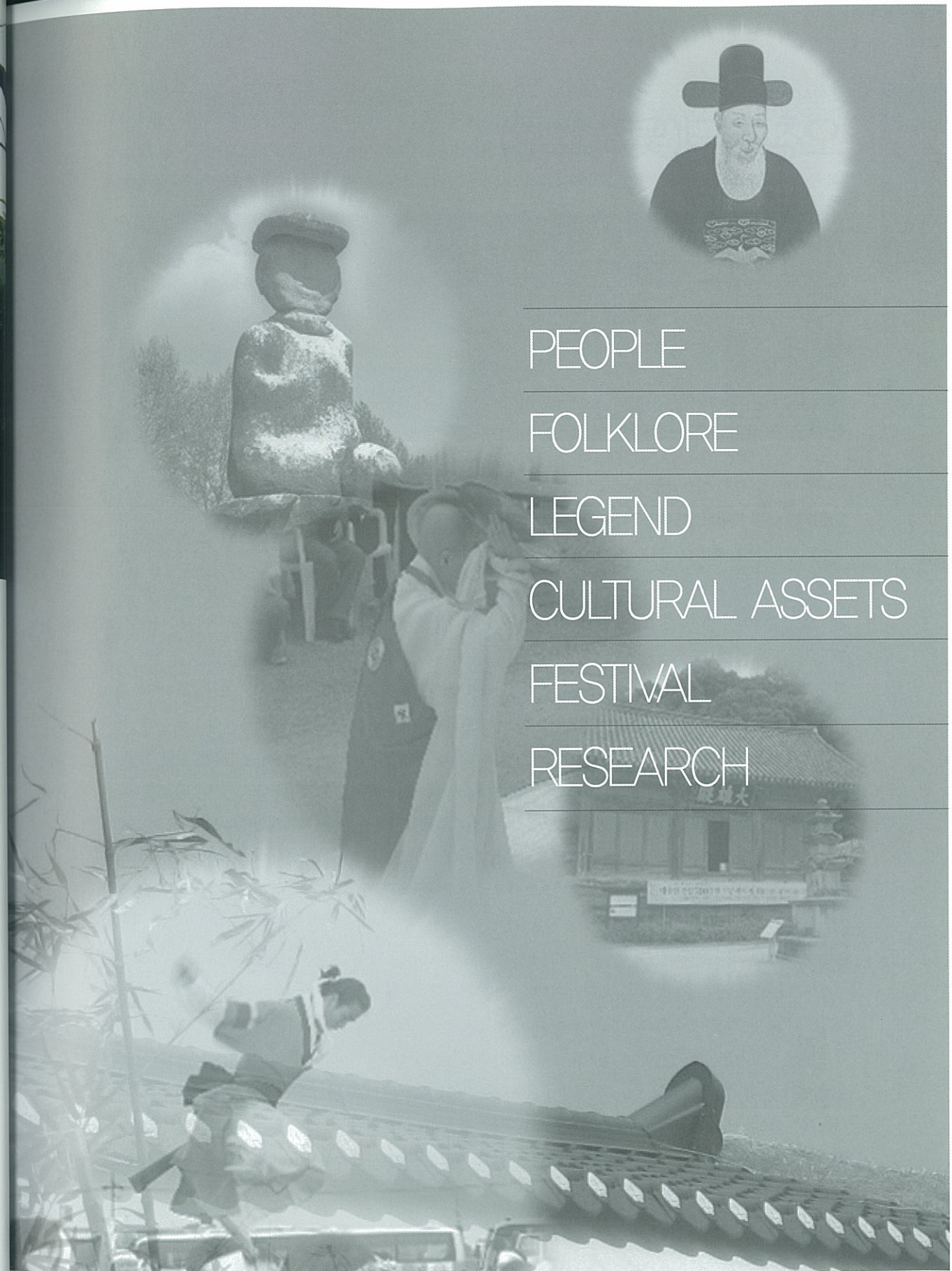
FOLKLORE

LEGEND

CULTURAL ASS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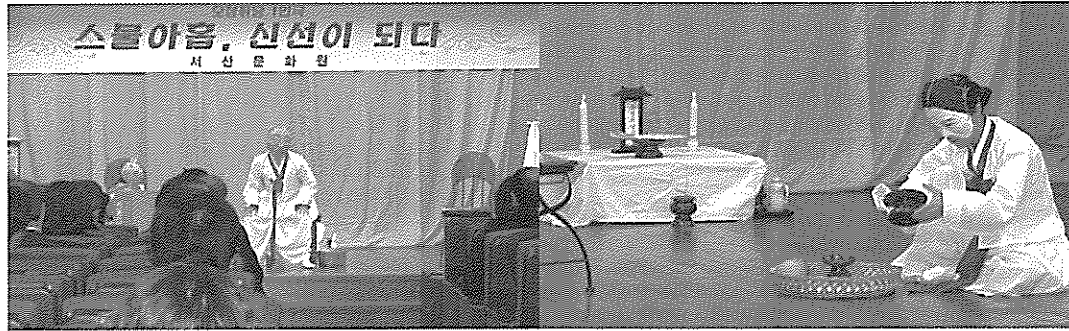
FESTIVAL

RESEARCH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오청취당(吳淸翠當)



오청취당(吳淸翠當) 일대기를 연극화

吳淸翠堂(1704~1732, 별호 慶雪翁)은 해주 오씨 吳基泰의 딸로 남편은 한다리 김씨 金漢良(1700~1752)이다. 문집으로 『淸翠堂集』이 있으나 역대 시화서나 문학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여성 시인이다.

청취당이라는 호는 해주 오씨의 관향이 수양이고, 수양 땅은 고죽군의 아들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캐 먹다 죽은 곳이므로 성자의 맑은 성품과 대나무의 푸른빛을 취해서 청취당이라고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리고 경설국이라는 별호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 자신을 이 세상에 무심하게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지와 잎이 무성한 '동국의 계수나무'로 자부하였다.

여성문학사에서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는 많은 여성시인들이 배출되던 시기이다. 호서지역에서도 청취당을 위시해 김호연재, 신부용당, 임윤지당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세계를 구축하고 문집을 편찬한 사례이다. 그러나 우리 고전 문학사에서 여성은 하나의 주변부로 자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난수록 그것을 감춰야 미덕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 일부 열린 시각을 가졌던 가문들에게서는 딸들에게 독서와 교육을 권장하고 가르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도 하였으나, 그녀들이 결혼 후 며느리나 부인의 모습으로 역할이 바뀌어졌을 때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자신의 지식수준을 입 밖에 올리지 않는 것이 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문학 작품들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집안 중심으로 전해질 뿐, 세상 밖으로 유통되기는 어려웠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문이나 후손들의 다락방 속에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여성 작품이 존재 할 것이라 여겨진다. 청취당의 『청취당집』도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청취당은 다른 명문가 여성들의 문학 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친정 부모나 형제들의 사회적 위치나 경제 여건, 남편이나 시댁이 처한 상황이 쇠락해가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청취당은 경기도 안성땅에서 태어나 아홉 살에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났다. 할머니마저도 일찍 세상을 떠나 외롭고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야했다. 당시로선 늦은 나이인 22세의 나이로 서산 한다리 김씨 가문에 출가하였으나 남편 김한량은 특별한 벼슬살이 없이 논밭에 묻혀 사는 선비신세였고 학문과 기개가 뛰어났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합격을 해도 등용되지 못하는 불운의 가문이었다. 또한 그녀는 결혼생활 도중 어린 두 아들을 잃는 비통함을 견뎌야했고 고된 시집살이와 여자로서 문호를 빛내지 못한 한속에서 자신은 병고에 시달리다가 스물아홉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생애를

마감했다. 따라서 청취당의 학문적 경지는 오로지 그녀의 타고난 재주와 독학, 기상으로 일구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스물아홉이라는 짧은 생애를 통해 가난과 병마,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감내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다양한 영역의 시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겨우 7년 동안의 작품이 182수의 시로서 자신의 문학적 역량과 철학적 소양 등을 남기고 떠난 것이다. 청취당의 주옥같은 한시를 모은 『청취당집』은 청취당의 외손 박종규가 1803년 12월 하순에 편찬하였으나 후손에 의해 조용히 전해지다 지난해 문희순 교수의 역주로 세상에 나와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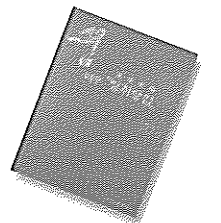
오청취당은 자신에게 맞닥뜨려진 삶의 고난과 역경을 한시 창작으로 승화시켰다. 그녀에게 있어서 시를 구상하고 엮어 내는 일련의 창작과정은 자기 수련이요, 극복이며 환희의 순간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짧은 생애를 회고하고, 갓 태어난 어린 이들이 잠룡이 비를 만나 하늘로 오르듯이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염원하는 시를 써 모성의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었다. 슬프되 슬프지 않은 에이불비(哀而不悲)의 문학 경지를 구축하였다. 청취당의 문학 작품은 '삶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취당의 묘소는 현재 서산시 팔봉산 자락 아늑한 뒷편에 자리하고 있다.

백마강을 지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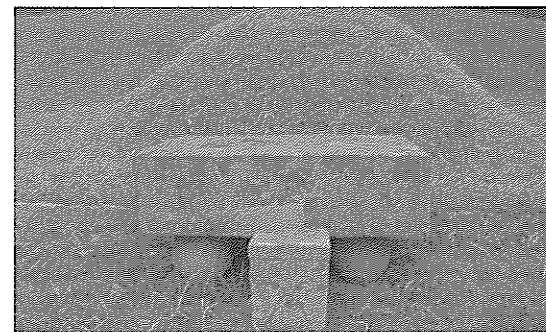
남으로 내려와 잠시 마음 상한 곳 지나려하니
초아에 묻힌 금릉땅, 옥수기엔 가을이 깊었네.
노기어린 물결 오히려 최고의 한 뿔어내고
짜푸린 산 빛 오늘에 이르도록 근심을 띄웠어라.
처량한 왕조의 기운 창오의 달빛
지나는 행인 백마강 언저리 가리키네
술 불러 흥망사 알고지하니
풍연십리 백사장에 갈매기 나는 것을.
-백마강을 지나면서 백제왕조의 흥망성쇠를 회고하면서-

꿈속에서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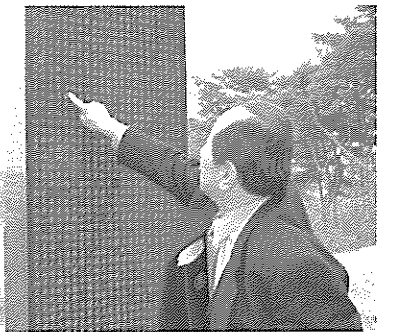
흔이 계린당으로 들어가니
배회하며 옛 생각 슬픔에 빠지네.
잠깐사이 쇠붙이 달구던 불 식었으나
아직도 화로엔 남은 향기 있구나.
이십 팔년 이승의 귀양살이 어렴풋한 한비탕 꿈이로세
장차 속세 인연 다한 후에
다시 천상세계 오르리라.



-자신의 짧은 생애를 예견이라도 한 듯 28년의 짧은 삶을 마감하고 천상세계로 귀천하고자 하는 내면을 담은 시-



오청취당(吳淸翠當)묘소



오청취당(吳淸翠當)묘소에 있는 신도비

자료제공 서산문화원

PEOPLE

예학의 태두(泰斗) 사계 김장생 선생



오래된 절에 일찍이 다녀간 지가 어언 십 여 년
친방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생각이 가이없네,
이 산에 봄빛이 옛날 같이 어우러져 있어
구성을 돌아보니 두 눈에 눈물만 흐르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인 조선 선조 35년(서기 1602)에는 연산 임리구 숲말 냇가에는 지금처럼 냇둑이나 철도가 없었고, 의성산 밑으로 소나무와 대숲과 버드나무가 우거진 천변으로 천호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연산천과 백석 쪽에서 흘러나오는 사계(沙溪)천이 만나면서 흰 백사장이 펼쳐진 풍광이 수려한 곳이었다. 왼편을 바라보면 계룡산의 봉우리가 보이고 오른편을 바라보면 대둔산의 줄기가 보이는 곳으로 일찍이 최청강(崔淸江)의 아한정(阿汗亭)이 있었던 곳이다. 임진난 때 허물어진 빈터에 사계 김 선생이 양성당(養性堂)을 짓고 인근의 수재들을 모아 가르쳤다. 이 때 사계선생은 55세였다.

사계선생이 선영이 있는 연산에 처음 내려온 때는 10세 때로, 서울에서 태어나 지라다가 아버지인 황강 김계휘 선생이 벼슬을 한 동안 떠나 연산으로 내려와 고운사에 정회당을 설립한 세종 36년(1557년)이었다.

이 집안이 연산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사계선생의 7대조 조모인 허 씨 부인이 남편 김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시택이 있는 연산으로 어린 아들을 업고 내려와 살기 시작하면서 이다. 지손들이 현달하면서 지손들이 번창하고 벼슬길에 오르면서 서울에 살기를 누대를 이어와 사계선생도 서울에 계속 살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연산에 내려오곤 하였다.

선생이 열 살 때 연산에 내려와 몇 년 동안 살았다. 이듬해인 11살 때 어머니인 신 씨가 돌아가 거정리(고정리)에 장사하고 삼년상을 마쳤다. 13세에 상복을 벗고,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선생을 찾아가 근사록을 수학하였다. 14세에 할아버지(諱鑄)가 지례현감으로 내려 갈 때 따라 갔다가 그 곳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연산 선산에 모시고 황강공이 거우(居憂)할 때 같이 모시고 지냈다. 삼년상을 마친 17세 때 아버지를 따라 다시 서울 본집으로 올라갔다.

20세에 아버지와 교우하던 율곡 이이(李瑄) 선생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수학하였다. 30세 때 석담으로 여러 번 율곡선생을 찾아가 학문을 문답하였다.

사계선생은 어려서부터 행동거지가 점잖고 진중하여 말과 웃음을 함부로 하지 않고 희롱을 하지 않았다고 그의 연보에 기록되어 있다. 구봉선생에게 근사록을 배울 때도 선생이 한번 읽고 지나면 전혀 해설해 주지 않자, 물러나 정좌하고 본 것을 다시 보며 여러 번 읽고 생각하여 밤낮으로 계속하여 깨달은바가 있었다고 훗날 말하기도 하였다. 율곡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성학(聖學)의 깊은 뜻을 두고 상세히 듣고 마음을 가다듬어 힘써 행하였고, 율곡선생이 헤쳐서 돌아가자 곧 따라가 전에 배운 것을 강구하고 새로 얻은 것을 연마하였다. 더욱 예학에 정통하여 절목이 다 갖추어졌고 크고 작은 일을 모두 거론하여 알아보자, 율곡선생이 항상 믿음직하게 여기고 특별히 대우하였다. 구봉선생에게도 여러 번 글을 올려 인심(人心), 도심(道心)을 논의 하였다. 또 소상(小祥) 후 연복(期服)하는 일을 논하니 구봉선생이 말하기를 '전후 두 차례의 서신이 정례(禮)가 극진하니, 예학에 진보가 있음을 깊이 탄복한다.' 고 하였다.

34세 때 황강공을 따라 연경에 갔다가 이듬해에 돌아왔다. 그 해 아버지가 돌아가자 연산 선산에 장사하고 기례에 따라 여묘(墓祭) 아래에서 지냈다.

36세인 1583년에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완성하였다. 그 동안 예학을 익히고 연구한 것을 신의경(申義慶)의 기례 상례편을 기초로 하여 조목에 따라 고금의 예와 제가의 말을 참고하여 시속의 제도에 맞추어 실용하기 편리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기례(吉祭)와 개장(改葬) 두 조항은 기례에 빠진 것을 기례(吉禮)와 구씨의절(丘氏儀節)에서 첩보하였다.

52세인 1599년에 「기례집람(家禮輯覽)」을 완성하였다. 기례는 일부가 망실된 초고에서 만들어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선생은 이러한 부분을 여러 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조항에 따라 해석하고 그 장구를 분별하여 누락부분을 보충하고 수정하여 기례집람을 만들었다.

사계선생은 젊어서 가야산 해인사에 올라 옛날을 회상하며 지은 서정시가 있다. 이 시는 몇 편 안되는 시의 하나로 산사에 서 시상을 일으켜 간결하면서도 진솔하게형상화한 시이다.

古寺曾遊已十秋 寒齋獨坐思悠悠
故山春色渾如舊 回首龜城雙涕流

오래된 절에 일찍이 다녀간 지가 어언 십 여 년
친방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생각이 가이없네,
이 산에 봄빛이 옛날 같이 어우러져 있어
구성을 돌아보니 두 눈에 눈물만 흐르네



사계 김장생 선생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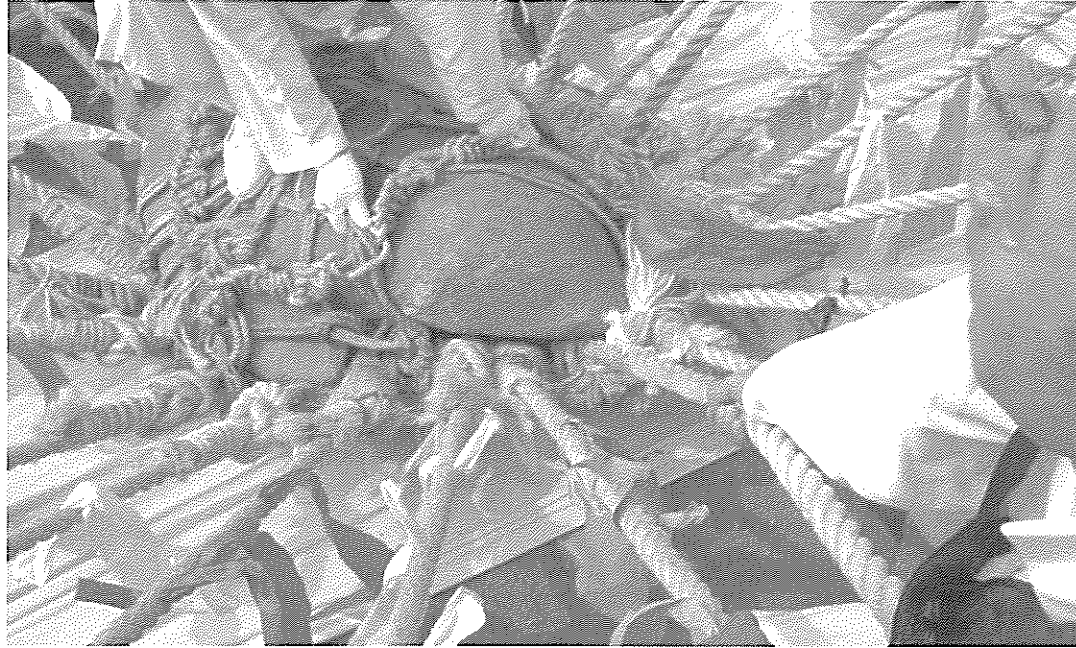
선생의 벼슬길은 창릉 참봉을 시작으로 하여 돈영부 참봉, 평시서 봉사, 활인서 별제, 동몽교관, 정산현감, 호조정랑, 군자감 첨정, 안성군수, 종친부 전부 등을 역임하였다. 선생은 벼슬길에 나갔지만 학문에 더 뜻을 두어 자주 물러나다가 1602년 연산으로 내려오면서 주로 활동을 이곳에서 하며 숲말 계상(溪上)에 세운 양성당에서 기호학파의 거유들을 배출하였다.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테, 계곡 장유, 기암 정홍명 등이 숲말 돈암(題巖) 바위 앞 계상에서 수학하였다. 다시 벼슬길에 나가 익산군수, 익위사 익위, 칠원부사를 지내고 66세에 다시 계상으로 돌아왔다. 뒤에 사헌부 장령, 성균관 사업, 통정대부 공조참의, 경연 특진관, 79세인 1626년에 병으로 사직하고 연산으로 내려와 강경 황산에 황산서원을 세웠다. 80세인 정묘년에 호란이 일어나 양호 호소사로 나가 큰 공을 세웠다. 81세에 형조참판을 배수하였으나 곧 사직하였다. 선생은 1631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정리 쇠머리 선영에 묘소와 신도비가 있고 재실 염수재(念修齋)와 사당이 있다. 1634년에 동춘당, 우암 등이 계상에 돈암서원(題巖書院)을 세워 선생을 모셨다.

1657년에 영의정으로 증직되고 문원(文元)공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들은 문경공 신득재 김집과 함께 부자가 1688년에 문묘에 배향되고 불천위제로 매년 음력 8월 3일에 향사를 모시고 있다.

논산문화원 향토사연구원 조종현

공주지역의 집터다지기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출연



가죽들로 만든 다짐들의 모습

1970년대 중반까지는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었고 기계 장비가 없던 시대에는 다짐돌, 평이돌로 불리는 큰 돌덩어리를 동아줄로 묶어 높이 들었다 놓는 동작을 반복하여 터를 다져야 했습니다. 흙을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집의 무게로 주춧돌 마다 내려앉는 정도가 달라 집이 기울어지든가 심한 경우 쓰러질 수도 있는 일이라서 집터를 다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평이돌은 200Kg 이상 400Kg에 이르는 큰 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작업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일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선창자가 메김 소리를 부르면 줄꾼들이 합창으로 하는 후렴을 노래하면서 동아줄을 당기는데 노래에는 단조로우면서도 흥겨운 일노래의 독특함이 잘 배어 있습니다.

미풍양속의 습결이 배인 민속

어렵던 시기에 집을 짓는 일은 큰일 중의 큰일입니다.

물자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더구나 서민이 집을 짓는 일은 돈으로 자재(資材)를 사다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물자 즉, 기와, 기둥으로 사용하는 목재 외 대부분의 물품은 자급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석기래로 쓸 나무와 벽과 지붕에 흙을 바르기 전에 엮는 섯다리(가늘고 긴 나뭇가지 따위)를 베어 나르고 지붕과 벽에 바를 황토를 파서 옮겨 놓아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짓는 일은 돈보다 노동력을 더 필요로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은 상부상조의 미덕을 발휘합니다. 197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면 공주의 모든 마을이 집짓는 집에 무료 봉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3일 길게는 5일의 무료 자원봉사를 관습에 의하여 의무화하였던 것이지요.

〈군〉〈무품앗이〉〈무품질〉〈집짓기 부역〉등으로 불린 무료 봉사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나쁜 관계의 이웃일 지라도 반드시 도와주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가 확보된 후 집을 짓는 절차는 개인적인 여건이나 마을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약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터 만들기 2) 집터다지기 3)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기 4) 상량(上樑)으로 기둥위에 중심이 되는 대들보를 올린 작업 5) 석가래 절기 6) 지붕 외매기 엮기 7) 새받기 8) 지붕이 이어 입히기 9) 벽채 외매기 엮기 10) 벽채 흙받이 11) 벽을 곱게 바르는 미장 12) 각 방에 구들장 놓기 등이며 13) 도배가 마무리입니다.

이상의 일 중 마을의 모든 장정이 공동으로 무료 출력하는 날은 1) 집터다지기 2) 지붕 외매기 엮기 3) 지붕의 새받기이며 마을에 따라서는 4) 지붕 해 이는 날과 5)벽채 외매기 엮는 날 정도였습니다.

놀이화 된 집터 다지기

집터다지기는 크게 터 고르기 가래질과 다지기로 나뉘고 터다지기는 다시 〈벌다지기〉와 〈주춧돌 다지기〉로 나뉩니다. 초저녁에는 모든 집터를 다지는데 마을의 규모가 커서 장정이 많은 마을에서는 다짐돌 2개를 만들어 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면서 다지는데 이를 〈벌다지기〉라하고 벌다지기가 끝나면 주춧돌 놓을 곳을 목수가 표시하면 흙을 퍼다 놓고 집중적으로 다지는 것을 〈주춧돌 다지기〉라 합니다.

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터 고르기 가래질

가래는 3인이 행하는 3목가래와 5인이 행하는 5목가래가 있는데 집터를 고를 때는 5목가래를 쓰며 〈어허 능청 가래로세〉하는 후렴을 사용하는 가래질 소리를 합니다. 선창자가 소리를 띄고 줄꾼들이 후렴을 노래하며 줄을 잡아당기는데 선창자의 노랫소리는 당연히 이 집을 짓고 나서 집 주인이 복되게 해달라는 주문을 섞어하며 노동이기 보다는 유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터다지기 고사

가래질이 끝나면 집 주인이 고사를 지냅니다. 공주의 터다지기 고사는 가정에 따라 마을에 따라 다르지만 풍장으로 짧은 고사 축원을 하면서 동서남북 중앙에서 올리는 〈사방고사〉, 유교식으로 떡,과일을 놓고 잔을 올리고 절을 하며 축문을 읽는 〈지신제(일명:축문고사)〉, 무당을 불러 빌고 소지를 올리는 〈고사〉가 있으며 긴 고사 축원 소리를 하면서 풍장을 치는 〈풍장고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이나 가정에 따라서는 동서남북 네 방위에 청적황백녹의 오색 천을 문기도 하였습니다.

-벌다지기(아사다지기)

벌다지기는 고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터를 다지는 첫 번째 다지기입니다. 벌이라는 말은 넓은, 번지다라는 의미의 공주

말인데, 여기서 벌은 넓은 터 다지기라는 의미로 집을 자을 터와 뜰이 될 곳까지 다지는 것을 뜻합니다.

벌다지기에 사용하는 다짐돌은 밑바닥이 넓은 돌을 사용하는데 줄의 수는 절후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24줄을 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분, 하지, 추분, 동지에 해당하는 네 줄은 아주 짧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 5개의 줄 중 네 줄은 2m 정도 한 줄은 3m 정도의 차이를 두어 장정들이 줄을 잡고 서면 3개의 원을 이루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 - 새천년 새도읍터다지기 (리허설 장면)

벌다지기를 할 때 느린 소리는 2개의 다짐돌을 동시에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지만 잦은 소리 즉 빨리 다질 때는 <얼다지기>라 하여 후렴을 교대로 노래하면서 경쟁하듯이 다지는 역동성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주추다지기

주추 다지기는 말 그대로 주춧돌을 놓을 자리만 집중적으로 다지는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벌다지기 돌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바꾸어 쓰기도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돌은 바닥이 좁고 높이가 높은 돌을 사용하여 주춧돌을 놓을 자리가 단단히 다져지게 합니다.

2개의 다짐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고 하나의 다짐돌에 모든 장정들이 작업에 참여하여 다짐돌을 높이 띄웠다 놓아 집중적으로 다지며 잦은 소리를 적게 하고 느린 소리를 주로하여 다집니다.

옥동자

공주의 집터다지기에서 다른 고장과 달리 독특한 것이 <옥동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집터를 다지는 다짐돌 위에 사람을 태워 일하는 사람들이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것이지요. 큰 돌을 밤새도록 들었다 놓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사람까지 돌에 태우는 것은 힘든 노동을 즐거운 놀이로 전환하는 우리 민속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의 체험형 터다지기 공연에서 재현된 옥동자의 모습 대부분은 청소년들을 돌 위에 태우는데 <꿩이돌 위에서 세 번만 놀면 오래 산다.> <부자로 산다.>는 말로 청소년들을 꼬이며 이때 짧은 줄을 잡는 줄꾼은 돌 위에 탄 아이를 보호하는 역할이 추가됩니다.



비위 수업

다짐돌 네 귀퉁이에 매다는 갈침의 묶음이나 흰 실 묶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짐돌에 난 수업이라는 의미인데 이 집에

터를 닦아 집을 지으면 돌에 수업이 날만큼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염원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집터 다지는 노래들

1. 가래질 소리-후렴은 <어허 냉청 가래로세> 이며 줄을 당기는 것은 가래로세 의 가래에서 당깁니다. 느리게 하는 긴소리와 빠르게 하는 잦은 소리가 있습니다. 선소리꾼의 노랫말은 이 집터를 닦아 집을 지으면 집터가 좋아서 집안이 번성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2. 축원소리-긴 축원과 짧은 축원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에서 올리는 사방고사에는 짧은 축원소리를 하고 지신제를 올리고 나서 또는 벌다지기에서 주추다지기로 넘어가는 마당에 일꾼들이 잠시 쉬면서 하는 축원은 긴 긴 축원을 합니다. 짧은 축원은 <동방청제 대장군> <서방백제 대장군>을 찾으며 호령을 하듯이 고사문을 외고는 아주 빠른 풍장을 강하게 치고 땡습니다.

긴 축원은 세마치(3체) 풍장에 맞추어 몇 소절의 노래를 부르고 풍장을 치는 것을 반복하는데 요즈음 말로 비나리라 부르는 음악이지만 공주의 고사 축원은 가락과 노랫말이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어서 흥미롭고 흥겨운 소리입니다.

3. 집터다지는 소리- 긴 소리와 짧은 소리가 있습니다.

후렴은 마을에 따라 달라서 공주에서만 20개의 노랫말이 채록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불리는 후렴은 <어허이야 팡팡 다져라>로 우성면 어천리에서는 느린 소리나 빠른 소리 모두 사용하고, <어허이야 지달묘>는 의당면 울정리에서 <어허이야 지점이요>는 유구 일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노랫말은 천지간의 가장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명기 부르는 소리>, 집주인의 기분이 좋으라고 부르는 <집터를 칭송하는 소리> 일노래의 본분으로 일꾼들을 지휘하고 격려하는 <일꾼다루는 소리> 일판을 흥겹게 하기위해서 즉흥적으로 부르는 <잡소리>의 네 종류가 있으며 긴 소리 짧은 소리의 노랫말은 다르지 않고 속도를 빨리합니다.

공주의 집터다지는 소리는 1990년대 초반 여러 마을 것을 채록해두었다가 1999년 2000년을 맞느라 세상이 떠들썩할 때 <새 천년의 문 기공식>장에서 축하 행사로 공연한 것이 시작이며 2007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공식장에서 2008년에는 아시아문화교류협력센터 기공식에서 2009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공연 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공주문화원

금산읍 양지리 장동마을 디딜방아뱅이

예전에는 흉역, 염병, 손님마마 등 동림병이 창궐하며 온 마을을 휩쓸고 갈만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디딜방아 재현장면

디딜방아뱅이란 이웃 마을의 디딜방아를 몰래 훔쳐와 마을 어귀나 삼거리에 거꾸로 세워놓고 무병제액을 기원했던 여성들에 의한 액막이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뱅이 의식은 흉역, 손님마마(천연두), 장질부사(장티푸스) 등과 같은 무서운 괴질이 창궐하거나 극심한 한발이 닥쳤을 때 흔히 행해졌다. 인명을 다루는 회급함에 마을의 아낙네들이 모두 나서 디딜방아를 훔쳐와 뱅이를 했던 것이다.

디딜방아뱅이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미속으로 간주되지만, 이미 50여 년 전에 완전히 소멸되어 지금은 일부 노인들의 기억속에만 남아 있다.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더 이상 뱅이의 필요성이 사라진 탓이다. 이와 아울러 동력을 이용한 정미소가 보편화되면서 디딜방아가 급속히 지취를 감춤 것도 민간에서 뱅이의 풍속이 소멸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장동마을에서 디딜방아뱅이가 마지막으로 행해졌던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확인된다. 당시 뱅이를 하는데 직접 참여했거나 그 전에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이 들려준 디딜방아뱅이는 다음과 같다.

예전에는 흉역, 염병, 손님마마 등 동림병이 창궐하며 온 마을을 휩쓸고 갈만큼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마을에 괴질이 돌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마을에서는 원새끼로 급죽을 꼬아 동구 밖은 물론 동네 전체를 한 바퀴 빙 두른다. 그리고 돌림병이 들어오지 말라고 매일 거리제를 지내며 정성을 드린다. 그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녀자들은 뱅이를 해야한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어른이 확산되면 마침내 회의를 열어 뱅이를 하기로 결정한다. 회의는 대가집의 사랑방이나 공회당에서 이루어진다. 저녁에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언제 뱅이를 할 것인지와 어느 마을의 방아를 훔칠 것인지 등을 논의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뱅이하는 날의 일진을 보아 길방을 따지는 일이다. 즉 방아는 아무 마을에서나 떼지 않고 삼살방을 가려 액운이 닿지 않는 마을의 디딜방아를 땀다.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까닭에 방아를 훔칠 곳의 방향까지도 엄격히 따지는 것이다.

방아를 훔치러 갈 때는 마을의 부녀자들은 모두 나서는데, 임시로 상주 한 명을 뽑아 사전에 염탐해 놓은 마을로 간다. 아낙네들은 불을 밝힐 초와 부식들 그리고 방아를 메는 데 쓸 형짚과 끈을 지참한다.

방아는 가급적 한적한 외딴집이나 마을의 공동방아를 선택한다. 그래야만 방아를 훔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약속된 마을에 도착하면 미리 보아둔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방아를 땀 아낙네들은 행여나 발각되지 않도록 숨을 죽인 채 일사불란하게 마을을 빠져 나온다. 그러나 일단 동구를 벗어나면 한바탕 빗장을 지르고 왈차지껄 떠들어댄다.

방아를 메고 올 때는 선소리꾼이 앞장서서 구성지게 상여소리를 메기고 디딜방아를 땀 아낙네들은 그 소리를 받아 성기며 뒤를 따른다. 그리고 상주로 뽑힌 아낙은 곡소리를 하며 방아를 따라간다. 아낙네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마치 상여가 나가듯이 방아를 메고 돌아온다.

마을 어귀에 당도하면 시냇가 삼거리에 디딜방아를 세우는데 방아다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방아의 가랑이 사이에 여자의 속곳을 걸친다. 이때 피 묻은 여자의 속곳을 최고로 쳐서 달거리한 여자의 속곳을 걸치는 것이 상례이다. 만일 정도 묻은 속곳이 없으면 방아의 가랑이에 피를 바르거나 팔죽을 뿌린다. 붉은색에는 잡귀나 돌림병을 물리치는 벽사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아의 몸체에는 원새끼로 급죽을 치고 사방에 팔죽을 뿌려둔다.

방아를 세우고 나면 그 앞에 오곡밥, 나물, 주과포, 술을 준비하여 거리제를 지낸다. 제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여인이 제관이 되어 절을 올린 뒤 일동이 함께 재배한다. 아울러 입담 좋은 아낙네가 돌림병을 물리쳐달라며 간곡한 마음으로 소지를 올린다. 거리제를 마치면 디딜방아 주변에 음식을 뿌려 온갖 잡귀를 풀어먹인다. 이렇게 해물림을 한 다음에는 모든 잡귀가 물러간 것으로 믿고 뱅이에 참여한 부녀자들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을 추면서 논다.

한편 뱅이를 한 방아는 일단 괴질이 물러간 뒤에도 잃어버린 마을에서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귀신이 붙은 방아를 가져다가 자칫 해를 입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뱅이를 한 디딜방아는 썩어 없어질 때까지 방치하거나 장마시에 떠내려가도록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장동마을에서는 양짓말과 음짓말이 별도로 뱅이를 했으며, 가장 늦게 뱅이를 한 것은 50여 년 전 음지 장동이었다. 그 당시 뱅이에 참석했던 부녀자들 중에는 몇몇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 계진리 족실에 있는 디딜방아를 훔쳐왔다고 한다.



디딜방아 재현장면
자료제공 금산문화원

이토정(李士亭) 관련 전설

“이곳은 아주 좋은 명당이니 앞으로 묘 쓸 자리가 없으면 시신을 세워서 총총히 써라.” 했다고 한다. 그 자리가 현재 주교면 고정리 토정선생 묘소가 있는 곳이다.

1 토정선생이 한양조씨 뗏자리 잡아준 이야기

이토정 선생이 성주 8모란(여덟 군데의 모란형 명당자리) 자리를 찾으려고 매일 성주산에 돌아다녔었다. 성주산 바래기재 위 정자나무 밑에 짚신을 두고 다녔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래기재에서 쉬어가곤 하였다. 하루는 정자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느 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성주산 8모란은 너에게 해당하지 않으니 오서산에 가서 잡으라.” 하였다. 잠에서 깬 토정선생은 성주산 줄기를 타고 청라 상중으로 해서 스마트 고개에 이르러 쉬게 되었다. 그곳에는 늙은 참외장수가 참외 한 짐을 길가에 바쳐놓고 팔고 있었다. 토정선생이 참외장수와 농담을 주고받다가 참외 딱기 내기를 하였다. 바작의 참외를 전부 먹으면 참외 값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만약 한 개라도 남기면 참외 값 전부를 물어내는 내기였다. 참외장수는 상대가 토정선생인지 모르고 선뜻 내기에 응하였다. 드디어 내기가 시작되었고, 토정선생은 참외를 하나들 먹기 시작하여 마지막 한 개까지 모두 먹어버렸다. 마지막 참외를 다 먹자, 한 바작의 참외를 다 털리게 된 참외장수는 굶주리고 있을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여 “우리 식구 다 죽는다.”라고 탄탄하였다. 이를 기없이 여긴 토정선생은 자기가 토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참외장수는 토정선생에게 큰절을 하고 뗏자리 하나 잡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토정선생은 오서산 밑에 있는 복호혈(伏虎穴)을 잡아 주게 되었는데, 이 자리는 돌너털로 되어 있어서 돌 위에 시신을 놓고 흠을 운반해다 덮어서 묘를 썼다. 그 참외장수가 한양조씨이고, 이 복호혈에는 한양조씨의 증시조가 묻혀 있는데, 그 후 과연 한양조씨는 이 묘의 발복으로 명문거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2 토정선생 뗏자리 잡은 이야기

토정선생이 성주산 바래기재에서 꿈 꾸에 따라, 오서산(鳥棲山)에 와 명당을 찾으니 자기에게 맞는 명당자리라곤 없었다. 오서산에서 내려와 진당산에 올라보아도 역시 명당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진당산(鎭堂山)을 내려와 산줄기를 따라 현 주포면 마강리 구슬 근처로 내려오는데 산줄기가 끝나고 논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산줄기를 찾아갈 수 없었다.



토정 이지함 선생 묘

토정선생은 오서산에서 뻗은 산줄기에 명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나 산줄기가 끝나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논두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농부가 논을 갈고 있었다. 그때마침 농부의 소는 작은 도랑을 건너지 않으려고 자꾸만 옆으로 가고 있었다. 이 때 농부가 소를 고비로 후려치면서 “이 미련한 소야! 토정보다 더 미련한 소야! 건너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토정선생은 패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다가 비꼬는 말투로 농담을 시작하였다. “어이 농부 그 거먹소로 논을 갈기 어렵지 않은가?” 하고 말하니 농부가 받아쳐 하는 말이

“그래서 쟁기 바닥에 ‘뿔’을 달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토정선생이 그 말을 받아 “어떻게 뜨거워서 논을 가는가?” 라고 하니, 농부가 “그러니까 그걸 식히려고 ‘청애’가 있지 않은가.” (청애 : 쟁기에 소의 힘을 연결시켜 주는 휘어진 긴 나무) 라고 하였다. 그때서야 토정선생은 이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 보니 농부와 소는 온데 간데 없었다.

여기서 깨닫고 토정선생은 산맥이 끊긴 곳을 건너가 보니 과연 훌륭한 명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후손들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아주 좋은 명당이니 앞으로 묘 쓸 자리가 없으면 시신을 세워서 총총히 써라.” 했다고 한다. 그 자리가 현재 주교면 고정리 토정선생 묘소가 있는 곳이다.

3 토정선생 신술(神術)에 관한 이야기

토정 이지함은 나면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여 천문(天文), 지리(地理), 의학(醫學), 복술(卜術), 술수(術數) 등의 학문에 능통하여 앞날을 미리 알고 행동하여 당대에 신인(神人)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두 발은 등근 박 하나에 묶고, 지팡이를 등근 표주박 하나에 묶어 물위를 가는데 평지를 가는 듯하여 아니 가는 곳이 없고, 소상강이나 동정호 가을 경치를 두루 보고 왔다고 한다. 사해를 두루 다니면 해상에는 오색이 있어 사방과 중앙으로 나누어 그 방위와 같은 색으로 따라 간다고 한다. 그러나 집안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한다. “세상에 당신을 신술이 능하다고 하는데 집안의 양식이 떨어져 밥을 못하는데 어찌 술수를 이용해 다급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토정이 말하기를 “비록 신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천기를 누설하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죄가 막대할 것이요.”

그러나 부인은 간절히 다시 청한다. “양식을 구해 봅시다.” “부인이 간곡히 청하니, 내가 조금은 시험을 해보겠소이다.” 잠시 후 비자(婢子)에게 명하여 유기그릇 하나를 가져오게 한다.

“네가 이 유기그릇을 가지고 어느 다리로 가면 한 노파가 있다. 그 노파가 100전을 주고 살 것이다. 그러면 팔고 오너라.” 그곳을 가니 과연 노파가 달래는 값을 주고 산다. 그리고 다음 지시를 한다. “이 돈을 가지고 서소문 밖 시장에 가면 대나무로 만든 것을 쓴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수저를 급히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돈으로 그것을 사 오너라.” 과연 그곳을 가니 그런 사람이 있어 수저를 사왔다. 은수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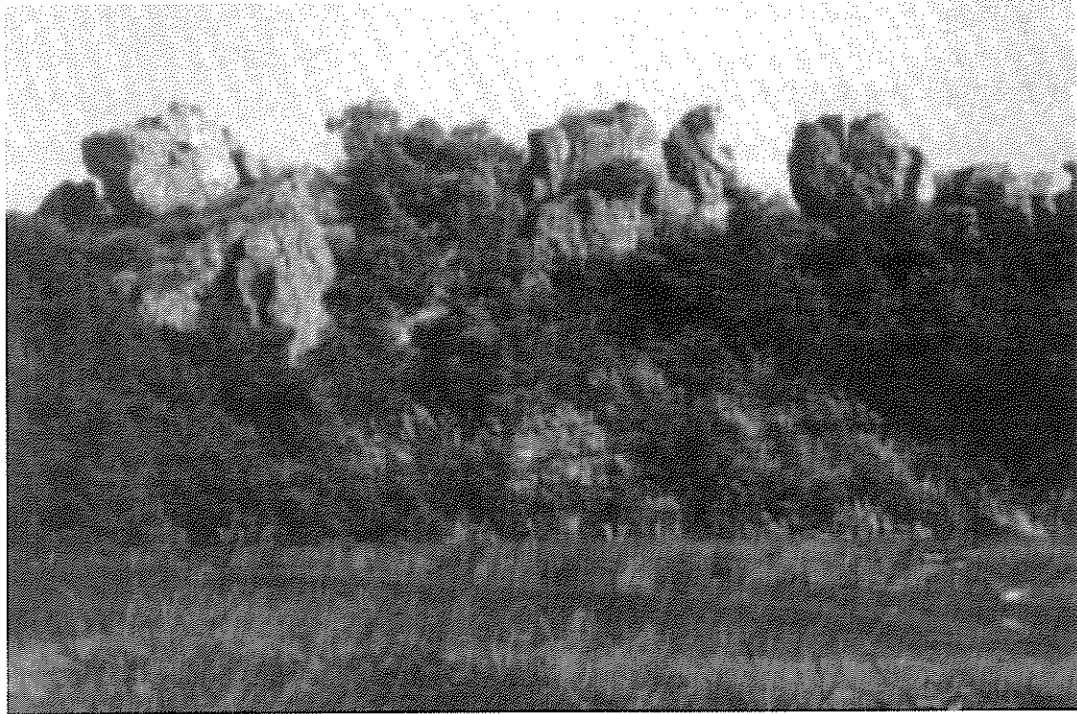
“그리고 곧 이 은수저를 가지고 경기 감영 앞으로 가거라. 그러면 누가 그 수저를 살 것이다. 그러면 팔고 오너라.” 은수저를 15냥을 받아 왔다. 다시 돈 한 냇을 비자에게 주며 “유기그릇을 판 장소로 가거라. 그러면 그릇을 샀던 노파가 도로 물러달라고 할 것이니 물러주고 오너라.” 비자가 그곳을 가보니 과연 그 노파가 왔다. 그 노파는 그릇을 잃어버려 숫자를 채울 마음으로 그릇을 산 것인데 어쩌다 다시 찾아서 되 물리려고 온 것이다. 결국 그릇과 돈을 부인에게 전해주면서 “부인 만족하십니까?” 하였다고 한다.

자료제공 대전문화원

남산바위와 도영지(倒映池)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물으니

“산아래에 못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면 바위가 비칠것이니 그렇게 되면 바위가 아래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남산바위와 도영지

직산의 남산바위 밑에 도영지라는 못이 있다. 이 못에는 남산바위가 거꾸로 비쳐 산과 못이 함께 하는 조화된 경관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직산 남산 밑에는 옛날에는 벌판이었다. 아직 전장으로 개간되지 않은 땅이 많았다. 이때 얼굴은 못생겼지만 신체가 건강 한 사나이가 직산 남산 밑에 와서 벌판에 수전(水田)을 일구었다.

일구어진 땅에는 곡식이 풍요하게 결실하였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몇 해 안가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나라에 세곡을 많이 바쳐 충성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사나이가 지꾸 부자 되기를 바랐다.

여러 사람이 부자되기를 기원하니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천석군의 부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추남이라 선득 배필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람이 성실하고 재산이 부유한지라 짝이 되겠다는 여인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자태도 곱고 행실도 정숙하여 부잣집 마나님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사나이는 꿈과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다.

재산도 날로 불어나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듯 싶었다. 이런 세월이 얼마간 흘러갔다.

그러나 이 두 부부의 행복을 시샘이나 하듯 사나이가 병이 들어 백약의 효험이 없었다. 병이 점점 깊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이 일구어 놓은 전장(田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에 묘를 썼다. 묘를 쓰고 나니 묘역(墓域)을 하던 사람들이 채 집으로 돌아 오기전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삼일동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날이 개인 후 산을 바라보니 전에 없던 큰 바위가 솟아 있었다. 하도 신기하여 올라가 보니 사나이 묘는 없어지고 바위가 새로 솟은 것이다. 아내는 바위가 남편의 화신이라 믿고 바위를 향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 후 웬일인지 사나이가 죽은 후 기뻐와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더니 풀잎조차 말라버렸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근심에 젖어 지냈다. 이때 스님 한분이 오더니 “남산에 솟아있는 바위의 상을 보니 워낙 부자의 상이라 재물이 모두 바위에 몰리니 들녘에는 흉년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 대책을 물으니 스님을 저 바위가 널리 은혜를 베풀어야 풍년이 들어 운택하게 될 터인데 바위는 움직일 수 없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합니다. 바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물으니 “산아래에 못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면 바위가 비칠것이니 그렇게 되면 바위가 아래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 못을 팠다. 못을 파고 물이 고이니 산의 바위가 물속에 비쳤다. 그때부터 풍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되찾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못이 하도 고마워서 모두 모여 들여다 보니 바위 그림자가 거꾸로 비쳤다. 그때부터 이 못을 도영지(倒映池)라 불렀다. 그림자가 거꾸로 섰다는 뜻이다.

물속에 비친 모든 그림자는 거꾸로 비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정서가 운택한 옛 사람들은 도영지 전설을 형성하여 착한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나이는 원래 바위의 화신이기 때문에 얼굴이 거칠었다고 한다.

자료제공 성현문화원

CULTURAL ASSETS

정림사지 석불좌상

마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물으니
"신아래에 못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하면 바위가 비칠것이니 그렇게 되면 바위가
아래까지 은혜를 배풀 수 있게 되어 풍년이 든다"고 하였다.



정림사지 전경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북쪽 보호각내에는 보물 제108호로 지정된 석불좌상 1기가 위치하고 있다. 이 석불이 한 때는 지방민들 사이에 소정방상(蘇定方像)으로 와전되었으므로 현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흑간 있는 것 같다. 소정방상이라고 믿게 한 그릇된 판단은 이 불상이 지닌 이례적인 면에서나 정림사지 5층석탑에 새겨진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으로 어림한 나머지 이 같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주지하는 있는 바와 같이 철저히 사라져 버린 백제문화의 유산은 이 곳에 사찰 이름조차 남기고 있지 않았으므로 탑신에 남아 있는 비문을 근거로 생각한 나머지 터무니없는 속설이 와전된 것이다. 또한 이 석상 자체가 불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저하게 되는 헤학적이고도 특이한 형상을 취한 그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부질없는 속설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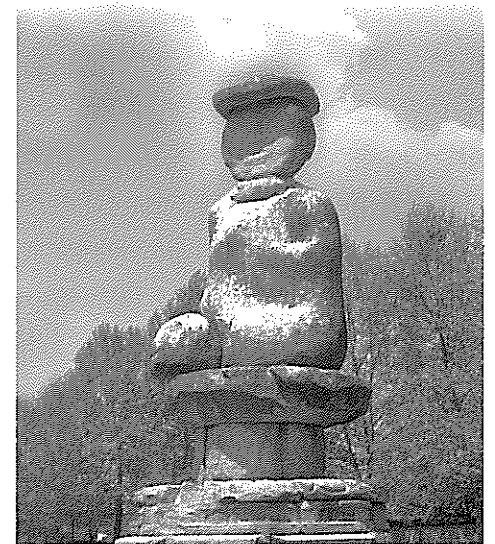
이 석상은 사실 머리 부분과 보관은 본래의 것이 아니다. 후대 어느 시기엔가 파괴되었던 이 불상에 지방인들이 연자방아의 맷돌로 머리 형태를 만들어 얹고 다시 보관을 씌웠으므로 현재와 같은 기형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불상의 통례적인 조상 양식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 불상은 심한 마멸과 파손으로 형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세부적이 내용 파악은 어려운 처지에 있다. 왼쪽 무릎과 바른 팔은 없어졌으나 좁은 어깨와 왼손이 가슴께로 올라가 오른손과 한데 모아지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 모습은 지권인(智拳印)을 한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이 틀림없다. 비로자나불은 노자나불?자나불이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 이 상은 일명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도 하는데 불체에 비하면 대좌는 훨씬 잘 남아 있다.

좌대는 뛰어난 작품으로서 상대(上臺)에는 앙련화가 조각되었고, 중대의 필각간석은 각 면마다 안상을 표현하였다. 하대는 복판복련화 8엽을 두드러진 불륨을 주어 처리하였고 그 아래 지대석은 두 단의 8각석 각 면마다 세 개씩의 안상을 새기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조각 수법은 불상도 동일하였을 것이지만 지금은 겨우 형체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석불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백제시대 사찰 내 의 강당지 중심인데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 곳에 불당을 건립하고 '정림사(定林寺)'라 현액하여 이 석불을 주존불로 하였던 것이 그간이 조사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이 석불 주변에서 수습된 글자 박힌 기와를 통해서도 그 연대와 절 이름이 확인되고 있다. 암기와외의 표면에 찍힌 명문에는 '태평8년 무진 정림사 대장당초(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 하였는데,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의 연호로서 서기 1028년(고려 현조 19)에 해당한다.

이 때에 사찰을 이 곳에 다시 건립하고 정림사라 하였던 것을 알겠으며, 이 불상의 제작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문자료이다. 따라서 그간의 학술조사에서는 백제시대의 강당지 유구가 하층에 남아있고 상층에는 고려시대의 불당 유구가 겹쳐 있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더욱 뒷받침하여 주었다.

한편 정림사지는 남북 일직선상에 중문, 탑, 금당, 강당을 배치하고 주위를 회랑으로 둘러친 행태이다. 가람 중심부를 둘러싼 회랑의 형태가 북쪽에서 간격이 넓어진 사다리꼴이라는 점, 그리고 중문 남쪽에 2개의 사각형 연못과 남문터가 있는 점이 큰 특징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제8차 발굴조사에서 강당지 규모는 동서 폭 39.1m, 남북 폭 16.3m이며, 강당지 좌우로 1m 간격을 둔 부속건물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속건물지의 규모는 동서 폭 12.1m, 남북길이 39.3m 규모인데 이들 건물은 모두 기와로 기단을 치장한 외적기단으로 구축하였다. 과거 1942년부터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백제시대 가람 구조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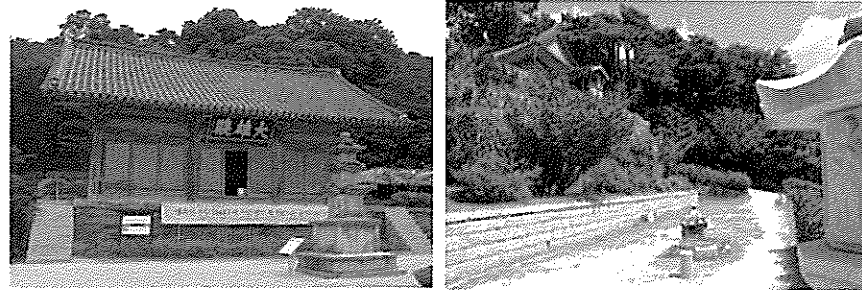
정림사지 석불좌상

자료제공 부여문화원

CULTURAL ASSETS

수덕사와 대웅전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
D비보이는 목조건축



주요문화재인 국보49호

문헌으로 남아 있는 기록은 없지만, 백제 위덕왕(威德王:554~597) 재위 때 고승 지명이 처음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제30대 왕 무왕(武王) 때 혜현(惠顯)이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강설하여 이름이 높았으며,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 때 나옹(懶翁:혜근)이 중수하였다. 일설에는 599년(신라 진평왕 2)에 지명(智命)이 창건하고 원효(元曉)가 중수하였다고도 전한다. 조선시대 제26대 왕 고종(高宗) 2년(1865)에 만공(滿空)이 중창한 후로 선종(禪宗) 유일의 근본도량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문화재로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 제18호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無量壽殿)과 함께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목조건물이다. 이 밖에 대웅전 양 옆에 승려들의 수도장인 백련당(白蓮堂)과 청련당(靑蓮堂)이 있고, 앞에는 조인정사(祖印精舍)와 3층석탑이 있다. 그리고 1,020계단을 따라 미륵불입상(彌勒佛立像)·만공탑·금선대(金仙臺)·진영각(眞影閣) 등이 있고, 그 위에 만공이 참선도량으로 세운 정혜사(定慧寺)가 있다. 부속 암자로 비구니들의 참선도량인 전성암(見性庵)과 비구니 김일엽(金一葉)이 기거했던 환희대(歡喜臺)가 있으며, 선수암(善修庵)·극락암 등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 특히 전성암에는 비구니들이 참선 정진하는 덕숭총림(德崇叢林)이 설립되어 있다.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중심포(柱心包)집이다. 기구수법(架構手法)이 부석사 무량수전과 흡사하며 세부양식 역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그 구조·장식·양식·규모·형태 등에서 발견되었다. 외관은 각 부재(部材)가 크고 굵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측면은 특히 아름답다.

약간 배흘림기둥을 연결하는 경쾌한 인방(枋), 고주(高柱)와 평주(平柱)를 잇는 퇴보, 고주간을 맞잡는 대들보 등의 직선재(直線材)와 이들을 지탱하는 다분히 장식적인 포대공(包臺工), 그리고 곡물(曲物)이 큰 우미령(牛眉梁)들이 이루는 조화와 이들이 흰 벽을 구획한 세련된 구도는 한국 고건축(古建築)의 아름다움D비슷한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D비보이는 목조건축이다. 건물의 건립연대(1308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다른 건물의 건립연대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제공 예신문화원

홍주사은행나무



소재지: 상옥리 1154
 형태및구조: 은행나무
 규격: 수고20m,둘레8.5m,수관직경20m
 연대: 900년
 학명: Ginkgo biloba Linne

외형적 특징

주간부는 약 4m까지 외줄기로 되어 있고 그 위부터 몇 개의 줄기가 곧게 하늘을 향해 갈라져 있다.

주간부는 외형적 손상없이 완전하고 수피도 깨끗하며 생육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수형도 아름답다. 해마다 나무 밑부분에 새순이 무성하게 돌아난다.



주변환경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약 40m 후면에 전통사찰 제46호인 홍주사가 위치하고 있고 홍주사 경내에는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33호인 만세루와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8호인 홍주사3층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유래 및 전설

이득히 먼 옛날 먼길을 가던 노승이 백화산 산기슭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꿈인 듯 하얀 산신령님이 나타나 노승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키며 이곳은 장차 부처님이 상주할 자리이니 지팡이로 이곳에 표시를 하라는 말을 듣고 깜짝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기이한 일이구나 생각한 노승은 꿈에 산신령님이 가리킨 지팡이를 그곳에 꽂아두고 불철주야 기도를 하니 신비스럽게도 지팡이에서 은행나무 잎이 피기 시작하였고 노승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을 짐작하고 더욱더 기도에 정념하니 또다시 산신령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길 이 나무에 자식 없는 자 기도를 하면 자식을 얻게되고 태어난 자식들이 부귀영화를 얻어 부처님을 모실 것이니라 하며 사라졌다. 그 후 몇 십년후 산신령님 말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해 불사가 이루어졌고 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탐스런 은행과 항상 푸르름처럼 부처님의 손길이 자손만대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노승은 절의 이름을 홍주사라 이름하였다 한다.

홍주사와 더불어 백제의 찬란한 역사와 함께했던 이 나무는 홍주사의 부처님을 지키는 사천왕의역할을 하여왔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위태로울 때 항상 산천이 진동할 듯한 울음을 터트려 애통해 하였고 또한 지금도 가끔 목탁소리를 내어 신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신비의 힘을 가진 나무로 주민 및 신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신비의 힘을 가진 나무로 주민 및 신도들의 정서에 기여하는 공로가 지대함이다.

자료제공 태안문화원

FESTIVAL

백제대제

백제대제는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백제가 멸망하였을 때 백제유민이 백제의 역대 왕과 대신의 영혼을 달래는 제례입니다.

백제대제의 기원은 계유년(673년) 4월 15일 백제 유민들에 의해 석불비상 8개를 조성하여 비암사를 짓고 시납하여 국왕대신과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올린데 기원을 둔다.



① 백제대제를 알리는 명종이 10번 올린다.

행사개요

- 축제명 : 2009년 제27회 백제대제
- 기 간 : 2009년 4월 15일(수) 11:00
- 장 소 : 전의면 다방리(비암사)
- 주 최 : 비암사, 연기문화원
- 후 원 : 연기군, 연기향토사연구소, 비암사, 전의향토문화선양위원회, 전씨총친회

행사순서

- 백제대제를 알리는 명종이 9번 올린다.
- 백제대제의 경과보고
- 백제대제
 - 헌 다
 - 추도사
 - 대 령(청혼)
 - 반야심경
 - 범 폐
 - 헌화 및 분향

백제대제의 기원은 계유년(673년) 4월 15일, 백제 유민들에 의해 석불비상 8개를 조성하여 비암사를 짓고 시납하여 국왕대신과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올린데 기원을 둔다. 이 제를 계승한 것이 백제총령제라 하였으며 도원문화제가 개최되면

서 명칭을 변경하고 개막행사로 봉행되게 되는데 백제대제라 한다.

백제대제가 행해지는 명찰 비암사는 충남 연기군 전동면 다방리 운주산에 있는 사찰로 백제가 멸망한 후 역대 왕과 대신들 백제부흥운동을 펼치다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673년경에 만든 사찰이다.

신라 말에 도선이 중창하였다. 극락전 앞뜰에 있는 고려시대 삼층석탑 정상부분에서 사면군상(四面群像)이 발견되어 널리 알려졌다. 이 석상 중에서 계유명전씨아미타불삼존석상(癸酉銘錢氏阿彌陀佛三尊石像)은 국보 제106호로 기축명아미타여래제불보살석상(己丑銘阿彌陀如來諸佛菩薩石像)과 미륵보살반가석상은 각각 보물 제367호와 제368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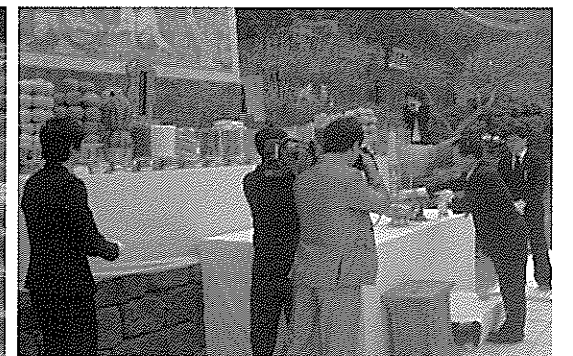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원래 이름은 운점사인 것으로 추정되나 비석의 형태를 한 석불비상이 모셔져 있다하여 비암사라고 불리운다. 비암사 명칭은 언제부터 썼는지 알 수 없지만 석불비상이 발견된 1960년대 이후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때는 불에 타서 초석만 남기도 했고 돌보는 이가 없어 세 번씩이나 흠덩쿨 속에 묻혀 버리기도 했던 수난을 겪은 사찰이다. 백제대제의 기원은 계유년 673년 4월 15일 백제유민들에 의하여 석불비상 8개를 조성하여 비암사를 짓고 시납하여, 백제 국왕대신과 칠세부모를 위한 제를 올린데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660년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백제의 유민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일본에 가 있던 왕자 풍을 왕으로 맞이하여 복신, 도침을 중심으로 연기군 일대 산성에서 피어 어린 구국항전을 했지만 3년여만에 나당연합군(신라28만, 당나라40만)에 의하여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지만 백제의 역대 국왕과 충신, 칠세부모를 위하여 673년 전씨를 중심으로 불상을 만들고, 절을 지어 이곳에서매년 4월 15일(음력)에 제를 지냈다는 기록과, 1999년 9월 비암사에서 발견된 조선초기 제작된 기와에 "대백제국왕대신"이란 명문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제를 지내온 것으로 추정하나, 그 후에는 제를 지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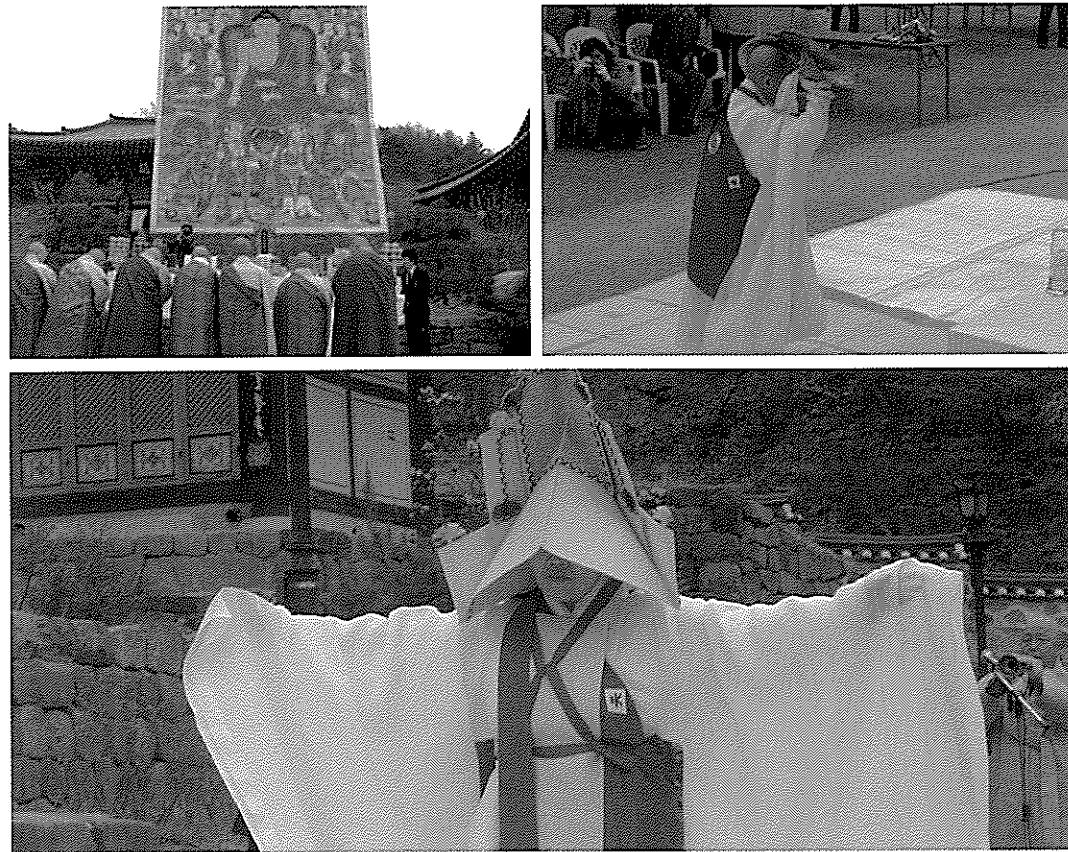


② 백제대제의 경과보고



③헌다

FESTIVAL



④ 청혼(반야심경) ⑤ 범패 ⑥ 범패

그러다가 전의고적보존회가 향토 개발사업으로 주류성과 비암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온 결과 이를 재현하기 위해 1983년 4월 15일(음력) 종파를 초월하여 전 군민의 이름으로 제를 올리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것을 “백제총령제”라 이름 지어 거행해 오다 1986년 황수영박사가 부여에서 지내는 “백제대왕제”는 성왕에서 의자왕까지 6대왕의 제를 올리지만, 연기에서는 온조왕 이래 역대왕 및 충신에 대한 제를 올리기 때문에 “백제대제”를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발표에 의하여 “백제대제”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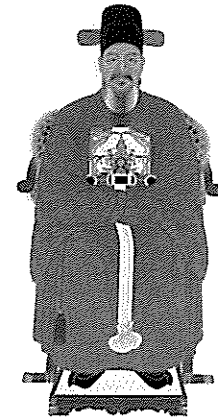
2000년부터는 당시(백제말)의 모습을 재현 하려고 노력했으며, 연기군뿐만 아니라 백제권에서는 유일한 “백제대제”임을 알리는 행사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4월 14일 “백제대제와 비암사”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전야행사로 탐돌이를 하였으며, 4월 15일에 백제대제를 지냈고, 모형석불비상을 제작하여 이를 시납하는 군사행렬을 웅장하게 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제공 연기문화원

48회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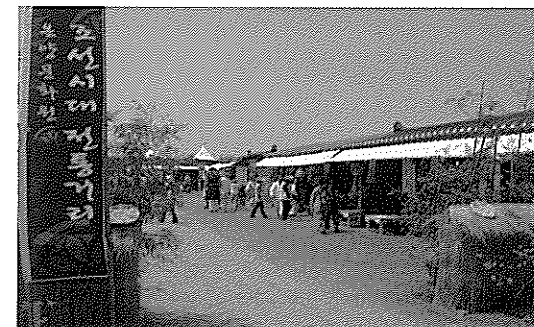
조선시대 전통거리 중심으로
 축제명 : 제48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운영기간 : 2009.4.28~5.3(6일간)
 장소 : 곡교천 주행사장, 온양온천역
 주최 : 충청남도아산문화재단



이순신 장군의 충무정신을 되새겨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지방문화 활성화와 전통계승발전의 계기 마련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되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1961년에 최초로 온양문화원과 지역민들이 주축이 되어 온양문화제로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이순신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 현충사에서 거행되는 다례행사와 서막식, 이충무공 전술비연 날리기 대회, 무과시험재연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임진왜란 당시 위기속에서 더욱 빛나는 리더십으로 희망을 지휘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지금 다시 되살리자는 각오로 이순신리더십을 주제로 채택하여 슬로건으로 ‘희망을 지휘하라, 이순신처럼!’ 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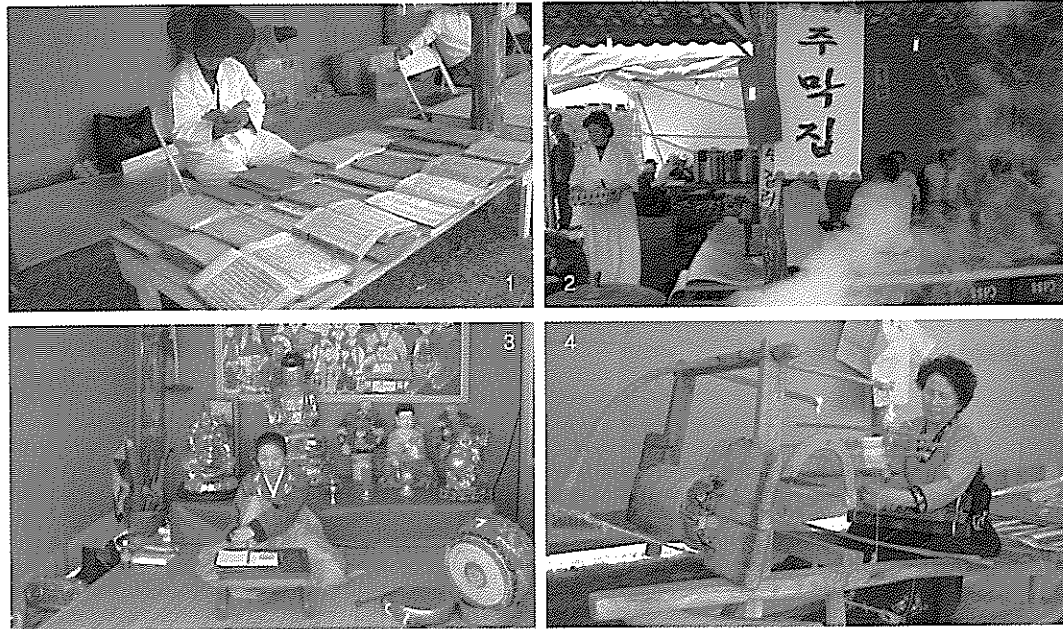
이순신 장군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함께 하는 이들의 동기와 역량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수평적리더십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보여줬던 해전 지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직의 리더, 한가족의 리더들이 이순신장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이번 제 48회 성웅 아산 이순신 축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양온천역 전면을 가득 메운 대형 설치미술과 멀티미디어쇼, 대형 거북선유등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을 축제속으로 끌어들었다. 국난극복을 위한 함상토론과 학술제, 이순신리더십 주제 전시관을 설치하여 아산시의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는 한편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설치 미술작업, 아산시 예술인들이 만드는 온양온천역 한마당 축제, 그리고 퍼레이드 전문가 영입을 통해 한층



조선시대 전통거리의 일부



짚풀공예



1.고서전 2.주막집 3.점집 4.삼베짜기

역동적인 시민 참여 개막 퍼레이드가 아산의 정신을 드 높였다.

기존 축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감독제를 도입하여 총감독과 각 분야별 전문감독들의 선임을 통해 축제의 각 프로그램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최상의 환경으로 시민을 맞이하였다. 충무공 탄신일의 의미와 격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남해 취수식, 동상목욕식 등 다례행제의 구성과 운영을 전문회원과 더불어 개막식 전 고유제를 통해 이순신장군으로부터 출발한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 특히 온양문화원에서는 제 48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일환으로 행사장 주변에 조선시대 전통거리를 조성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조선시대 전통거리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며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업체 우선 입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점포는 기와지붕 14동, 초가지붕 6동, 천막지붕 8동을 설치하였으며 동시대 백성들의 생활상을 연출하였다. 볼거리(장승 짚, 짚풀체험, 가마나짜기, 삼베짜기, 점집, 고서, 민화, 보부상, 포졸등), 살거리(도자, 옹기, 악기, 마곡, 백당등) 먹을거리(주막집, 떡집, 두부등)를 골고루 재연하며 조선시대 일상생활을 엿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 전통거리에 대해 자체평가를 해 본 결과 매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베짜기, 짚풀공예, 목물전등을 제외한 여타 품목은 시민들의 참여 및 호응을 끌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에 통나무, 이엉등을 확보하여 조선시대 거리를 재현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목재 이영역기 등에 거의 예산의 절반정도가 소요되어 주제의 비중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향후 체험종목의 다양화를 하고 거리내에 가면극, 인형극, 창극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유사한 주제의 축제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각인시키는 과정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자료제공 온양문화원

수리바위제

뒷산의 형상이 용어 잡자는 모양으로서 주변에 훌륭한 애국지사가 많이 태어났다고 믿는 산이다.

명칭 : 마을 안녕 기원제 신격 : 수리바위

수리바위의 위치 : 수리바위제를 지내는 수리바위는,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내기마을 뒷산에 있다. 내법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홍북면으로 편입되었고, 1983년 2월 15일 행정구역 개편 때에는 홍성읍으로 편입되었다. 수리바위는 내기마을 뒷산에 있다.

수리바위의 형태 : 내기마을 뒷산에는 원래 석불 일곱 개가 있었다. 자연석으로 된 석불은 3개이고, 인공으로 만들어놓은 석불이 4개였다. 이들을 모두 합해서 칠성바위라고 불려왔다. 옛날에는 정초가 되면 칠성바위 앞에 금줄을 띄우고 치성을 드리는 일이 흔했다. 여기에서 치성을 드리고 지식을 낳은 집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모두 훼손되고 말았다. 칠성바위 뿐만 아니라 바위 주변의 정기를 끊어내기 위해 산을 훼손하고 깊게 고랑을 내어 파놓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더구나 뒷산의 형상이 용어 잡자는 모양으로서 주변에 훌륭한 애국지사가 많이 태어났다고 믿는 산이다. 지금은 칠성바위가 모두 훼손되고 석불을 새겨놓은 바위 한 개만 남아있었는데, 이 바위가 바로 수리바위이다. 현재는 장항선 철도공사로 인해 산이 완전히 두 갈래로 잘리고 수리바위마저 훼손되고 말았다. 수리바위는 조상 대대로 마을을 지켜주는 신성한 바위로 여겨왔다. 더구나 수리바위에는 부드럽고 수려한 곡선으로 부처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문화적 가치를 고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마을주민들은 수리바위를 없애지 말고 바위 밑으로 터널공사를 요구했고 시공시착과 합의를 본 상태였다. 수리바위를 원형대로 옆쪽으로 옮겼다가 공사가 끝나면 원 위치로 다시 옮겨놓는다는 합의였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수리바위 원형이 모두 훼손되고 말았다.

제의 목적 :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낸다. 그동안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 지냈다. 수리바위제는 옛날조상 때부터 지내왔다. 그러다가 6.25사변 때에 잠시 중단했었다. 마을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는 세태의 변화와 함께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 마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장항선 철도공사로 인해서 수리바위 산의 나무가 뽑혀나가고 주민들이 사고사를 당하는 등 불운이 겹쳐왔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오던 마을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2004년부터 마을 공동으로 지내기 시작했다. 2007년 2월 27일에는 주민들과 철로공사 시공사측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지낸다.

제일 : 옛날에는 음력 정월 대보름 전날에 지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정초에는 대보름 안쪽에 좋은 날을 택해서 지낸다.

제의 주관자 : 옛날에는 마을에서 제일 마땅한 사람을 제주로 뽑아서 제를 주관했다. 그해 생기복덕을 보아서 무난한 사람이 제주가 되었다. 지금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을 이장이 주관한다.

금기 : 옛날에는 금기가 많았다. 제주가 된 사람은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되고 초상집에 가는 것도 금했다. 특히 제물로 사용되는 떡은 시루떡 전체를 그대로 갖다 놓고 지냈다. 제사가 끝났어도 떡에는 칼을 대면 안 되었다. 손으로 떡을 떼어서 나눠 먹었다. 지금은 그런 금기사항들을 따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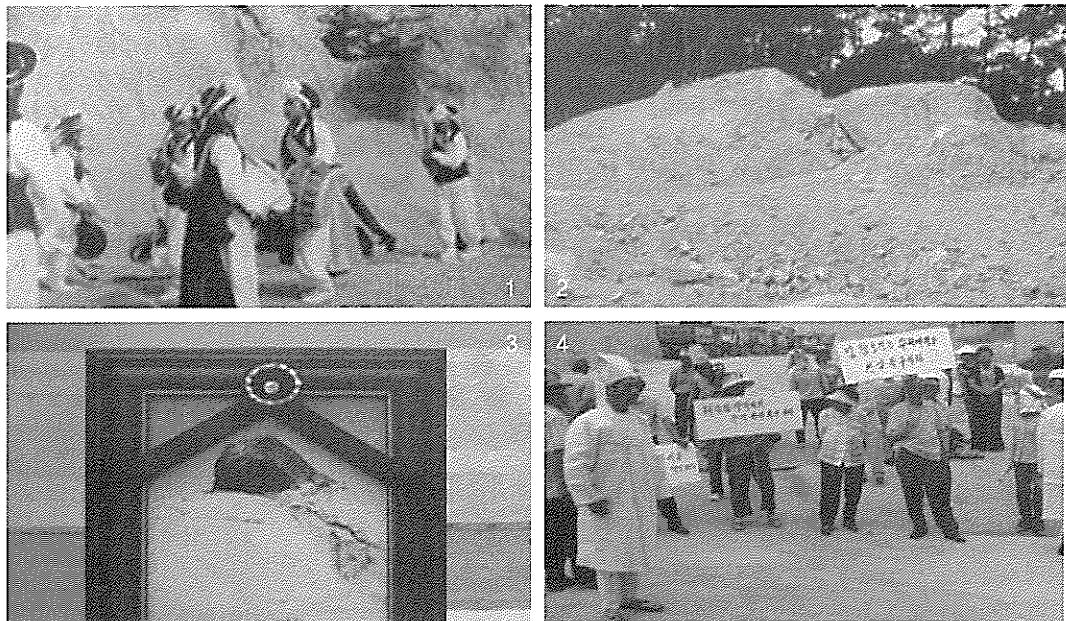
제물과 제의 절차 : 돼지머리와 떡, 삼색실과 등 일반적인 제의의 제물과 거의 비슷하다. 제의 절차도 일반적인 제의와 비슷하다.

제의 비용과 결산 : 옛날에는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추렴해서 지냈다. 지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낸다.

마을사람들의 신앙태도 : 옛날에는 바위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성대하게 지냈다, 마을 공동제의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개인적으로 차성을 드리고 자식을 낳은 집도 여럿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 주는 수리바위를 상당히 신성시 여겨왔다. 이토록 조상 대대로 신성시 했던 수리바위가 훼손됨으로 주민들의 속상한 마음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래 및 전설 : 매봉재 주변에는 '도투쟁이', '호연골', '종장' 등의 지명이 있다. 호연골은 옛날에 과거시험을 관장하던 어른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종장이라는 지명은 과거 기험의 최종 결정지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일제시대에 철도를 내면서 이마산 가운데를 끊어내면서 피가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산을 끊어내고 수로를 내면서 물이 항상 고여 있었고 가재가 많이 살아서 '가자울'이라는 지명도 생겨났다. 풍수지리적으로 수리바위산은 용의 형상이고, 맞은편에 있는 백월산은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려고 날아오르는 형국이라고 한다. 용과독수리가 상호 견제하므로 지역이 안정되어 평안을 누리는 지역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또한 수리바위산은 용의 발톱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고장에서 절충한 인물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우리지역의 인재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제가 매봉재와 수리바위산 훼손작업을 할 때에, 수리가 하늘을 뒤편고 울부짖었으며 수십명의 공사인부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발했다고 한다. 그래서 용의 발톱 세 개 중에서 한 개만을 훼손한 채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수리바위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1. 수리바위제 모습 2. 수리바위터 3. 수리바위 영정 4. 주민들의 형의집회

자료제공 홍성문화원

예산 간양리 덕방산 산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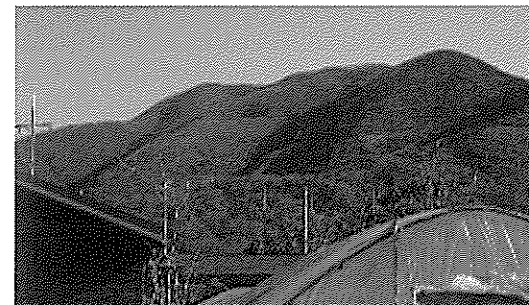
난리통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고
마을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후에는 짙은 안개가 산을 감고 돌아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 마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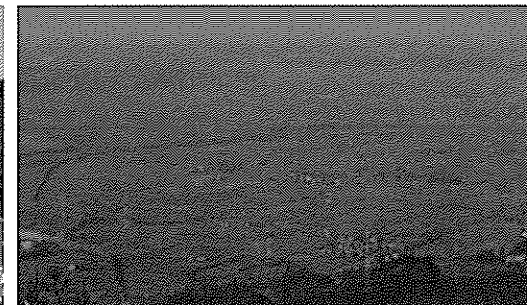
간양리(間良里:간량골,간량동)는 본래 예산군 금평면의 지역으로서 간량골 또는 간량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후리, 구정리, 박달리와 신창군 남상면의 사대리,가정리,대소정리,효자동의 각일부를 병합하여 임성면(예산읍)에 편입된 후 현재 예산읍 간양리1,2,3구로 편제되어 있다.

2. 덕방산

간양리,수철리,산래원리에 걸쳐 있으며 높이 473m로 도고산 남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덕이 많이 깃든산이라 하여 덕방산 혹은 덕봉산이라 칭한다. 그러나 산신제 축문에 道高山,德方山(도고산, 덕방산) 산신제로 되어 있는거로 보아선 덕방산이 맞는 거로 추측되어진다.



간양리 2구 마을회관 바라본 덕방산(德方山) 전경(해발 473m)



덕방산에서 바라본 가을들녘 (멀리 신태천과 서해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3. 산신제의 유래

산신제의 기원시기와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나 수백년전부터 구비전승 되어져 왔다는 데는 마을분들의 이구동성이다. 마을 어르신들에 의하면 정확히 어떤 난리인지는 모르지만 난리통에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해 올라갔고 마을사람들이 산으로 들어간 후에는 짙은 안개가 산을 감고 돌아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여 그 이후로 마을사람들을 생각하는 산의 영험함에 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다.

4. 제일

음력 10월 1일,2일,3일,중 마을 회의를 통해 제일을 정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과거에는 제일이 정해지면 마을에 외부인의 출입이나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까지 금지 되었으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상처난자는 제례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한다.

RESEARCH

5. 제당

제당은 덕방산(473m) 정상 9부능선 쪽에 위치한 서향집이며 산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나 제당 주변은 마을 주민들이 미리 잡목과 수풀을 정리해 놓아 시야가 넓게 펼쳐져 서해바다까지 드넓게 펼쳐져 시야가 더할나위 없이 좋다.

제당은 나무 보와 기둥으로 되어진 흙집으로 지어졌으며 1960-70년대 수선을 가해 내벽은 흙집으로 외벽은 슬레이트로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당내부는 예산읍의 지원으로 나무로 덧대어져 정결되어져 있었다. 제당 입구는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으며 정면에는 제례상과 좌측 상단에는 선반(시렁)이 올려져 있다. 제당의 앞에는 자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는데 덕방산 줄기내 물나는 유일한 곳이며 사계절 마르지 않는다 한다.



덕방산산신제 제당의 모습 벽과 지붕은 흙으로 되어있으나 외벽만 슬레이트로 덧대어 개축하였다



제당앞의 썸 덕방산 유일한 썸으로 사계절 마르지 않으며 이썸물로 제기를 두고 제법을 하였다.

6. 제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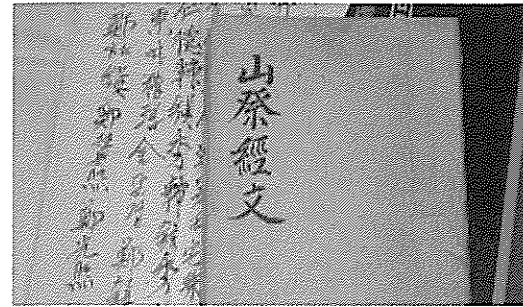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하여 걷은 비용으로 수백년 내려져오는 제를 올리는 비용으로 충당 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이름 하나하나 축문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주민들이 직접 잡은 돼지를 짊어지고 제밥 지을 술단지과 미리내려 익혀놓은 제주와 제례음식등을 직접 짊어 지고 덕방산 제당까지 올라가서 제당앞 작은 샘에서 제기씻고 짊어간 술단지에 물걸어 밥 짓는 거로 제례 지낼 준비를 하였다. 이 모든게 여자들 없이 어른 장정 할것없이 간양리 남주민들의 산오르는데 숨고르기 위해 한두잔 마신 술기운에 서로 힘든구워 가며 준비되어지고 제밥이 뜬들어 제당으로 옮겨지면 제례준비는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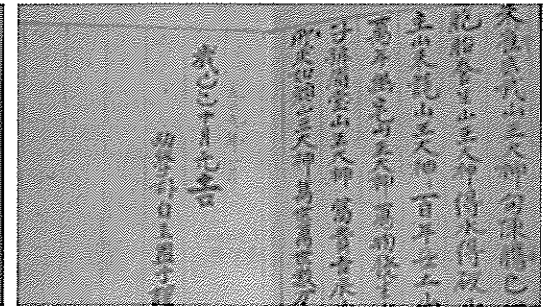
마을분들이 모여 제문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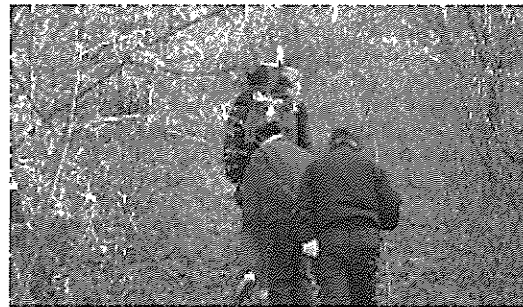
예산군 간양리 2구 마을회관



산제경문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덕방산 산신제 경문



1929년 정월에 필사했다는 내용의 글로 80년의 세월을 머금은 경문



제례를 위해 덕방산을 오르는 마을분들 등산객들로 인하여 길은 나저 있으나 인근 도고산에 비해 안내판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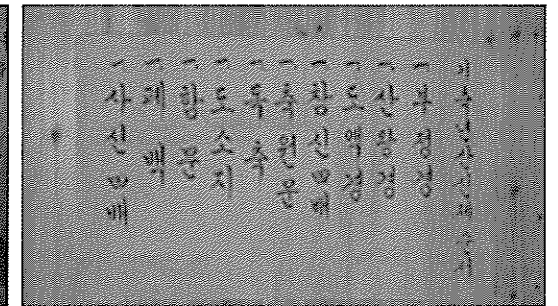
제법짓는 모습

7. 제의 과정

제밥 술단지채 올리며 제례음식이 차려지고 갖잡아 올린 돼지머리를 상석으로 북어 한두리미, 고기, 미역, 멸치, 소금, 밥, 대추, 감을 놓고 역시 직접 만든 두부와 미역 떡이 올려진다. 제기는 용기로 한번에도 산제 제기로 알수 있는 용기 술단지과 용기잔이 씌어져 옛것 그대로의 산생활의 모습이 남아져 있었다. 제례의 순서는 부정경이라는 축문의 독경을 시작으로 마을 분들 한사람 한사람의 160여분의 무운강녕함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읽느라 축문 읽는 시간은 두어시간 남짓 꽤오랜 시간 정성스레 읽혀진다.



제례를 위해 덕방산을 오르는 마을분들 등산객들로 인하여 길은 나저 있으나 인근 도고산에 비해 안내판이 없어 아쉬움이 많다.



제법짓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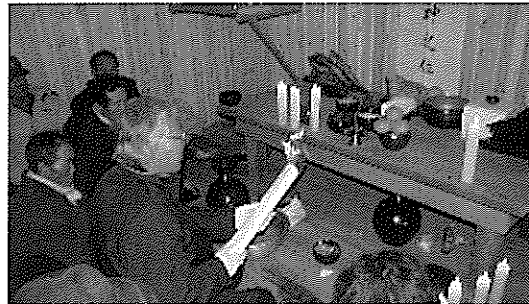
용기단지에서 제주를 직접 따라 올리는 모습



제사 올리는 모습

8. 제의 정리

제가 끝나면 모여 음복을 하는데 술단지째 올렸던 제밥을 한기운데 놓고 짹짹한 미역 부셔넣고 멀치가루 넣고 손으로 한움큼씩 비벼잡아 주먹밥으로 되주한 제주를 비가지에 부어 한숨씩 돌려가며 음복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마무리 하게 된다. 이후 제당을 정리하고 배낭 짊어지고 제주로 따뜻해진 몸이 풀고 초겨울 찬바람 가르며 예전엔 관솔불을 대신하여 후레쉬로 길잡아 내려온다. 음력 초하루 달없는 어둔밤 험난한 산길이지만 여태 제례길에 발한번 헛디딘 사람이 없다하니 덕방산 산신제 마을사람들의 정성스러움을 아는지 마을 회관에 다시모여 낮에 잡은 돼지고기에 아식을 돌려며 정담을 오가는 것으로 덕방산 산신제의 하루는 끝난다.



도소지라하여 축원문을 태우는 모습



제밥을 손밥으로 음복하는 모습

9. 맺음말

언젠가 난리 피해 숨어들어온 마을사람들을 품어주고 안개피워 생명을 구하고 물내어 밥짓게 해주어 마을의 맥을 이어가게 해준 덕방산의 은덕에 겸허히 제사지내고 대지연의 고마움을 알고 면면히 내 땅을 의지삼아 살고 수백년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때되면 모여 정담속에 제를 준비하는 예신군 간양리 마을 주민들의 교감과 정감어린 모습이 바로 예산의 얼굴이며 계승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전통문화이지 않은가 싶다.

자료제공 예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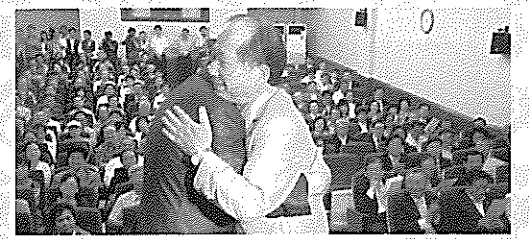
Cultural News



전국농업인품물경연대회 은상 수상 - 서산문화원 연암품물단

11월 10일 수원 만석공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 '2009 전국 농업인 품물경연대회'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천한 9개 팀의 열띤 경쟁 속에 치러졌다.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출전한 서산문화원의 고북면 연암품물단(단장 최화수)이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암품물단은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1993년 그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충청남도지사기 특별부분 장원 등의 화려한 수상 기록을 갖고 있다.

또한 서산시 감지축제, 미늘축제, 국화축제, 해미읍성문화축제,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무의탁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을 베풀고 있다.



공주문화원장 나태주 원장 취임

2009년 7월 1일 백제의 고도 공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공주문화원장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4년간 공주문화원을 지켜온 정재욱 이임원장은 뜨거운 포옹과 함께 "옛 영광을 되살리기 위하여 거듭나는 문화원이 되어 달라"는 당부로 나태주 원장에게 공주문화원장직을 이임하였다.

제5대 나태주 신임 원장은 "전임 원장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2인 3각의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부원장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원을 이끌어 갈 것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로 축시, 축가, 판소리 축하공연과 정재욱 원장 퇴임 기념 '문화가족展'이 열렸다.



충남문화상 시상 및 유공자 표창

2009 충남문화예술제에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 의한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충남문화상 시상과 지역문화 창달 및 향토예술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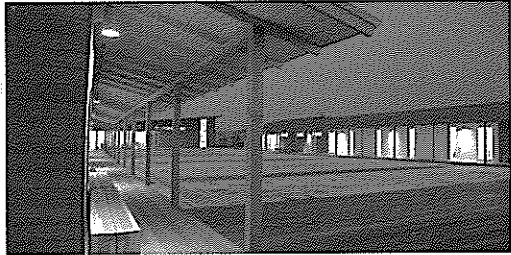
이날 개막식과 함께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예고의 화관무, 국악인 김영임, 천안시립합창단, B-boy 라스트미닛의 공연이 있었으며 충남도 문화예술인들 함께 준비한 노래교실 및 전시회, 특별공연 등이 펼쳐졌다.

충남문화상

부 문	수 상 자
예술부문	안 수 영
문학부문	최 충 식
교육부문	손 진 원
지역사회개발부문	박 호 규
체육부문	김 영 범

유공자 표창

기 관	수 상 자
한국국악협회 충청남도지회 창작분과위원장	김 수 향
한국무용협회 아산지부장	길 남 희
한국국악협회 계룡지부장	권 만 식
한국국악협회 홍성지부장	전 인 섭
서 산 문 화 원	최 윤 경
금 산 문 화 원	이 정 일
청 양 문 화 원	김 정 숙
홍 성 문 화 원	안 현 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서천 동지북 마을

동지북 마을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주민의 소득은 대부분 농농사이며, 인구는 약 120여명에 불과하다. 이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예전에 아주 큰 마을이었다고 하나, 이 마을도 아농현상은 막을 수가 없었다.

동지북 마을 지명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관계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다. 백제말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시키자, 이 마을 동자들이 왕자의 군사가 되어 나당연합군과 싸웠으나 불과 동자 19명만이 남고 남은 이들도 용감히 싸우다 전사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비가 내리면 북소리가 들린다는 동지북 북소리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얼마 전 마을주민들은 전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동지고(童子鼓)라는 전통북도 있다. 동.동.동하고 차면 온 마을이 다 들리는 큰 북이다. 마을자랑도 큰뜰, 작은뜰, 널박골, 건너뜰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

는데 참 재미있다. 평소 몇 번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최근 동지북 마을에서는 마을이 생김 이래로 2006년도부터 아주 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9년 10월 23일에는 준공식을 성대하게 추진했다. 사업명은 서천 동지북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이다. 다른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문화역사자원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승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다.

동지북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한산모시와 한산소곡주가 있다. 한산모시짜기분야의 충남도문화재가 있고 마을 아낙네들이 모시방에 모여 모시 굵을 생산하고 있다. 소곡주는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으며, 맛도 참으로 다양하다. 색깔도 다르고, 맛도 먹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달고, 쓰다. 마을에 방문하여 시음해 보시라. 이렇듯 마을에서는 보는 것과 시음뿐만 아니라 소곡주와 모시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역사계승시설이 있다. 최신식 시설에서 본인이 직접 소곡주를 빚어 보고, 100일 후 시음할 수 있으며, 모시 짜기도 해볼 수 있다. 아울러 부녀회에서 직접 해주는 맛있는 밥과 다양한 모시떡 만들기, 우리밀체험, 민박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해 놓았다.

- 소곡주 체험비 : 20,000원, 식비 5,000원
- 연락처 : 동지북마을영농조합법인 사무실 041-951-7743
- 홈페이지 : www.dongjabuk.or.kr, 주소 :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136-1
- H.P : 김영중 이장 016-9466-0331, 최일득 사무국장 011-9770-3047

2009 향토사연구 활성화 논문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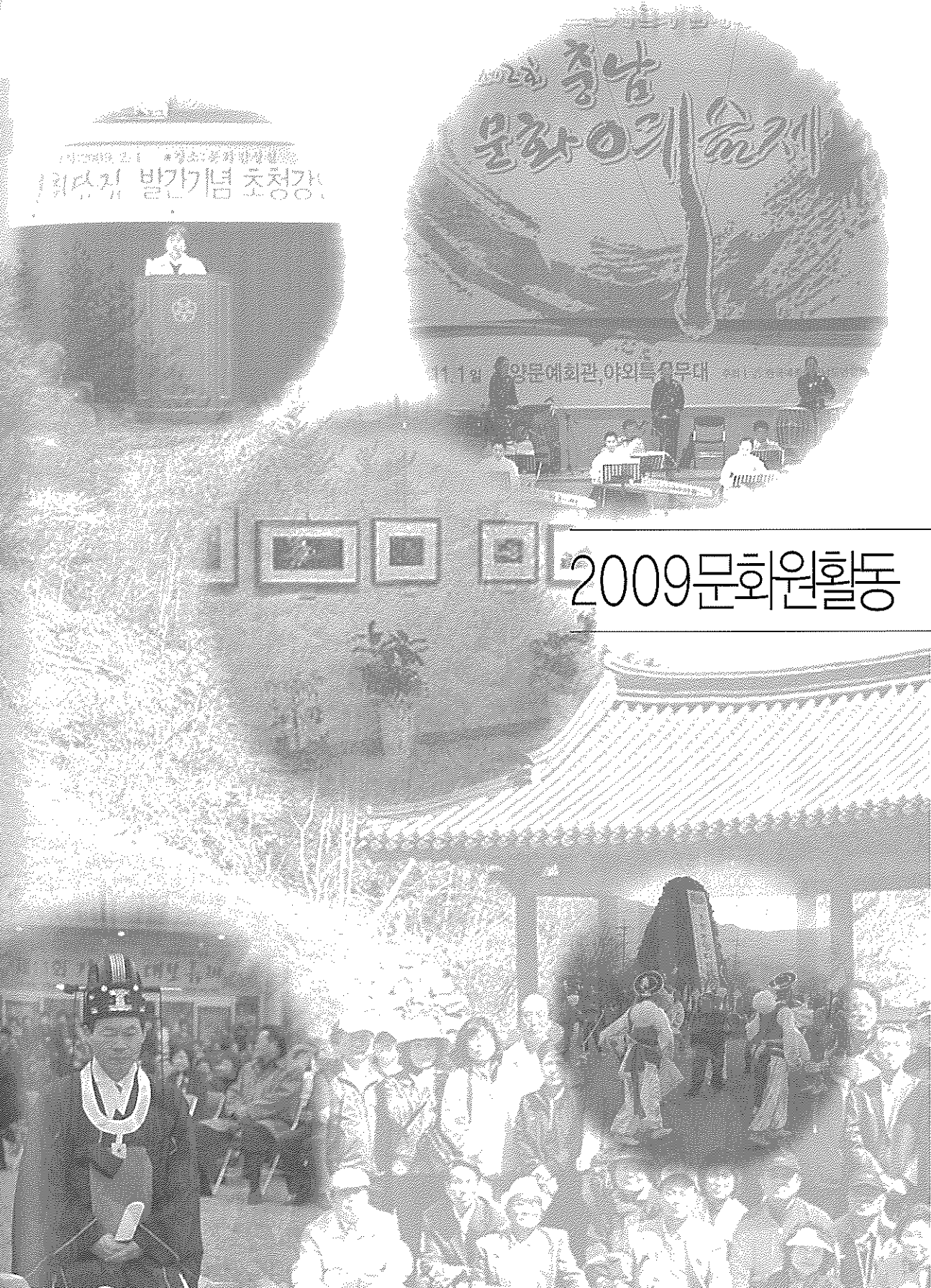
일시: 2009. 12. 22(목) 17:00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충청남도지회 후원: G.O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연구논문 공모전

한국문화원연합회충청남도지회(지회장 정정화)가 주최한 향토사연구 활성화사업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2월 22일 당 전문회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태안문화원 김기석씨가 "호낙론과 내포지방의 강문 8학사"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임존성의 축성 연대 규명과 백제 풍달군·서방성의 위치 및 중심지, 지심현과의 관계 조사연구"로 예신문화원의 성부제씨가 수상하였다. 장려상에는 "비암사" 연구로 연기문화원의 이주열씨가 수상하였다.



2009 문화원활동

충청남도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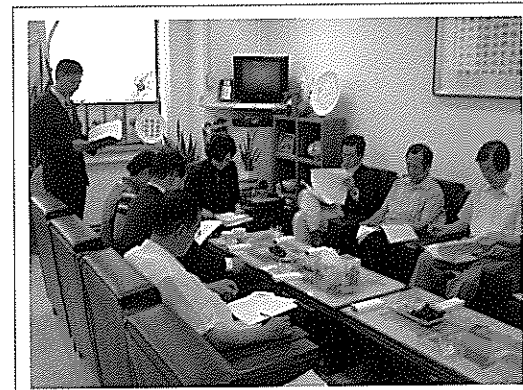
충청남도지회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충남문화 제13호	기간 : 2009년 1월~12월 대상 : 도내 문화원	충청남도지회가 출간하는 『충남문화』 제13호는 본 지회 및 도내 16개 문화원의 활동상황, 향토문화에 대한 조사·발굴 연구 상황, 문화행사 등을 수록 간행하여 회원과 각 지회 및 문화원, 향토사연구소, 필요기관에 배포하여 충청남도내 문화관련 행사를 대내외에 알림.
2 2009 지방문화원운영 활성화 워크숍	일시 : 2009. 1/11 09:00 장소 : 당진 도비도 대호농어민교육복지센터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사무국장 및 담당 공무원	문화원 직원과 시·군 담당공무원의 상호협조 및 정보 교류 분위기를 조성으로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도모. 또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여 온 지방문화원의 문제점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여 봄으로써, 지방문화원의 역할 재정립하고 충청남도 문화발전 방향을 모색함.
3 2009 사무직원 직무교육	일시 : 2009. 11/10 00:11 장소 : 당진 도비도 대호농어민 교육복지센터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국장, 사무직원	『정재욱 국사편찬위원장』, 『이해준 공주대 교수』, 『엄승용 문화재청 정책국장』,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을 강사로 초빙하여 충남도내 각 문화원 직원의 소양 교육을 통하여 문화의식 함양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문화원 업무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
4 문화원 종사자 교육	일시 : 2009. 12/10 장소 : 홍성문화원 대상 : 도내 문화원 사무직원	『정재욱 전 공주문화원장』,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총무국장』 을 강사로 초빙하여 문화원 종사자의 소양 및 회계·문서작성 요령을 교육하였음.
5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충남 지역 향토사 자료 공모"	기간 : 2009. 9~12월 (논문 접수 및 심사, 시상식) 대상 : 문화원 및 향토 연구회 회원 등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토사와 관련 된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역사 정립과 지역 향토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업. 총 3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음.
6 2009 충남문화예술제	기간 : 2009. 10/29~11/1 장소 : 청양 문화예술회관 대상 : 충청남도민	충청남도 문화예술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예총 충청남도 연합회" 와 함께 준비. 화관무, 충남국악관현악단, 김영임, 이광수 등의 공연을 결정한 개막식과 다채로운 전시회 공연 등을 선보임.
7 충남시낭송의 밤	일시 : 2009. 10/30 19:00 장소 : 논산 문화예술회관 대상 : 충청남도민	시낭송과 음악을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며 동시에 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문화 진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실내악단 나르샤· 판소리 공연 및 문화원 추천 지역대표 시낭송가의 시낭송, 『신달자』, 『정호승, 시인과의 만남, 다과회 등 준비.
8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일시 : 수시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결산의 승인 등을 위한 모임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도내 문화원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정보 교류, 충남 문화발전을 위한 정책 토의,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공동의 목표 추진 등을 위한 정례모임.	일시 : 수시 대상 : 도내 문화원장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9
박웅진 전 충청남도지회장의 이임식과 정정희 충청남도지회장의 이취임식.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과 지역 기관장이 자리를 함께하여 박웅진 이임지회장에게 감사의 말씀과 취임하는 정정희 충청남도지회장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였음.	일시 : 2009. 7/8 장소 : 당진 설악웨딩타운	충청남도지회장 이·취임식 10



충청남도지회장 이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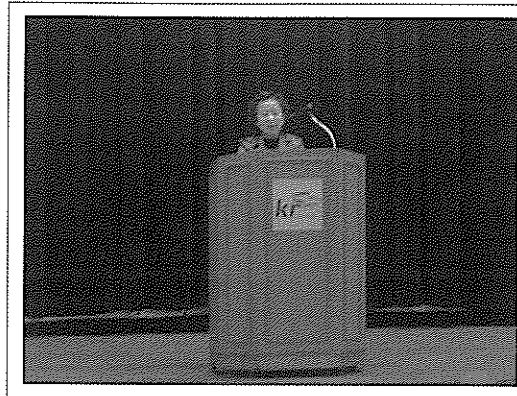
운영위원회의

충청남도지회

공주문화원



월례회의



지방문화원워크숍 및 사직원직무교육



제2회 충남문화예술제 시상식



형토사연구활성화 논문시상식



제2회 충남문화예술제 개막식



충남 사랑송의 밤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관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장 기업체장 유지 신년하례 인사교류 및 축하공연	일시 : 2009년 1/5 11: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400명	2009 기축년 신년교례회	1
웅진칼럼, 특집, 공주를 사랑한 옛 사람 옛 노래,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사진으로 만나는 옛 시간 옛 풍경,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공주의 그 인물, 시인이 그림다, 문화부 기자의 돋보기, 문화의 향기, 자료발굴, 시정소식, 내고장 소식, 문화원 소식, 문화원장의 문화일기 독자페이지, 새책소개, 청소년백일장	기간 : 1~12월 4×6배판 68쪽 격월 발간 3,000부	공주문화 소식지 발간	2
예인촌 초청 공연 -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공연	일시 : 2/6~2/7(2일간) 시간 : 19: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150명	예인촌 정기공연 마흔여덟번째 "마술가게"	3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일시 : 2/19 18:30 장소 : 회의실	공주문화원 2009 이사회	4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일시 : 2/26 18: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공주문화원 2009 정기총회	5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심성개발과 정서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 을 제공 ①국선도반 ②가야금 ③풍물 ④댄스프로조반 ⑤요기반 ⑥가곡반 ⑦서예사군자반 ⑧김편이반 ⑨덕종이종이집기 ⑩사진반 ⑪오키리나반 ⑫생활중국어 ⑬다도반 ⑭POP반 ⑮수묵화반 ⑯독서논술지도반 ⑰미니어처반 ⑱전통조각반(규방공예반) ⑳한국무용반	일시 : 2/18~7월 (주1회~2회)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참석인원 : 250명	공주문화원 상반기 지역문화학교	6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선출 방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임시총회 일정 확정 의 건	일시 : 4/27 18:30 장소 : 회의실	공주문화원 2009 이사회	7
임원선출 방법의 법	일시 : 5/4 17:00 장소:회의실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8

공주문화원

공주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9 제14회 "효" 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일시 : 6/11 14:00 장소 : 공산성 쌍수정광장 참석인원 : 800명	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효 사상을 선양 고취시키고 문학의 저변확대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공주 세거(世居) 경주이문(慶州李門)의 학문과 사상 교찰에 대한 학술세미나	일시 : 10/25 시간 : 10:00~16: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17 공주 세거(世居) 경주이문의 학문과 사상 교찰
10 제14회 "효" 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상식	일시 : 6/19 15: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참석인원 : 100명	-백일장 시상식 -참가대상 : 공주시 초·중·고학생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의 체험을 통해 창의력 개발과 우리문화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전승보급	10/27, 3시, 교동초등학교 10/28, 2시, 치료감호소 10/30, 2시, 누리재활원	18 2009년도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
11 경산 정재욱 공주문화원장 퇴임기념 문화가족展	일시 : 6/26~7/1 장소 : 공주문화원 제1전시실 참석인원 : 100명	-향토작가초대 이화영, 권영대, 유석근, 신현국, 유순식, 김혜식 이종철, 나태주, 박홍규, 신용희, 이일권선생의 작품 30여점이 전시	지역문화학교 수강생들의 발표회 및 수료식수여	일시 : 11/2 19:00 장소 : 문화원 강당	19 2008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발표회 및 수료식
12 공주문화원장 이.취임식	일시 : 7/1 15:0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제14대 정재욱 원장 이임식 -제15대 나태주 원장 취임식	지역문화학교 사진, 서예사군자반 전시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일시 : 11/2~11/6 장소 : 문화원 제1,2전시실	20 지역문화학교 사진, 서예사군자반 수강생 작품전시
13 공주문화원 하반기 지역문화학교	일시 : 7/1~10-31(주1회~2회)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회의실, 놀이마당, 문화사랑방, 전시실 참석인원 : 250명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로 문화삼성개발과 정서 함양 및 문화예술 감성훈련을 통하여 계층간 문화수 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 ①국선도반 ②풍물반 ③댄스스포츠반 ④오기반 ⑤가곡반 ⑥사진반 ⑦서예반 ⑧생활일본어반 ⑨덕종이반 ⑩오기리나반 ⑪중국어반 ⑫ 다도반 ⑬한국무용반	지역문화 닥종이반 전시 수강생 및 강사들의 작품전시	일시 : 11/11~11/15 장소 : 문화원 제2전시실	21 지역문화학교 닥종이 수강생 작품전시
14 2009 공주문화원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일시 : 8/22(토), 8/29(토) 8/30(일), 9/5(토) 장소 : 경북국립민속박물관 인사동	향토문화유적 순례답사를 통하여 공주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 유적에 대한 애호의식을 일깨워 주고 지식을 함양,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유적답사	-공주 남평문씨와 문충숙공의 사적에 문중에 대한 학술세미나	일시 : 11/17 10:30~17: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22 공주 남평문씨와 문충숙공의 사적
15 公州(公山) 李氏와 명탄서원	일시 : 9/19 시간 : 11:30~17:30 장소 : 공주문화원 강당	-公州(公山)李氏 문중에 대한 학술세미나	에인촌 초청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에게는 볼거리 제공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공연	일시 : 11/19 19:30 장소 : 공주대백제교육문화회관	23 에인촌 정기공연 마흔아홉번째 "곰나루전설"
16 웅진백제 四大王후모제	일시 : 10/9 시간 : 11:00 장소 : 송산리 고분지역	-웅진 백제시대 4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가리는 추모제향	에인촌 초청공연 -예술인에게는 발표기회를, 시민에게는 볼거리 제공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극공연	일시 : 12/1 19:00 장소 : 공주문예회관 참석인원 : 150명	24 에인촌 정기공연 쉰번째 "강나영의 열린콘서트"

공주문화원

금산문화원

25

공주문화원초대전 "임림"

세부사항
일시 : 12/4~12/10
장소 : 문화원 제1전시실

사업내용
공주문화원 작가초대



1. 지역문화학교 시진반 전시회
2. 남평문씨 학술세미나
3. 제14회 공주시 학생백일장
4. 문화유적답사
5. 지역문화학교 수료식
6. 문화원장 이취임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 "신음산 자락 마을이야기" 발간	조사지역 : 금산의 전지역	금산의 민속발굴 1
- 금산문화원형체험 사업	일시 : 1~12월 금산문화원형체험 사업	2
문예창작, 서예강좌(기초), 한국화(기초), 판소리(기초)강좌를 통해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일시 : 3~8월 장소 : 금산문화원 강좌수 : 4개강좌	문화학교운영 2
문화학교 초급반을 이수한 회원들로 구성된 고급과정 서예 전시회 개최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서예동호인단체, 금곡서회회원 참여인원 : 40명	금곡서회 3
- 문화학교 초급과정을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된 고급 과정 - 한국화 전시회 개최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한국화 동호인 단체, 창현회원 참여인원 : 20명	창현회 4
금산문화예술제 노래모임 풍각쟁이의 국악공연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판소리, 민요 동호인 단체 참여인원 : 20명	풍각쟁이 5
- 달과 불 그리고 풍물을 주로 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마을축제로 육성 - 인삼, 약초와 연계 겨울 관광문화축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일시 : 2/8 (1일간) 장소 : 금산을 양지리 장동마을 참여인원 : 20,000명	장동달맞이축제 6
100여만평의 신빛꽃자생단지에서 꽃길여행, 민속공연 등 자연 친화적인 축제 구성	일시 : 4.18~19일(2일간) 장소 : 군북면 산인리 참여인원 : 30,000명	비단골산꽃축제 7
금산농악판굿, 물떼기농요, 농바우꼬시기 등 공연 금산의 민속체험 마당 가족과 함께 하는 추억만들기 마당	일시 : 7.25~26일 장소 : 부리면 평촌리(금강놀이마당) 참여인원 : 20,000명	금강민속축제 8

금산문화원

금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금산풍물축제	일시 : 12/31 장소 : 금산군 신대리 (진택스광장) 주관 : 금산농악보존회 참여인원 : 20,000명	- 금산농악 매굿과 큰기울리기, 제야의 중소리, 촛불켜기, 불꽃놀이, 초청공연 등
10 삼꽃문화사랑	일시 : 3~12월 장소 : 금산군 일원 참여인원 : 200명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마당
11 개동벌레와 함께하는 용강풍류전	일시 : 6/13 장소 :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참여인원 : 500명	- 용강풍류전, 개동벌레와 함께하는 풍류여행, 생태전시회 - 자연과 문화 마을 사람이 중심이 되는 21세기형 생태문화관광축제
12 금산문화예술축제	일시 : 11/20 ~ 23 장소: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청산아트홀 참여인원 : 800명	문화의 달을 기념하는 금산문화예술제로 미술, 서예전시회 및 출판기념회 개최
13 금산인삼굴합창단	일시 :12/18 장소 : 금산다락원생명의집(대공연장) 참여인원: 800명	- 정기연주회 개최 - 군민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14 금산민속연보존회	일시 : 1월~12월 장소 : 장동달맞이축제 기타 축제의 현장, 금산문화를 홍보 하는 장소 참여인원 : 20명	연 띄우기, 연만들기 체험교실운영, 연 전시회 등 연의 축제
15 농바우꼬시기보존	일시 : 1월~12월 대상 : 농바우꼬시기보존회	농바우꼬시기보존회 공연
16 물페기농요보존	일시 : 1월~12월 대상 : 물페기농요보존회	물페기농요보존회 공연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산꽃시동인지 발간사업	산꽃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수록	산꽃시 시사랑 발간사업 17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좌도시동인지 작품 및 특집수록	좌도시동인지 발간사업 18
- 그룹사운드 「파랑새」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실용음악 보급사업 19
- 각종축제 금산동물굿공연 - 금산문화원학교 초급과정 이수한 회원으로 구성 고급반 과정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대상 : 나아내풍물단 참여인원 : 40명	금산주부풍물 보급사업 20
- 사물놀이 토리패	사물놀이 기능 전수와 여가문화 창출	토리풍류 보급사업 21
- 매주 오후 문화원을 개방 토리패 풍물단 운영 및 지도	일시 : 1~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 : 40명	청소년토리풍물단 22
군민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통하여 문화향수권신장	일시 : 3 ~ 12월 장소 : 금산문화원 참여인원 : 150명	문화소모임(동아리) 활동 23
금동인(미술), 금목회(서예)전시회	일시 : 11.20~23일 장소 : 청산아트홀 전시장	전시회 24

금산문화원

논산문화원



1. 금산문화예술축제
2. 산꽃나라 산꽃여행
3. 임동창-20공연
4. 장동달맞이 축제
5. 취향풍류전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논산시 기관, 단체장과 시민이 참석하여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다과회 및 선물 추첨식을 함.	일시 : 1/2 14:00~ 장소 : 논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참가인원 : 약 200명	2009신년교례회	1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아름답고 유서 깊은 문화유적지를 답사하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함.	기간 : 2009년 연중 장소 : 돈암서원, 논산령재고택, 중학원 등 참가인원 : 연인원1,000명	예학의 고장 논산의 뿌리를 찾아서	2
논산시 줄다리기 및 제기차기, 연날리기 대회 개최,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팽이치기, 투호, 윷놀이, 소원빌기, 가훈씨주기, 고구마와 가래떡 구어 먹기,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됨.	일시 : 2/7 14:00~ 장소 : 연산 체육공원 참가인원 : 약 600명	제7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3
온 가족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가족백일장을 마련한 가운데 문화예술 공연과 백일장을 실시하여 심사 및 시상 함.	일시 : 4/25 장소 : 건양대 캠퍼스 참가인원 : 약200명	제3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4
나.당연합군과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가 최후의 결전을 벌인 논산의 황산벌 전투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정립의 계기 마련.	일시 : 4/29 장소 : 논산시청 상황실 참가인원 : 약150명	황산벌 전투 조명 학술대회	5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통 색한지 공예를 통해 건강은 물론 세대간 공동수업으로 소통의 장 마련, 축제 참가 등	기간 : 5월~10월 장소 : 부창동 야학실 참가인원 : 20명	2009어르신 문화학교 전통 색한지에 담긴 실버공예가의 꿈	6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주관으로 노인회에 참가신청한 각 읍면동 선수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입상자 시상함.	일시 : 6/11 08:30~ 장소 : 놀외새마을금고 4층 강당 참가인원 : 150명	제10회 논산시읍.면.동 어르신장기대회	7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경의 역사 교육과 백일장, 옛 모습 사진담기, 그림그리기 등을 실시하고 전시회를 개최함.	기간 : 7월 ~ 8월 장소 : 청소년수련관, 강경일원 참가인원 : 약250명	강경포구의 옛 명성을 찾아서	8

논산문화원

논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제4회 청소년문화제	기간 : 7/10~7/18 장소 : 문화원, 남부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1,500명	논산시 호 글짓기 공모, 문화재 그림 입상작 전시회, 청소년을 위한 푸른 음악회,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무대로 '내마음의 푸른꿈' 등을 개최함.
10 독서의 달 행사	기간 : 9~10월 참가인원 : 100명	독서의 달 가을을 맞이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후감을 공모하여 심사, 시상함.
11 제20회 논산시 서예회호대회	일시 : 9/26 10: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참가인원 : 약 150명	논산시서예협회 주관으로 학생, 일반인이 참가하여 서예의 기량을 발휘하고 서예작품 전시 및 시상함.
12 내 고장 이야기 그림책 만들기	기간 : 9~12월 장소 : 노성 자연체험학교 토감 참가인원 : 20명	고장의 옛 이야기들을 소재로 마을 어른신의 재미있는 이야기 구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자연미술활동 체험과 나만의 이야기 그림책을 제작함.
13 제3회 충남시낭송의 밤	일시 : 10/30 18:3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인원 : 약200명	논산문화원 주관으로 도내 문화원이 추천한 시낭송가의 낭송, 국악실내악과 판소리공연 및 신달자, 정호승 시인의 초청강연으로 가을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뜻 깊은 행사가 됨.
14 논산시민과 함께하는 깊어가는 가을 음악회	일시 : 11/6 장소 : 건양대학교 관람인원 : 약1,300명	충남 교향악단과 장사익 씨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시민이 관람한 가운데 문화예술을 향유
15 계간지 논산문화	봄호 발행일 : 4/1 여름호 발행일 : 7/1 가을호 발행일 : 10/1 겨울호 발행일 : 2010/1/1	2003년 봄호부터 새롭게 창간 된 논산문화는 논산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며 연4회 계간지로 발간하여, 각 기관 및 단체, 학교, 도서관, 전국의문화원, 문화원 회원 등 여러곳에 배포하고 있음.
16 논산문에 제17집	발행일 : 2009.9 발행부수 : 500부	제24회 청소년 백일장 공모전의 입상작들을 엮어 발간 및 배포함.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원문을 번역하고 실록의 이야기를 담아 차년도에 발간할 예정.	기간 : 연중 참여인원 : 5명	조선왕조실록 논산편 원문 번역 및 조사수집 17
2005년~2006년에 걸쳐 15개 읍 면동의 자료수집 및 사진촬영 등 을 모두 마치고 읍면동별 발간중.	참여인원 : 50명 발행부수 : 4곳×500부	읍·면·동지 발간 18



1. 제3회 논산시 가족백일장
2. 2009 어르신문화학교
3. 제4회 청소년문화제
4. 제7회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1 대보름 민속행사	일시 : 2/10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400여명	정기총회 및 율놀이 등 대보름행사로 민속놀이를 재현하고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 마련	남이흥 장군의 애국 애족과 살신위국을 본받는 백일장 시상 (대상, 금상, 은상2, 동상3, 장려상6)	일시 : 10/24. 11시 장소 : 도이리 총장사 경내 참석 : 300명	남이흥장군문화제 학생백일장 9
2 2009 정기총회	일시 : 2/10 장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2008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세입세출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승인의 건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를 수록 발행	일시 : 8/30 발행부수 : 2,000부	당진문화 31호 발간 10
3 임시총회	일시 : 11/19 장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당진문화원장 임기만료에 따른 원장 선거	문화원 소식 및 지역문화소식과 정보를 수록 발행	일시 : 12/30. 예정 발행부수 : 2,000부	당진문화 32호 발간 11
4 1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6/26 장소 : 남양주 홍유릉, 몽골문화촌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행사 (유화, 수채화, 연필인물화, 문인화, 종이접기)	일시 : 11/5 14시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400여명	수강생발표회 12
5 2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7/2 장소 : 남양주 홍유릉, 몽골문화촌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지역민의 문화감수성을 위한 야외 음악회 개최(색소폰연주)	일시 : 4/23, 20:00 장소 : 문예의전당 야외공연장 참석 : 300명	야외음악회 13
6 3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9/17 장소 : 아산 외암마을, 천안웰빙엑스포 참여인원 : 8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정정희문화원장의 문화예술담당 공무원이 중국 류양시를 방문하여 불꽃축제 등 문화행사 견학	일시 : 5/23 장소 : 중국 류양시	해외문화교류 14
7 4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10/29 장소 : 청양 모덕사, 충남문화예술제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LA교민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민속품 전시회 협의	일시 : 6/12~20 장소 : 미국 LA 문화원	미국문화교류 15
8 5차 향토문화 유적탐방	일시 : 11/17 장소 : 고창 선운사, 미당시문학관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속공예품을 발굴하여 전시함(조선시대 노리개, 비녀, 머리꽃이, 가락지, 실배, 안경 등700여점의 작품)	개막일시 : 4/23 19:00 전시기간 : 4/23 ~ 5. 2 장소 : 문예의전당 전시관 참석 : 1,500명	전통민속품 전시회 16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17	문화예술 강좌 육성 (18개 강좌)	노래교실, 생활영어, 일본어, 수채화, 유화, 문인화, 연필인물화, 고전무용, 댄스스포츠, 단전호흡, 건강택견, 민요장구, 민속놀이, 종이접기, 이혈테라피, 풍수지리, 시낭송, 오카리나	결혼이주여성 바느질 교육	일시 : 2월~11월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주 1회(20명)	결혼이주여성 문화교육 25	
18	외국어 및 문화이해 지도사 양성교육 (결혼이민자)	일시 : 2009. 1/6 ~ 2009. 2/11 참여인원 : 27명	당진 거주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이해 교육 및 다양한 문화를 전파하는 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 양성교육 실시 소외계층지원사업	캄보디아 프놈펜 및 앙코르왓의 문화를 4박5일 간 체험	일시 : 3. 5~9 장소 : 캄보디아 참여인원 : 30명	해외문화탐방 26
19	국립중앙박물관 탐방	일시 : 2/24 장소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참여인원 : 40명	국립중앙박물관 찾아 한국의 역사, 문화재를 체험	아시아 줄다리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 (발표자 15명) - 일본 5명 - 중국 2명 - 국내 8명	일시 : 4. 11 10시 장소 : 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참여인원 : 400명	아시아줄다리기심포지엄 27
20	여성사 전시관 탐방	일시 : 3/24 장소 : 서울 대방동 여성사전시관 참여인원 : 결혼이주여성 40명	여성사전시관을 찾아 한국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	민요, 가요, 풍바, 풍물공연, 건강검진, 영정사진찍기	일시 : 1. 7 장소 : 남부노인복지관 참여인원 : 200명	1차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공연 28
21	1차 문화예술 체험	일시 : 5/13 장소 : 태안 백화산, 안면도 꽃 박람회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가요, 국악, 무용, 컴퓨터 1대 선물	일시 : 1. 18 장소 : 평안마을 참여인원 : 200명	2차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공연 29
22	2차 문화예술 체험 (어르신계층)	일시 : 5/15 장소 : 태안 백화산, 안면도 꽃 박람회 참여인원 : 40명	관내.외 문화유적을 탐방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험	민요, 오카리나, 가요, 악단 공연, 영정사진 찍기	일시 : 1. 28 장소 : 당진문화원 참여인원 : 200명	3차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공연 30
23	여성과 이주 전시회	개막일시 : 7/7 14:00 전시기간 : 7/7~7/18 장소 : 당진문화원 참석 : 600명	한국의 여성, 이주 여성들의 역사와 관계된 여성사 전시관 작품 및 당진 거주 이주여성들의 작품 전시	김장 담그기, 떡 메치기, 우리콩 손두부 만들기 지방문화원 특성화 사업	일시 : 11. 24 장소 : 울리고 마을 (당진군 신평면) 참여인원 : 30명	1차 내 고장 체험 31
24	땡땡 땡 어른신문화 학교 '늘푸른악단'	일시 : 5월~11월 참여인원 : 약 10,000명	당진문화원의 늘 푸른악단이 각종 행사 및 장날 음악회 등 약 20여회의 연주활동 진행 2009지방문화원어른신문화학교	천연비누 만들기로 신종플루 퇴치하기, 허브향초 만들어 명상하기, 화분에 허브심기	일시 : 11. 25 장소 : 차브민(당진군 송산면) 참여인원 : 40명	2차 내 고장 체험 32

당진문화원

당진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33 3차 내 고장 체험	일시 : 11/26 장소 : 오두막, 짚토전통 문화체험관 (당진군 석문면) 참여인원 : 40명	해나루 쌀로 떡 만들기, 짚토 공예 감상하기, 쫄대·머그진 만들기
34 4차 내 고장 체험	일시 : 11/28 장소 : 충장사 (당진군 대호지면) 참여인원 : 40명	충장사 유물견학, 충장정 국궁(활쏘기), 투호놀이, 새총쏘기, 쌀 도정·농사체험
35 명사시낭송회	일시 : 12. 8. 17:00 장소 : 당진문화원 공연장 참여인원 : 200명	지역의 명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을 위하여 시를 읊고 2009년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함.



1. 2009년 이충장군 축제 학생 백일장 시상식
2. 해외문화탐방
3. 아시아 줄다리기 심포지엄
4. 명사 시낭송회
5. 전통민속품전시회
6. 향토문화유적탐방
7. 여성과이주전시회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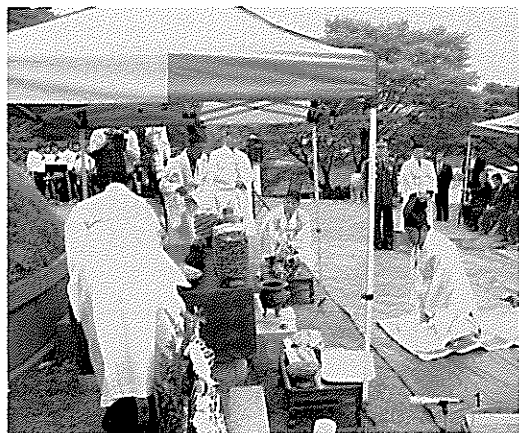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해맞이	일시 : 2009. 1/1 07:00 장소 : 성주산 일출전망대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령시민 2,000명	시민화합 농악놀이, 새해소망기원 축사낭송, 복 선물 증정, 축하공연, 떡국나누기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11만 보령시민 안녕과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신년교례회	일시 : 2009. 1/2 11: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문화회원 300명	2009년 기축(己丑)년을 맞이하여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화합과 하례의 덕담을 나누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다짐
3 정기총회	일시 : 2009. 2/26 11: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2008년도 사업결산,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기만료 임원 선출과 연도 결산 및 신년 예산안 승인
4 3.1독립만세 재현 항일애국지사 추모식	일시 : 2009. 3/16 10:30 장소 : 주산면사무소 광장 주산 시가지 일원 참석 : 기관, 단체장, 유족, 지역 주민, 학생 등 500명 1부 : 기념식, 2부 : 시가행진 및 재현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높였던 우리고장 항일 애국지사의 거룩한 희생과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기념식을 거행
5 명사 초청 문화강좌	일시 : 2009. 5/13 14:00 장소 : 대천문화원 대강당 강사 : 김남조 시인 주제 : 귀중한 나날, 희망의 문학	명사초청 문화강좌 개최로 지역문화발전 도모
6 민속대제전 참석	일시 : 2009. 5/15 장소 : 논산시 연무읍 종목 : 씨름, 줄다리기, 줄넘기, 협자랑, 제기차기, 널뛰기	우리전통민속놀이 계승발전 및 시·군간 민속예술 교류 활성화로 도민화합
7 문화가족 문화유적 답사	일시 : 2009. 4/27 장소 : 안면도, 태안 안흥진성	문화원 회원, 문화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리고장 문화의 역사성을 바로 알려 향토문화 가꾸기의 장으로 발전시키코자 함
8 추석맞이 우리민속체험	일시 : 2009. 9. 22 장소 : 대천애육원 내용 : 추석 차례 상 진열 및 차례 법 교육, 전통예절교육, 송편 만들기 등 체험 행사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변화로 잊혀져가는 전통제례예절 및 민속놀이 행사 개최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추모하고자 함	일시 : 10/22 11:00 장소 : 청소면 재정리 장군 묘역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령시민 500명	백야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9
1부 추모제향 행사 2부 추모의식행사, 오찬 장군의 애국 충절 정신을 후손들이 길이 받들고 추모하고자 함	일시 : 11/1 11:00 장소 : 청라면 라원리 장군 묘역 참석 : 유관기관 단체장 및 보령시민 300명	도만호 김성우 장군 추모제향 행사 10
문화원 문화학교 회원들의 자기기량 발휘 기회제공 및 문화학교 수강생 자기양양과 시민에게 볼거리 기회를 제공	일시 : 12/9~11 장소 : 대천문화원 2층 소강당 출품 : 서예, 한국화, 서각, 사진	문화학교 회원 작품전시회 11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 향토문화유산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 부여를 통해 우리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	일시-2009. 12월 예정	소외지역 청소년 문화탐방 12
문화소외계층 주민들에 대한 우리고장 문화유적 답사	일시 : 11/1 답사지 : 충청 및 호남지역 문화유적	지역주민 우리고장 문화유적답사 13
보령지역의 향토사학 자료 및 미발굴 향토사료 등 자료 수집 기록보존하고 문화예술행사 등을 수록한 애항지 발간 배포로 우리고장을 바로 알고 새로운 이해 도모	자료수집 및 편집 : 향토사조사연구위원회 자료조사내용 : 향토사학자료 및 보령의 문화예술 자료 기록 보존 2009. 12월 발간 예정	애항지 12집 발간 14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예술적 감성과 미적 체험을 진작시키며 전래의 미풍양속인 중요사상을 일깨우는 지역 미술백일장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	일시 : 11/13(금)~ 11/30(월) 참가대상 : 보령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제34회 청소년 미술·서예·백일장 공모전 15
문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강좌 운영	강좌 : 한국화, 서예, 가야금, 국악, 일본어, 사진, 한문, 서각	문화학교운영 16

대천문화원

대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보령의 금석문대계발간	금석문 자료집 발간 2009년 중 사업	대남해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8호) 등 많은 금석문 자료를 찾아 탁본 정리 번역하여 향토사학 자료로 활용하고 기록 보존
18 어르신 문화학교	판소리 다섯마당 제대로 배우기 매주 월요일 15:00	판소리 다섯마당 및 단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실기를 익혀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판소리를 보급하는 데 기여토록 함
19 우리고장바로알기 교양강좌	매주 목요일 19:30 월 1회 답사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을 바로 알리고 향토문화유적의 새로운 이해와 우리 문화유산의 귀중함을 알리는 계기 부여
20 역사바로알기 보령주부모임	매주 월요일	문화유적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학습을 하고 월 2회 현장 답사를 통하여 우리 문화유적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관내 여성들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제인식시키고 의식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도내 다양한 문화유적을 체험



1.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2. 3.1독립만세 재현
3. 문화유적답사
4. 추석맞이 우리민속 체험행사
5. 우리고장 바로알기 교양강좌 답사
6. 해맞이
7. 명시조청강연회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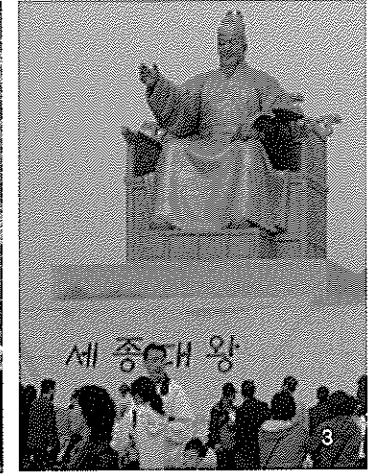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어린이 역사교실	기간 : 2009. 4/26~11/14 장소 :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100여명	군내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월1회 사적 답사 및 문화체험
2 제7회 시인 신동엽 추모백일장	기간 : 2009. 4/16(목) 장소 : 구드래 조각공원 참여인원 : 400 여명	우리고장 출신인 신동엽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충남도내 청소년 대상 백일장
3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순례강좌	기간 : 2009. 1/9~1/1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40여명	군내 초·중·고 교사의 향토사 연구를 위한 문화유적 현장 답사
4 문화현장탐방교육	기간 : 2009. 5/14~10/26 장소 : 전국문화현장 참여인원 : 360명	문화원 회원의 교양증진을 위한 안면도꽃박람회, 서울중모,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 인천대교, 광화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등 답사
5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한아름교실	기간 : 2009. 6/21~11/22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160여명	가족단위 사적답사, 자연체험, 전통민속놀이, 각종 공연 등 문화체험 활동 전개
6 명사와함께하는 부여답사	기간 : 2009. 10/25~11/16 장소 : 전국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160여명	전국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과 함께 군내 문화유적지를 답사
7 향토민속발굴사업	기간 : 2009. 3/10~12/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만여명	부여 세도지역에 전해오는 백제농요 산유화가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간
8 2009 문화학교	일시 : 2009. 6/1~12/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00명	군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한국화, 일본어, 목공예강좌, 금속공예교실 운영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우리고장 출신인 중앙부처 공무원과 우리군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관내 문화유적 답사	기간 : 2009. 7/11 장소 : 부여군 문화유적 참여인원 : 50여명	백제역사문화탐방 9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에 연꽃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을 진하고 8개 분야 총 44개 종목의 메인프로그램 2개, 공연프로그램 14개, 경연프로그램 3개, 상설프로그램 25개(전시, 체험) 등을다채롭게 운영함.	일시 : 2009. 7/10~7/19 장소 : 궁남지(사적135호) 참여인원 : 50만여명	제7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10
고려시대 왜적격퇴의 3대 승리인 홍산대첩 관련행사, 최영장군 관련행사, 전통문화행사, 보부상관련행사 등	기간 : 2009. 4/11 장소 : 홍산면 태봉산성 참여인원 : 2천 여명	제7회 홍산대첩 문화제 11
새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촛불기원, 새해소망 기원제, 소원지 풍선날리기, 새해운수보기 등 실시	기간 : 2009. 1/1 장소 : 임천면 성흥산성 참여인원 : 4,000명	제10회 성흥산 해맞이축제 12
축제·관광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포지움을 개최 「부여 서동연꽃 축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함.	기간 : 2009. 2/20 장소 : 여성문화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200명	부여서동연꽃축제 활성화를위한 심포지움 13
매주 일요일 짝수 토요일에 정례적으로 투어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관광객에게양질의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백제왕도 이미지를 부각함.	기간 : 2009. 3/1~11/29 장소 : 부여문화유적지 참여인원 : 1,680명	2009 부여투어 버스운행 14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언어문제, 생활습관 및 문화적 이질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미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교실, 문화유산체험 등의 교육 실시	기간 : 2009. 3/21~12/12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60명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 교실 15
1930년 출생하여 1969년 4월 7일 간암으로 별세하기 까지 수많은 명작을 남기어 2003년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이 추서되고 2005년 에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시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그의 문학 정신과 삶을 추모하는 기념행사로 문학의 밤, 문학기행, 명사와함께하는 시낭송회, 추모제 등 다채롭게 운영함.	기간 : 2009. 4/11~4/30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000명	시인 신동엽 40주기 추모문화제 16

부여문화원

부여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신년교례회	기간 : 2009. 1/2 장소 : 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500여명	희망찬 새해를 맞아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세배, 축하행사, 신년교례회 명부등 발간
18 지방문화원 어른신문화학교	기간 : 2009. 6/3~11/25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30명	노년세대들의 전통민속놀이를 자라나는 청소년과 관광객에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지도사를 양성함.
19 부여백제정원박람회 세미나	기간 : 2009. 4/17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대강당 참여인원 : 300명	부여 백제정원 박람회의 장기적인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박람회를 계기로 부여군을 주말 전원 휴양도시로 육성 방안모색
20 제1회 부여정원축제	기간 : 2009. 7/3~7/5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10만명	백제가 남긴 최초의 정원문화의 상징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정원을 통한 저탄소 녹색의 공간을 조성하여 서동공원 공남지를 관광명소화하고, 정원축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창출하고자 함.
21 관광정보센터운영	기간 : 2009. 1/1~12/31 장소 : 부여문화원 참여인원 : 8,000여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에게 관광정보 제공, 유적지 현장설명 등 실시



1. 제10회 성흥산 해맞이축제
2.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
3. 문화원장 탐방교육
4. 제7회 부여 서동 연꽃축제
5. 어린이역사교실 경주방문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서산의 민속신앙과 마을제 영상자료 제작	일시 : 1~8월 수량 : 5종	지역내 전해지고 있는 마을의 민속신앙과 마을제를 원형 그대로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영상물 제작
2 직암문집 번역	일시 : 연중	성균관 박사를 지낸 직암 아철승 박사의 문집을 번역발간함
3 문화가족 한마음잔치	일시 : 9/4 장소 : 서산문화원 대상 : 문화원 회원 및 문화가족 인원 : 300명	회원과 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의식을 제고하는 대화마련
4 문화유적현장학습	일시 : 5/22~23 장소 : 부산 대상 : 이사 및 대의원 인원 : 25명	문화재 보존과 역사현장을 답사하고 문화재 보호의식과 주체성을 제고
5 서산문화대상 시상	시상일 : 12/1 수상자 : 김낙중	향토문화 예수진흥에 공이 많은 인사를 발굴하여 시상
6 청소년문화상 시상	시상일 : 12/1 인원 : 3명(초,중,고 각1명)	효행, 예행, 선행을 실천한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
7 서산의문화인물 기념행사	일시 : 4/30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선정인물 : 유방택 대상 : 문화학교 수강생 인원 : 35명	서산을 연구로 하는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그의 업적을 기리는 답사 개최
8 오청취당인극	일시 : 12/11 장소 : 서산문화원 대상 : 학생, 지역민 인원 : 300명	조선시대 여류시인 오청취당을 소재로 한 연극을 개최하여 서산의 인물을 현창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활성화와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일시: 연중 대상: 지역민 인원: 1,200명	지역문화학교운영 9
우리나라의 통과의례의 하나로 전통성년식을 주최	일시: 5월 18일 대상: 20세 성인 장소: 제20전투 비행단	성년례 10
외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지역민의 문화의식 제고	일시 : 5월 13일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대상 : 지역민 인원 : 500명	명사초청강연회 11
문화원 소식 및 향토사 정보지를 매월 발간	일시 : 연중 대상 : 회원 및 출향인사 발행부수 : 2,200부	스산의숨결발간 12
지역 향토유물과 역사자료를 보관, 수집하여 전시	일시 : 연중	향토사료관운영 13
조선시대 여류시인 오청취당의 문집 발간을 기념하는 초청강연회 개최	일시 : 2월 4일 장소 : 서산문화원 대상 : 문학인, 지역민 인원 : 200명	청취당집 발간기념 초청강연회 14
청소년의 문학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백일장 개최	일시 : 4월 11일 장소 : 서산문화원 일대 대상 : 초,중,고 인원 : 800명	청소년문학제 15
여성의 사회성 증진과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시 : 3~6월 장소 : 서산문화원 대상 : 성인 여성 인원 : 40명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16

서산문화원

서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충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5월 15일 장소: 논산 연무읍 인원: 50명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민속경기에 서산대표로 참여
18 노인일자리사업	일시: 2월~9월 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인원: 26명	노인인력 활용을 위해 특기를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사활동 지원
19 어르신문화학교	일시: 3월~12월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어르신 인원: 30명	실버무용단 육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지원
20 찾아가는다도교실	일시: 7월 장소: 반양초, 부춘초병설유치원, 서림복지원, 성연중학교 대상: 학생 인원: 300명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다도예절교육 실시
21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문화체험	일시: 10~11월 장소: 고파도섬 대상: 고파도 주민, 가족 인원: 200명	서산의 도서(島嶼)지역인 고파도섬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찾아가 1박2일동안 독특한 섬문화와 생태를 체험
22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일시: 3월~11월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여성 인원: 200명	여성의 직업창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23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일시: 7~8월 장소: 서산문화원 인원: 150명	어름방학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24 청취당집 재발간	일시: 11월 발행부수: 700부	서산지역을 대표하는 조선시대 여류시인 오정취당의 시집을 재 발간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을 위한 문화탐방 실시	일시: 6/21 장소: 통영 대상: 북한이탈주민 인원: 35명	북한이탈주민사업 25
백제문화제 시군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산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용대기 놀이 시연	기간: 5~10 내용: 용대기 놀이에 필요한 소품일체 구입	백제시군프로그램 26
전통 민속명절인 동지를 맞이하여 체험행사 및 동지팥떡 나눠주기 개최	일시: 12/22 장소: 서산문화원 인원: 300여명	작은설동지 27
단오절을 기념하는 여름맞이 체험행사 개최	일시: 5/30 장소: 중앙호수공원 인원: 400여명	단오한마당 28
오감을 발달 시키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는 요리체험	일시: 3~4월 장소: 서산문화원 대상: 엄마와 아동 횟수: 3회 인원: 65명	전통음식체험 29



성년례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

1. 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회
2. 오창취당 강연회
3. 단오한마당
4. 문화유적현장학습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문화프로그램으로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수 있도록 기초한문(천자문, 논어, 맹자, 대학, 중용)교실,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일시 : 2009. 1~12월 장소 : 문화원 회의실 참석인원 : 20여명	문화교육프로그램 1
장승세우기(장승제), 길놀이, 창작연 날리기대회, 전통놀이 한마당, 숲놀이대회, 대보름 전통 체험프로그램(부럼, 액마기체험, 연만들기) 투호 및 인절미 떡치기, 보름음식나누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함.	일시 : 2009. 2/7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 1,000여명	제11회 기벌포 대보름제 2
신석초 문화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36회 서천문화원 청소년문예백일장과 제9회 신석초백일장을 연계하여 초등부, 중, 고등부 글짓기, 그리기, 붓글씨 등 3부문으로 개최하여 심사후 추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함.	일시 : 2009. 6/5 장소 : 신석초시비일대 참석인원 : 200여명	제36회 청소년문예백일장 제9회 신석초백일장 3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안면도 꽃박람회 및 태인지역의 흔적을 찾아 그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옛 선인들의 생활상들을 돌아봄으로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었음	일시 : 2009. 5/22 장소 : 안면도꽃박람회 참석인원 : 80여명	상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4
서천군민과 회원가족들을 대상으로 백제문화탐방(부여, 공주, 논산)의 흔적을 찾아 그지역의 역사와 유적지, 옛 선인들의 생활상들을 돌아봄으로 선인들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었음	일시 : 2009. 10/17 장소 : 부여, 공주, 논산 참석인원 : 40여명	하반기 문화가족유적답사 5
신석초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석초의 삶과 문학세계에 대한 제1부 학술대회를 열어 재해석하고 재조명, 제2부 신석초 묘역 시비 제막식을 개최함	일시 : 2009. 11/7 장소 : 서천문화원 참석인원 : 150여명	학술대회 신석초 "삶과 문학세계" 학술대회 6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며 서천군내의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천문화원에서는 작은 영화관이나마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음. 가족영화를 우선으로 선별하여 상영하고 있음	일시 : 2009년 1~12. 장소 : 서천문화원 상영 : 매주 금 오후7시	작은영화관운영 7
신석초 탄생 100주년 기념 한시백일장을 개최하여 신석초 시인을 기리며 한시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세에 전하여 남기고자 함	일시 : 2009. 6/4 장소 : 서천문화원 참여인원 : 50여명	신석초 시인 추모 한시백일장 8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강상원 초대전	일시 : 2009. 9/19~29 장소 : 서천문화원 참여인원 : 500여명	서천군 출신 작가 초대전 공모하여 "강상원 개인초대전" 40여 작품을 전시하여 작품속의 작가 이야기를 감상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음 초대전이 이어져 나가는 발전된 서천의 미술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함.
10 여러 가지색 조각 조각전	일시 : 2009. 10/16~22 장소 : 서천문화원 참여인원 : 40여 작가	서천의 작은 마을에서 서천군과 대전시의 작가 공동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색이지만 후에 무지개빛이 나는 큰 이야기가 되고 아름다운 마을의 주춧돌이 되고자 함.
11 학술연구사업 "서림풍아 및 시문초교" 발간	일시 : 2009. 1~12 장소 : 서천문화원 부수 : 300부	서천군의 서림시사 창설 이래로 45년간 월1회 서림시사를 열며 시를 지은 자료들을 집대성 하여 발간을 계획하고 800쪽 분량을 탈초, 번역, 편집하여 시문초교와 함께 자료집 발간을 함으로 지역에서의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함.
12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일시 : 2006~2009년 장소 : 한산동자북마을	동자북 마을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한산 소곡주'의 고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가 유·무형의 현대적 가치 생산을 통해 문화역사자원의 고유성을 활용한 지역거점마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 대보름 강강수월래 2. 대보름 장승제 3. 풍선아트 4. 한시백일장 5. 청소년문예백일장 6. 신석초회술대회 7. 금석문발간 기념발표회

성환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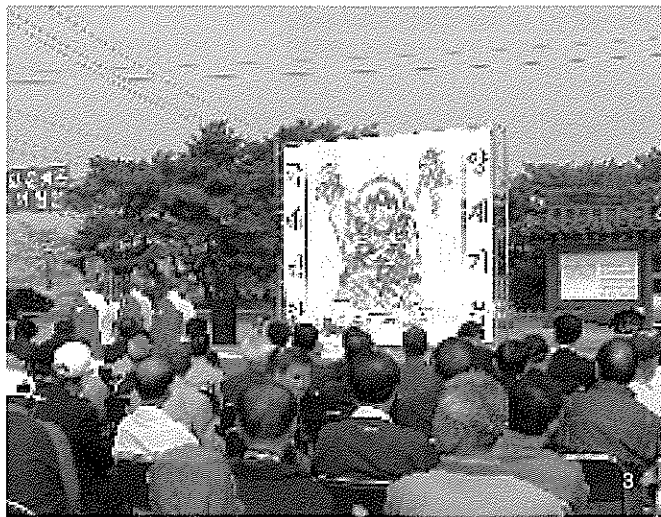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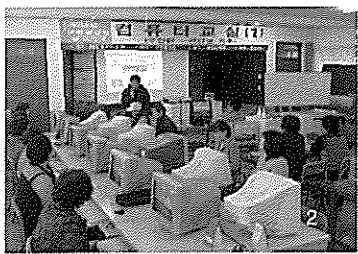
성환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세시풍속웃놀이	일시 : 2/13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100명	민속놀이를 통한 화합 단결 및 민속놀이계승 년1회
2 노인교양강좌	일시 : 2009. 3월~5월 장소 : 성환노인대학 참석인원 : 60명	건강한 노인생활 및 레크레이션 강좌 년20회
3 컴퓨터교실 (문화학교프로그램)	1회-4/1~4/21, 2회-4/27~5/18 3회-5/1~5/22, 4회-6/1~6/19 5회-10/12~10/30, 6회-11/9~11/27 7회-12.7~12.28(매주 월~금요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140명	인터넷/한글2007/엑셀 활용 교육 년105회
4 서예교실 (문화학교프로그램)	일시 : 7/22~8/11 (매주 월~금요일)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 공체지도 년15회
5 여성취미교실 (꽃꽂이강습)	일시 : 1회-3/31~5/12 2회-9/15~11/3 장소 : 본원 참석인원 : 40명	생활꽃꽂이 지도 년13회
6 문화사랑방 (지역문화홍보관)	일시 : 9/22~23 장소 : 성환역, 직산역 구내 규모 : 고정식, 이동식안내판 설치 16개	성환역과 직산역 구내에 천안의 12경 및 천안의 문화와 일반 상황등의 내용으로 안내판 제작, 게시 년중
7 제19회 내고장문화유적 답사	일시 : 4~12월 장소 : 백제문화권일원 참석인원 : 80명	유적지 답사를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함양시킴
8 사이버향토 문화원관리	일시 : 연중	http://sunghwan.cuil21.or.kr 홈페이지 운영으로 지역 정보 및 문화활동 홍보 메일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고려시대에행해졌던 도량제를 재현하여 지역민들에게 역사관과 향토사 정체성을 확립시킴 년1회	일시 : 10/23 장소 : 봉선홍경사사적 갈비앞 참석인원 : 300명	제1회 봉선홍경사지 아파트구신 도량제 9
문화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정서함양 기회마련 년3회	일시 : 2009. 11~12월 장소 : 관내학교 참석인원 : 1,200명	청소년음악회 10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강의 년5회	일시 : 11~12월 장소 : 관내학교 참석인원 : 1,000명	청소년 문화강연회 11
성환읍에 있는 국보7호 봉선홍경사지 사적갈비라는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학계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세미나 개최	일시 : 2009. 12월 장소 : 문화회관성환분관 소공연장 참석인원 : 100명	봉선홍경사 지학술세미나 12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중 전설, 설화의 조사, 보존으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기여	발행 : 12월중 발행부수 : 1,000부 (4* 6배판)	천안의 민담 (직산편) 발간 13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조사, 정리하여 발간	발행 : 2009. 12월중 발행부수 : 1,000부 (4* 6배판)	향토문화 발간 14

성원문화원

아우내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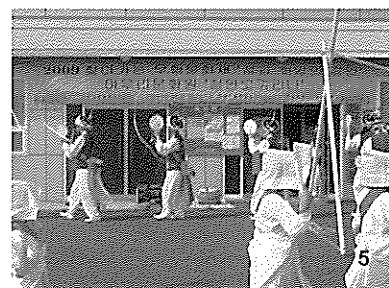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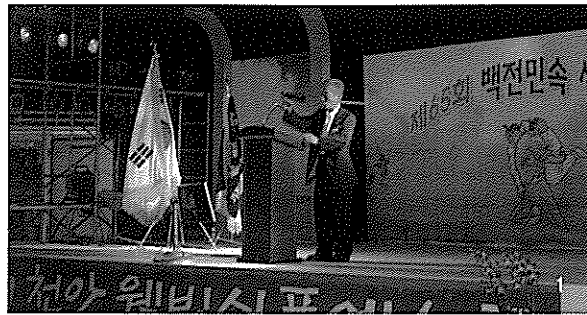


- 1. 노인교양강좌
- 2. 컴퓨터교실
- 3. 국제민간양제기복
- 4. 꽃꽂이교실
- 5. 문화유적답사
- 6. 성원신년맞이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한국문화재단(국악공연)	일시 : 2009. 10/26 장소 : 아우내문화원 앞 광장 참석인원 : 500여명	아우내문화원 문화광장 공연 1
제 35회 단오제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양민속예술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함.	일시 : 2009. 6/3 장소 : 아우내장터 시장내 대상 : 8개읍면 지역주민 2000여명	시민을 위한 공연 (평양민속예술단공연) 2
제25회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8개읍면 주민들의 화합의 계기가 되며 단오절의 의미를 선양함.	일시 : 2009. 6/3 장소 : 아우내장터내 참석인원 : 3,000여명	제25회 단오절 민속놀이 경연대회 3
60여년간 이어온 전통 민속씨름을 발전 계승하기 위한 행사임.	일시 : 2009년8월15일 장소 : 병천면 가전3리 씨름대회장 대상 : 병천면 가전리 부락 주민들	백전 씨름대회 4
김시민장군의 묘가있는 충민사 방문, 지역주민을 모집하여 대전 뿌리공원 견학	일시 : 3/1~12/31 장소 : 충북괴산 충민사, 대전뿌리공원 대상 : 아우내문화원 문화가족	문화가족 유적답사 5
실버공연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초청받아 공연을 함.	일시 : 2009. 4/1~11/30 장소 : 아우내도서관 외 3곳 대상 : 실버노인 25명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6

아우내문화원

- 1,3. 백전민속씨름대회
- 2. 문화유적답사
- 4. 오카리나 단오제 축하공연
- 5,6. 문화재보호재단공연



연기문화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새해맞이 특별공연을 통한 군민의 화합단결의 자리 마련	일시 : 1/3 10:30~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400명 대상 : 연기군민	새해맞이 특별공연	1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윷놀이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일시 : 2/14 12:00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50명 대상 : 문화예술인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	2
한국어, 요리, 우리춤, 한지공예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및 교육	일시 : 4월 ~ 11월 장소 : 연기문화원 내 참여인원 : 23명 강좌수 : 5과목 대상 : 연기군 이주여성	이주여성교육	3
제례(역대왕 및 총령) 군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	일시 : 4/15 11:00 장소 : 비암사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일반인	백제대제	4
연기군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답사	일시 : 4/28 9:00~ 장소 :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여인원 : 175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노인	경로효친의 달 행사	5
연기군 전교한 선생님들 연기군내 문화유적답사	일시 : 5/13 14:00~ 장소 : 연기군내 참여인원 : 71명 대상 : 연기군 전교한 선생님	문화유적답사 (전입선생님)	6
전통방식에 다른 우리 고유의 성년식을 지역대학생들과 실시함으로써 문화원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	일시 : 5/18 16:30~ 장소 : 고려대 농심국제관 참여인원 : 50명 대상 : 고려대학생	성년의 날 행사	7
8개읍면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효자효부를 선출함	일시 : 6/5 10:00~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8명 대상 : 연기군내 효자효부	효자효부 표창	8

연기문화원

연기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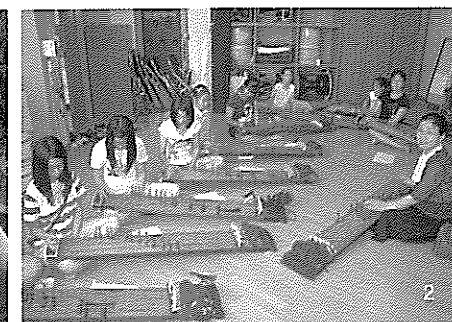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어버이날 효콘서트	일시 : 6/15 10:30~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연기군내 65세 노인	연기군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자랑하는 자리를 마련(노래, 춤, 현대춤, 합창)
10 청소년들을 위한 악기교실	일시 : 2009년 6~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15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청소년	청소년들을 위한 가야금 및 통기타 교육
11 판소리 및 가야금교실	일시 : 6~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20명 강좌수 : 28회 대상 : 연기군민	서양음악에 젖어 있는 세대들에게 우리악기를 다룰 수 있는 기회 및 우리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12 조치원문화지 발간	일시 : 2009년 7월 발행부수 : 500부	조치원문화원 활동내역 및 홍보
13 영화상영 및 특별공연	일시 : 2009년 8~12월 장소 : 연기군내 참여인원 : 700명 상영수 : 6회 대상 : 연기군민	읍면을 돌며 문화에 소외되어 살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여 영화상영을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일깨워줌
14 내고장 강산 청소년 문화해설사	일시 : 8/10~9/19 장소 : 연기문화원 및 군내 참여인원 : 50명 대상 : 연기군 초중고 학생	연기군의 강, 산에 대해 교육
15 찾아가는 무료영화상영	일시 : 8/25~9/25 장소 : 연기군내(4개면) 참여인원 : 550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군내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 연기군민들에게 영화를 보여줌
16 제2기 연기문화해설사	일시 : 9~11월 장소 : 연기문화원, 충남도내 참여인원 : 19명 대상 : 연기군민	연기군 문화해설사 교육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문화인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가지고자 함	일시 : 10월 14일(수) 11:00~ 장소 : 세종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10명 대상 : 문화가족	문화의 달 행사 17
충효의 본고장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응변대회 개최	일시 : 10월 20일(화) 11:00~ 장소 : 연기고북대첩비공원 참여인원 : 20명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학생	응변대회 18
충남도내 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일시 : 10월 20일(화) 13:00~ 장소 : 홍성일원 참여인원 : 30명 대상 : 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문화가족) 19
우리나라 7대첩 중 하나이며 국난극복의 충신을 기리는 제례	일시 : 10월 20일(화) 10:00 장소 : 연기고북대첩비공원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일반인	연기대첩제 20
충남도내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의 문화예술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창작의욕 진작 및 향토고유문화창달의 계기마련	일시 : 10월 27일(화) 14:00~ 장소 : 청양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30명 대상 : 문화가족	충남문화예술인대회 21
연기군내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위인전을 읽고 독후감 공모	일시 : 2009년 10월~11월 장소 : 연기군내 참여인원 : 40명 대상 : 연기군내 초중고 학생	독후감 공모 22
한해동안 문화원에서 배운 각교실마다 발표회를 함	일시 : 12월 03일(수) 장소 : 연기군민회관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문화가족	문화교실발표회 23
예향연기의 맥을 잇는 순수서예인들의 뜻을 같이 하여 주옥같은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	일시 : 12월 18일(금) 장소 : 연기군민회관 소강당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연기군내 서예인	연맥서화전시회 24

연기문화원

연기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5 출향, 재향 예술인의 밤	일시 : 12/18(금) 장소 : 연기군민회관 대강당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문화예술인	연기군내 출신의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기의 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코저 함
26 풍물교육 및 연습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풍물교실 참여인원 : 50명 강좌수:2과목 대상 : 일반인	매주 월~금요일까지 웃다리 풍물놀이 및 난타 교육
27 국악단 교육 및 연습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30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학생, 일반인	매주 화요일 경기민요 매주 목요일 남도민요 노래가락 및 판소리 교육
28 향토사연구활동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향토사료실 참여인원 : 35명 강좌수 : 12회 대상 : 연기향토사 연구위원	향토사료조사 연구활동 및 내고장 향토문화교육
29 주부교양 강좌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민요교실 참여인원 : 80명 강좌수 : 2과목 대상 : 주부	주부들의 교양증진 및 취미활동(다도,가요)
30 2009년 노인학교운영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댄스교실 참여인원 : 50명 대상 : 연기군내 60세 노인	연기군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 강좌 및 교육
31 독서실 운영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향토사료실 대상 : 연기군민	각종 고서적 및 월간지 주간지를 구입하여 연기군민이 문화원을 방문시 자유롭게 책을 볼수 있도록 운영
32 문화학교 운영	일시 : 2009년 1월~12월 장소 : 연기문화원 내 참여인원 : 357명 강좌수 : 18과목 대상 : 문화가족	다양한 문화 강좌를 교육함



1. 내고장강산문화해설사
2. 청소년기아금
3. 연맥서화전시회
4. "김덕수시물놀이" 공연
5. 성년의날 행사
6. 효자효부 표창 및 가족과 함께하는 노래지랑

예신문화원

예신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추사 김정희선생 서세 153주기 추모제례	일시 : 2009년11/10 장소 : 예산군 추사고택 추사묘 참여인원 : 200명	곧은 선비정신과 뛰어난 예술혼으로 예산을 대표하는 추사김정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전국취호대회는 신중글루의 여파로 비록 개최되지 못하였지만 추사선생님의 높은 뜻을 기르기 위한 예산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사제례를 봉행 하였다.
2 향토사 발굴 「대흥 임존성 연구」 발간	발행 : 예신문화원 필자 : 성부제 발행일:2008년12/31	예산 대흥 임존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예산을 담은 사람들"	전시 : 2008년12/18 장소 : 예신문화원 전시실	예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사진전으로 예산군민의 눈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서의 사진을 매개체로 한 작품전으로 문화예술이 지역민에게 한층더 가까이가는 계기마련.
4 문화가족 문화답사	1차답사 : 2009년5/8 답사지 : 안면도 꽃박람회장 2차답사 : 2009년10월17일 답사지:인천세계도시축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를 보고느낌으로서 우리지역 문화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문화참여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 마련.
5 여섯줄안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공연일 : 2009년7/14-	예신문화원 음악동아리 "여섯줄 안에서" 의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6 어린이, 청소년 발레교실	강습 : 매주 화,목요일 강사 : 강수정 선생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레강습을 통한어린이와 청소년의 품격높은 심신수련 문화창출
7 신년 교례회	2009년 1/6	예산지역 군민과 지역 단체장들과 신년 교례회를 통한 지역발전
8 한국화동아리 "예담" 전시회	2009년11/27일~11/30	예신문화원 한국화 동아리 "예담" 의 1년을 결산하는 두 번째 전시회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예산지역 주부들을 위한 주부가요 교실	매주금요일 오후2시	주부가요교실 9
노년층을 위한 악기강습 및 공연을 통한 밴드활동	매주 월요일 오후2시	애플사운드 10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장승제를 통한 마을의 우운을 비는 전통 장승제	매년 2월중	예산 대흥면 갈신리 장승제 지원 11
추사고택 뒷산에서 타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	매년3월중	예산 신암면 용궁리 산신제 12
대흥 교촌리 소재 은행나무에 마을의 안녕과 우운을 비는 전통제례	매년 1월중	대흥면 교촌리 행당제 13
마을사람을 지켜준다는 예산군 간양리 소재 덕봉산 제당에서 지내는 산신제.	매년 10월중	덕봉산 산신제 14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사회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발레 교습	매주 화,목요일	어린이 청소년 발레 교습 15
추사 김정희고장으로 많은 서예인들을 위한 서예강습을 통한 묵향의 매력속에 멋과 예를 구현하는 강좌.	매주 월,화,수	서예강좌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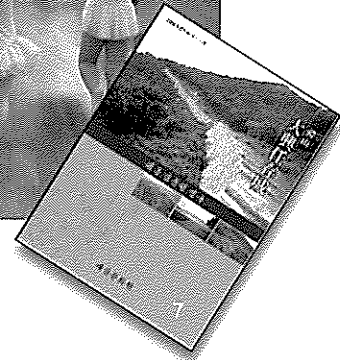
예산문화원

온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한학강좌	매주 화요일	한학 강좌를 통한 사서오경, 금석학 연구등을 통한 예산지역의 한학 및 역사연구
18 사물놀이 연구회	매주 월, 수요일	전통사물놀이 연주 및 강습을 통한 전통음악예술의 계승



1. 여섯줄 안에서 - 팀원들과 함께
2. 여섯줄 안에서 -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3, 6. 어린이 청소년 발레교실
4. 예산을 담은 사람들-애덤사진전
5. 추사 김정희선생 서세 153주기 추모제례
7. 대흥 임존성 연구 발간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2009. 1/2 11:00 장소 : 그랜드호텔 갤러리홀 참석인원 : 600여명	아산시 기관단체장과 문화가족 및 시민이 참석하여 한 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함.
2 정기총회개최	일시 : 2009. 2/11 장소 : 온양문화원 참석인원 : 98명	2008사업실적 결산안 승인 2009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3 정월대보름 민속놀이한마당	일시 : 2009. 2/9 장소 : 신정호 국민관광단지 참석인원 : 600명	정월보름을 맞아 우리민족의 밝음 사랑을 반영한 윷놀이, 연날리기, 제기차기, 엿차기 등 다채로운 행사 제공
4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일시 : 2009. 4/4 장소 : 아산시 선도중학교 및 선장면 일원 참석인원 : 500여명	아산시 관내 각급기관장,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학생, 시민들이 참석하여 아산독립만세 운동 재현 가두행진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추모제 등 실시
5 제48회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일시 : 2009. 4/28~5/3 장소 : 온양온천역및 곡교천일원 참석인원 : 600,000여명	성웅 이순신장군의 애국애족정신과 충효정신을 기리며 그 분이 일생동안 행해왔던 삶의 귀적을 참여와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함.
6 6.25전쟁발발 59주년 특별기획전	일시 : 2009. 6/23~6/28 장소 : 온양온천역2층 참석인원 : 3,000여명	6.25전쟁발발 59주년을 맞이하여 전후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
7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일시 : 2009. 8/3~8/6 장소 : 온양문화원 인원 : 관내중학생 100명	여름방학을 이용한 청소년들에게 교양강좌 및 취미생활을 실시하고, 문화유적에 대한 지식을 함양케하기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
8 가족과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일시 : 2009.7/25~9/6 장소 : 온양문화원 인원 : 매회70명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가족체험프로그램운영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하며 평생학습의 활성화 및 전통체험을 통한 선조들의 생활상을 익힘.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고향의날	일시 : 2009. 9/26 장소 : 그랜드파크호텔 인원 : 출향인사의 150명	고향인사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에 온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역인사와 출향인사 서로간의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지역문화를 위하여 관심 갖는 시간을 가진.
10 도전! 맹정승 골든벨을 울려라	일시 : 2009. 10/17 장소 : 도고중학교 인원 : 도고중학생110명	관내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에게 청백리맹정승 및 아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고불의 업적을 높이 기리고 우리 고장 문화에 관심을 고취시키며 지역 문예증흥에 기여
11 명사초청 시낭송회	일시 : 2009. 10/24 장소 : 온양문화원 대강당 인원 : 각급기관장 및 문인협회회원,시인회회원	아산시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문학인들과 함께 시낭송회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 마련
12 아산 타이핑 (소식지)발간	일시 : 2009. 3/28 배부처 : 문화가족및출향인사 부수 : 1,000부 일시 : 2009. 7/7 배부처 : 문화가족및출향인사 부수 : 1,000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을 매분기 발간하여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아산과 온양문화원의 소식, 향우회 소식을 문화가족과 시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부
13 이사회 개최	일시 : 2009. 1/29 장소 : 온양문화원(2층) 참석인원 : 26명 당면업무 협의	당면업무 협의
	일시 : 2009. 5/12 장소 : 온양문화원(2층) 참석인원 : 20명 당면업무 협의	당면업무 협의
	일시 : 2009. 8/27 장소 : 온양문화원(2층) 참석인원 : 25명 당면업무 협의	당면업무 협의
14 명사초청강연회	일시 : 2009. 4/15 장소 : 온양문화원대강당 강사 : 선문대 홍연표 교수 참석인원 : 150여명	21세기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관내여성들 대상으로 강연회 개최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가정은 생각,언어,행동을 만드는 곳이라는 주제로 관내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개최	일시 : 2009. 6/3 장소 : 온양문화원대강당 강사 : 복지농도원 윤진수원장 참석인원 : 150여명	명사초청강연회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관내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연회 개최	일시 : 2009. 9/21 장소 : 온양문화원대강당 강사 :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황인태 참석인원 : 150여명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이지할묘,솔외성지를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2/27 장소 : 충남 보령 참석인원 : 45명	
마량리동백나무숲, 한산모시관, 서천식물예술원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3/27 장소 : 충남 서천 참석인원 : 45명	
적지사,세계도자기박물관, 백수문학관, 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4/24 장소 : 경북 김천 참석인원 : 45명	
충릉,유릉, 피아노폭포, 영화종합촬영소를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5/29 장소 : 경기 남양주 참석인원 : 45명	
해군사관학교, 통제부시령부, 해군촬영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6/26 장소 : 경남 진해 참석인원 : 45명	추문회탐방
자운서원, 임진각, 황희선생유적지를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7/31 장소 : 경기 퍼주 참석인원 : 45명	
팔석정, 효석문학관, 이효석생가, 허브나라를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8/28 장소 : 강원 평창 참석인원 : 45명	
불갑사,불갑수변공원,불교도래지,백수해안도로를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9/25 장소 : 전남 영광 참석인원 : 45명	
천장호, 장곡사,청양문예회관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시 : 2009. 10/29 장소 : 충남 청양 참석인원 : 45명	
산과 우정을 함께 하며 등산을 통하여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함	일시및 장소 : 1/9 광덕산 6/5 도봉산 2/6 계방산 7/3 청산도 3/6 두류산 8/7 칠보산 4/3 호룡곡산 9/4 조령산 5/8 옥순봉 10/9 악취봉	산우회

15

16

온양문화원

온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어르신문화학교 각종행사참여	일시 : 2009. 10/25 장소 : 동대문 용두초	청룡문화제에 참가하여 짚풀전시및 짚풀공예체험
	일시 : 2009. 11/7 장소 : 외암리, 도자기체험장 엘리펀드	외암리 민속마을, 도자기 체험장, 엘리펀드를 돌아보며 짚풀 작품구상의 인목을 높임.
	일시 : 2009. 11/8 장소 : 신정호	노적거리공연축제 참가하여 짚풀전시및 짚풀공예체험
18 어르신문화학교 체험전문강사 자격증취득	일시 : 2009. 9/7~11/14 참석인원 : 16명 자격증발급기관: 풀짐박물관	짚풀공예 어르신들을 상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특강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전통작품과 창작위주의 작품구상 등의 노력 결과 전국 최초 체험 전문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취득함.
19 해외문화탐방	일시 : 2009. 11/19~23 장소 : 싱가포르, 베트남 참석인원 : 41명	싱가폴,베트남 곳곳을 돌아보며 해외의 문화를 느끼며 체험하는 기회 제공
20 천연염색 작품발표회	일시 : 2009. 11/26~28 장소 : 시민생활관 인원 : 500여명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뒀던 실력을 뽐내며 천연염색 작품발표회를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원을 알림.
21 노인위안잔치	일시 : 2009. 12/15 장소 : 시민생활관 인원 : 500여명	충청 연예인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통해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시간을 가짐.
22 문화학교 운영	일시 : 2009. 1/2~12/31 장소 : 온양문화원 인원 : 300여명	도자기, 천연염색, 발로스, 서예, 전통매듭, 다도, 철보공예, 한국화, 생활영어, 이주민 한국어, 짚풀공예, 선물포장, 북아트, 디지털 카메라, 한과교실 운영
23 향토민속발굴(입향조)	일시 : 2009.1.1~12.31 장소 : 아산시 일원 인원 : 5명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향토 민속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자료 및 문화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함.



1. 아산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2. 성웅이순신축제(조선시대전통거리)
3.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4. 6,25전쟁발발 59주년 특별전시전
5. 전통체험교실.
6. 온양문화유적탐방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2009 신년 교례회	일시 : 1/5 오전11시 장소 : 아리랑부페 참석인원 : 250명	신년사,축사,상호교례,다과 및 오찬 새해를 맞아 군내 각 기관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들을 모시고 새해인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단결을 다짐하는 신년하례식
2 문화학교	기간 : 1/2~1/30 장소 : 청양문화원 수료인원 : 81명	동계청소년문화학교-미술교실,피오피교실,종합공예교실, 밸리댄스교실,종이접기교실(계5강좌),영화상영(무료) 문화적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 학기간중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함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 마련
	기간 : 7.20~8.14 장소 : 청양문화원 수료인원 : 113명	하계청소년문화학교-미술교실,폼아트피오교실, 종합공예교실,밸리댄스교실,종이접기교실,폴리머클레이교실 어린이장기교실 (계7강좌),영화상영(무료) 수료식때 강좌별 발표회 시간을 가져 문화학교 수업기간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3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일시 : 4/18 10:30~17:00 장소 : 칠갑산 장승공원일원 참석인원 : 12,000여명	본행사 - 개막식,칠갑산장승대제,숫대제막식,장승뛰기시연 마을장승제시연,가족장승뛰기 부대행사 - 학생그리기대회, 가족해수아비장작공모전,나만의 우표만들기, 소원성취기원문달기,소지올리기,윤금선무용단 초청공연, 국악인초청공연,공예품 전시,판매,기예단 초청공연, 미술공연,두레풍물단공연,찾아가는 동물원 각설이공연,페이스페인팅,가훈씨주기,사진전시회
	일시 : 4/1 참여인원 : 36명 순례장소 : 통영시 문화유적지 -미륵산 케이볼카, 해저터널 외	유적지순례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체험하며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
4 제2차 문화회원 유적지순례	일시 : 10/20 참여인원 : 27명 순례장소 : 영암군 문화유적지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센터	
5 지역사회교육	응모기간:5.20~6.20	충의선열추모 한글작품공모전 특선 (초등1, 중등1, 고등1) 가작 (초등1, 중등1, 고등1) 입선 (초등2, 중등2, 고등2) 장려 (초등2, 중등2, 고등2)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충남권 문화유적지 및 현충(충의)시설 순례를 통해 지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족정기선양과 호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1차 : 5.29(81명) 2차 : 6.3(75명) 3차 : 6.10(62명)	청소년 역사체험순례
1순례장소 서산마애삼존불,간월도간월암,해미읍성 김좌진장군생가,한용운선생사당 1차:가남초등학교 2차:운곡초등학교 3차:청양초등학교		
제1회 청양군 난.야생화 합동전시회-청양난우회	기간 : 2/28~3/1 장소: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문화가족 씨름운영
한국무용강좌-청양 무용회	기간 : 5/4~10/26 장소 : 문화원 3층	
한사랑 음악회-음악씨름 한사랑	일시 : 8/1 장소 :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제1차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윤보선 전대통령 고택 및 묘소, 고불 맹사성 정승고택, 외암민속마을 삼교전 향상공원-청양향토사연구회	1차 : 6/26(13명)	
제2차 향토사연구위원 조사활동 김유신장군 생가지, 길상사 외 -청양향토사연구회	2차 : 11/13(15명)	
청양 차 연구회 시음회 -청양 차 연구회	일시 : 10/8 장소 : 문화체육센터	
제7회 청양서우회전 -청양군 서우회	기간 : 10/29~11/1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2회 칠갑미술전 -청양군 미술협회	기간 : 11/7~11/12 장소 : 문화원전시실	
제15회 청양칠갑사진회 회원전 -청양칠갑사진회	기간 : 11/13~11/15 장소 : 문화원전시실	
조상현장답사 -정산 풍수지리학회 청양학회	일시 : 11/24 장소 : 예산,홍성,보령	
청양군 시우회 시조경창대회 -청양군 시우회	기간 : 11/30~12/1 장소 : 문화예술회관	
청양문학 시낭송회 -청양문학회	일시 : 12/4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제7회 청양군 바둑대회 -청양군 바둑협회	일시 : 12/5 장소:문화원 3층	

청양문화원

청양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국악교실(가야금, 장구, 민요) -국악교실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풍물교실 -청무풍물패
	기간:연중 장소:문화원 2층	대금교실 -청양 대금동호회
	기간:연중 장소:정산면사무소	정산 풍물교실 -정산 풍물동아리
	기간:연중 장소:정산면사무소	정산 서예교실 -정산 서예동아리
	기간:연중 장소:문화체육센터	청양색소폰교실 -청양군 색소폰모교지
	기간:12월중 장소:관내 유적지	청양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청양문화유적지킴이
8	고유민속 예술발굴 전승	일시: 10.8 장소: 문화체육센터 참여인원: 250여명 -전통민속놀이 읍.면대항 경기 -청양군 민속장기대회 우리고유의 전통놀이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읍.면민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개최
9	애향운동	일시:11.27 장소:문화원 2층 및 청양관내 유적지 참여인원: 40명 내고장 문화알리기 -상호교례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줄무덤, 칠갑산천문대, 출렁다리, 장곡사, 모덕사) -출향 문화예술인 초청
10	문화가족 씨름공연 및 작품발표회	일시:12월중 장소: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문화가족씨름공연 -국악교실 -청무풍물패 -청양무용회 -청양대금동호회 -청양군색소폰모교지 작품 전시 미술작품, 폼아트피오피작품, 종합공예작품, 종이접기작품, 폴리머클레이작품, 토피어리작품 문화가족씨름 공연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
11	발간사업	발행부수: 각,1,000부 (4종) 발행일: 12월 향토민속발굴 -내고장문화유산 교육자료 발간 -청양의 당.단.사, 청양의 전설 -청양의 교육 -칠갑문화 19호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자료열람실(전국향토사료집 및 일반도서)운영 -영화감상교실 운영 영화 및 음악감상을 통한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교육에 기여	기간: 년중	문화코너 운영 12
역사인물관, 문화재관, 영상실 생활문화관, 민속 및 종교관 운영 민속사료를 통하여 옛 선인들의 지혜와 당시의 생활방식등을 알수 있는 계기 마련	기간: 년중	향토사료관 운영 13
문화소식 청양의 역사소개 축제/행사 참여마당 등 각종 지역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지역문화 및 지역 정보센터로 운영함.	일시: 년중 홈페이지 주소: cheongyang.cult21.or.kr	사이버 문화원 운영 14



청소년역사체험순례

태안문화원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지역에서 전래되어 오던 당제를 전승할수 있도록 지원함. 태안지역의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당제행사를 계승 지원하여 그 맥을 이어 갈수 있도록 함	일시 : 2/8(음1/14) 장소 : 원청리(용왕제), 당암리(당제) 고남리(조개부르리지제), 신진도리(당제) 신장리(산신제), 누동리(당제) 참여인원: 800여명 대상: 각 마을주민	당제전승.보존 1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정월 보름 전날에 긴 장대를 마당 한복판에 세우고 새끼줄을 꼬아 새갈래로 지지해서 세워두었다가 머슴의날인 음 2월 1일에 벋가릿대를 누인다. 이때 장대끝에 매달아 두었던 곡식을 가지고 한해의 풍흉을 점치는 의식으로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행사	일시 : 2/25.(음2/1) 11:00 장소 : 이원벋가릿마을 참여인원 : 200 대상 : 기관장 및 마을주민	이원벋가릿대놀이 2
다양한 문화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원 강당을 이용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매주 자료집을 발행하고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함	일시 : 4/4~11/21(16회)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태안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 500여명 대상 : 태안군민	주말영화교실 3
향토민속문화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정보를 사이버상에서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함	일시 : 1월~12월	사이버문화원 4
학생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풍경, 경험화 등 사생대회를 실시함	일시 : 5/2 14: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500명 대상 : 초·중학교	초·중미술실기대회 5
문예작품, 향토문화, 특별기고, 각종 문화예술계소식, 문학작품, 우리고장 문화소식등을 수록한 책자발간	일시 : 1월~12월 참여인원 : 12명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소성의향기15집발간 6
지역문화예술인 현황과 활동사례발표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관람,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토론, 지역문화예술 정책과 방향에 대한 강연, 친교의 시간등을 실시	일시 : 12월중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300여명 대상 : 태안 예술인	태안군문화예술인토론회 7
지역적, 사회적 여건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초청 또는 방문을 통한 무료문화공연을 실시함	일시 : 4월~10월(총4회) 장소 : 오양원 학교 장애인학교 참여인원 : 450명 대상 : 노인, 학생	움직이는 문화공연 8

청양문화원



1. 청소년음악회
2. 청양칠갑산사진회 회원전
3. 부모님과함께하는 문화체험
4. 문화가족씨름수업(청양무용부)
5.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태안문화원

태안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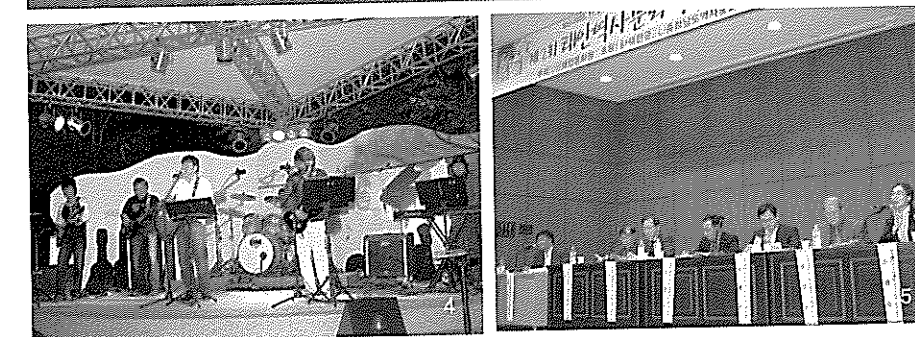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9 가족문화체험단	일시 : 3월,10월(2회) 장소 : 뜰악애,창덕궁,인사동 참여인원 : 80명 대상 : 가족단위	가족과 자연,문화라는 테마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10 태안의문화자원안내물	일시:1월~12월	태안문화원 연간문화활동 소개를 비롯한 태안군의 축제, 민속문화, 전시관, 명승지 문화재를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
11 문화유적답사	일시 : 6월, 10월 장소 : 섬(내파수도외),인천 참여인원 : 80명, 40명 대상 : 문화가족	섬기행-일반관광이 안되는 기획코스
12 지역문화교류사업	일시 : 4월, 10/21 장소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인천(경기도권) 참여인원 : 20명 대상 : 의왕문화원, 문화가족	의왕문화원과 자매결연 문화원으로 서로의 문화교류사업과 경기도권 답사
13 충남문화예술인대회	일시 : 10.29 14:00 장소 : 청양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40명 대상 : 문화가족	충남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문화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 및 공감대 형성
14 제18회소성백일장	일시 : 4월~10월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관내초,중,고등학생	태안문화원 계속 사업으로 태안군의 학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생활문화를 주제로 지역문화와 문학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자연과 생활문화를 주제로 시와 산문을 학교별로 접수하여 심사함
15 어린이동요대회	일시 : 5/2 14: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태안군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실시한 후 본선 진출 대상으로 대회를 진행함
16 지역문화학교	일시 : 4월~11월 19:00 장소 : 문화원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4월~6월 유화,요가,리본아트,생태교실,팝글씨 9월~11월 유화,요가,통기타,팝글씨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7 자염체험축제	일시 : 7/31~8/2 장소 : 마금리 남금마을 참여인원 : 300명 대상 : 전국 가족단위	사전 개인이나 단체로 접수를 받아 소금과 관련된 전시장, 생태체험학습장, 종합갯벌 체험
18 범군민 중앙대제	일시 : 2/9(음/1/15) 10:00 장소 : 경이정 참여인원 : 1,000명 대상 : 태안군민	태안의 고유한 전통 민속 제례 의식으로 태안군 각급 기관장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국태민안 기원하는 대제
19 태안의 역사만화집	일시 : 1월~12월 참여인원 : 10명	태안의 지리, 역사, 전설, 자연과 문화등을 만화로 소개
20 제9회 태안문화제	일시 : 5/2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2,000명 대상 : 태안군민	태안군 문화예술단체연합전시회, 풍물대회,전시행사, 전통문화시연 및 축하공연 민속공연등
21 제2회 태안의 역사문화학술발표회	일시 : 11/6 14:0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일반인	태안의 역사에 대한 학계의 고증을 통해 태안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표 및 토론
22 지방문화원특성화사업	일시 : 7월~8월 장소 : 삼성초,대기초,송암초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삼성초,대기초,송암초학생	소외지역의 학생들과 문화예술활동(벽화그리기)
23 향토도서관운영	일시 : 1월~12월 장소 : 문화원 도서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도서분류 및 정리, 기존서고의 분류도서를 새로 마련된 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정리함
24 복조리사업	일시 : 1/5 , 1/21 장소 : 고남면,이원면 참여인원 : 200명 대상 : 고남,이원마을주민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공연과 건강검진 실시

태인문화원

태인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25 어르신문화학교	일시 : 6월~11월 장 소 : 문화원 강당 참여인원 : 30명 대 상 : 50세 이상	50세이상 실버대상으로 미술,난타교육을 실시함, 현재 공연단을 결성에 활발한 활동중
26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일시 : 4월~6월 장소 : 서,태안 인근 숲 참여인원 : 120 대상 : 엄마, 아이	생태프로그램을 구성해 10회 야외 수업
27 바우처사업 -자연과함께하는 우리가족사랑만들기	일시 : 8월~12월 장소 : 강원도-경선,대관령 참여인원 : 160명 대상 : 가족단위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대상으로 테마여행 및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으로써 가족간의 대화와 체험을 통해 공감대형성과 신뢰감 회복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FUN FUN한 문화속으로 생활속으로	일시 : 8월~12월 장소 : 순창,고창,서울,진천,용인 참여인원 : 500명 대상 : 가족단위	
28 그림 글씨 그리고 사진전	일시 : 12. 16~20 장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참여인원 : 100명 대상 : 서예,그림,사진예술인	태안지역에서 1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서예,사진 등을 예술단체에서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연합 전시회를 개최함.
29 느티나무 음악회	일시 : 10월 매주화요일 4회 19:30 장소 : 문화예술 회관 참여인원 : 800명 대상 : 태안군민 누구나	매주1회 밴드공연, 시낭송,마술,통기타,색스폰등 프로그램을 구성한 작은 음악회
30 태안군지	일시 : 1월~12월 참여인원 : 50명	태안에 관한 모든 것을 총람
31 충청남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일시 : 5/15 장소 : 논산 참여인원 : 40명 대상 : 문화가족	민속놀이의 계승 및 발전 시·군간의 화합



1. 바우처사업
2. 태인의 섬기행
3. 어린이동요대회
4. 한티재 느티나무 음악회
5. 태안군 역사문화학술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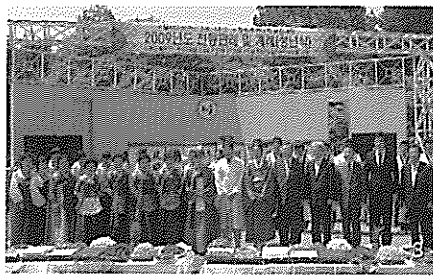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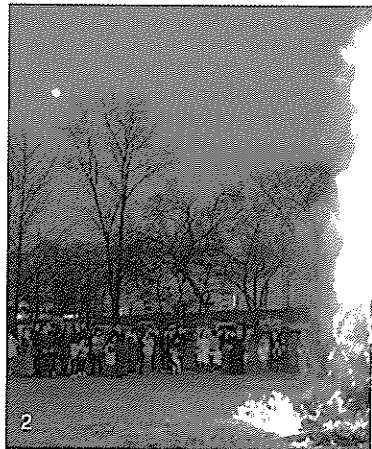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

사업명	세부사항	사업내용
1 신년교례회	일시 : 1/2 장소 : 홍성군청대강당 인원 : 200명	신년인사, 신년사, 축사, 상호인사, 축시낭송, 폐회 신년을 맞아 관내 각급기관 사회, 문화 단체장들간의 친목 도모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를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함
2 2009년도 1월 겨울방학 문화탐방	일시 : 1/19 장소 : 익산 보석박물관 익산 화석전시관 익산 미륵사지 인원 : 40여명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
3 제8회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일시 : 2/8 장소 : 홍성군청 옆 공터 인원 : 2,000여명	연날리기, 제기차기, 소원쓰기, 널뛰기, 다리밟기, 쥐불놀이, 뽕놀이, 달집태우기 등 잊혀져 가는 전통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고자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행사를 마을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실시함
4 2009 제 50회 정기총회	일시 : 2/17 장소 : 문화원 공연장 인원 : 대의원 50명	2008세입, 세출결산승인 2009세입, 세출예산승인
5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옛사진 전시회	일시 : 매달 2째주, 4째주 수요일 장소 : 홍성군 각 읍면	홍성군의 옛사진 전시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줌.
6 야생화 전시회	일시 : 4/9~4/12, 10/30~11/3 장소 : 홍성문화원 인원 : 1,000여명	쉽게 접할수 없는 야생화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새로운 식물에 대해 소개한다.
7 전통관례 및 관례재현	일시 : 5/18 장소 : 혜전대 노천극장 인원 : 700여명	성인된 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고, 행해야 됨을 가르치는 자리
8 독도사진 전시회	일시 : 7/24 장소 : 군청 옆 푸른섬터 인원 : 500여명	우리땅을 바로 알고, 멀리알려 애국심을 심어줌.

사업내용	세부사항	사업명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자기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	일시 : 7/27~7/31, 장소 : 문화원 충청남도 역사박물관 국립 중앙과학박물관 화폐 박물관 인원 : 40여명	여름전통문화학교 9
미래 국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보훈 캠프」 를 통하여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정신', '국가 수호 정신', '민주 정신' 을 함양시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굳건한 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는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일시 : 8/3~5일 장소 : 홍성내포지역 청포대 인원 : 60여명	청소년 보훈캠프 10
영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주민 화합의 자리를 만듬.	일시 : 8/6~10일 장소 : 문화원공연장 인원 : 2,000여명	한여름밤의 무료영화 11
-서예교실 -전통풍수지리교실 -도예교실 -국선도교실 -노래교실	기간 : 년중 장소 : 문화원 인원 : 매회 20명	문화학교 12
홍성의 문화소식을 주민들이 만들어가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해 주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줌	발행부수 : 각 1,000부 발행일 : 6월, 12월	홍성문화발간 13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	일시 : 매주 목요일 장소 : 문화원공연장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14
홈페이지 주소 http://hongseong.cult21.or.kr/index.jsp 문화소식, 홍성의 역사 소개, 축제/행사 등	일시 : 년중	사이버 문화원 15

홍성문화원



1. 2009 청소년 보존 캠프
2. 정월대보름 민속 한마당 행사
3. 2009 전통관례 및 겨례 성년식
4. 신년교례회
5. 아생전시회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활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충청남도 문화원 홈페이지 안내

(가나다순)

충남사이버문화원 : <http://www.cult21.or.kr>

공주문화원 : <http://gongju.cult21.or.kr>

금산문화원 : <http://geumsan.cult21.or.kr>

논산문화원 : <http://nonsan.cult21.or.kr>

당진문화원 : <http://dangjin.cult21.or.kr>

대천문화원 : <http://daecheon.cult21.or.kr>

부여문화원 : <http://buyeo.cult21.or.kr>

서산문화원 : <http://seosan.cult21.or.kr>

서천문화원 : <http://seocheon.cult21.or.kr>

성환문화원 : <http://sunghwan.cult21.or.kr>

아우내문화원 : <http://aunae.cult21.or.kr>

예산문화원 : <http://yesan.cult21.or.kr>

온양문화원 : <http://onyang.cult21.or.kr>

연기문화원 : <http://jochiwon.cult21.or.kr>

청양문화원 : <http://cheongyang.cult21.or.kr>

태안문화원 : <http://taean.cult21.or.kr>

홍성문화원 : <http://hongseong.cult21.or.kr>

충청남도 사이버문화원 E-book 자료관 구축

문화원 발간도서, 홍보책자, 업무책자, 행사사진, 동영상 등 E-book 자료관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사이버문화원 및 도내문화원 홈페이지 하단 배너 링크”

2009충청남도내 문화원현황

문화원명	소재지	창립일	원사총면적(평)	원 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번호 팩스번호
충남도지회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백숙현 김현숙 김정현	T. 354-2367 357-2367 F. 356-3850
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54. 12. 14	650	나태주	현대수	우명란 김민영	T. 852-9005 F.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67. 11. 18	364	김호택	안용산	전병만 석현숙	T. 754-2724 F.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내동 279-4	57. 11. 14	20	박응진	이준창	전현희 박솔기	T. 732-2395 730-4632 F.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0-6	58. 3. 5	341	정정희	정제상	백숙현 김현숙 김정현	T. 354-2367 357-2367 F. 356-3850
대천문화원	보령시 동대동 983-16	62. 2. 4	287	임기석	송하순	김명희	T. 934-3061 F.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2	54. 3. 1	125	윤준웅	김민권	이미영 정은실	T. 835-3318 F.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읍내동 516	57. 6. 15.	570	이준호	김영철	최윤경 강현숙 이용배	T. 669-5050 F.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62	65. 1. 26	300	유성열	정찬영	최신희 노경숙	T. 953-0123 F. 953-0133
성환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66	63. 5. 10	56	송용삼	신광식	김정선	T. 581-2101 F. 582-1725
아우내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172	58. 4. 20	251	김준기	이영현	김희영 성미소	T. 564-1022 553-1032 F. 563-1021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대화리 247-11	55. 10. 15	344	김시운	박세진	이항욱	T. 333-2441 335-2441 F.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온천2동 216-4	57. 3. 20	298	김시겸	이일용	이종경 석명주 이은우	T. 545-2222 F. 542-4444
연기문화원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1-1	64. 10. 14	603	임영이	김미숙	곽희임 이진세	T. 865-2411 865-2412 F. 864-0870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02-5	55. 4. 17	286	정재권	임두순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T. 943-4774 F.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남문3리 53-11	90. 5. 5	241	명수남	정지수	김유미 이연숙 변은비	T. 674-2192 674-1192 F.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89-4	65. 1. 26	605	전용택	김경식	강철식 김령아 정선영	T. 632-3613 632-3612 F. 633-1199



 한국문화연합회 충청남도지회

